2012 연구보고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 현황과 전망

천주교 서울대교구

2012 연구보고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 현황과 전망

기획·조정·자문: **홍근표 신부**(서울대교구 사목국 부국장)

조사·연구·집필: **유혜숙 박사**(가톨릭대학교, 서강대학교 외래 교수)

2012 연구보고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 현황과 전망

발행일 2012년 5월 13일
발행인 정진석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보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단체사목부

주 소 (100-809)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가 1-5번지 별관 2층
팩 스 02) 727-2384
E-mail faith@seoul.catholic.or.kr
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maap
전 화 02) 727-2382

기획·조정·자문 홍근표
조사·연구·집필 유혜숙

디자인과 인쇄 가톨릭출판사

· 이 책의 저작권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있습니다.
· 이 책의 전부나 일부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저작물 또는 인쇄물에 싣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

추 천 사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본당 공동체에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는 하느님을 흠숭하고 신심을 고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는 사도직 활동을 통해, 교회를 쇄신하고 세상을 복음화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1978-2005)께서는 「평신도 그리스도인」(1988)에서 오늘의 이 시대를 "평신도 단체 활동의 새 시대"(29항)라고 일컬으셨고, 제삼천년기를 살아가는 오늘의 교회 역시 신자들 모두가 '새로운 복음화'를 도모하려는 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협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복음화'의 여정에서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가 담당해야 할 사명과 역할이 참으로 많습니다. 진정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 활성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느님 말씀과 교회 가르침에 비추어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의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의 발전 방향과 전망을 성찰한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 현황과 전망』 조사 연구 보고서가 발간된 것은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이 발간되는 이 조사 연구 보고서가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의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사도직 (사립) 단체 활동 참여를 통해 "아버지께서 당신의 풍성한 영광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내적 인간이 당신 힘으로 굳세어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사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기초로 삼게 하시기를 빕니다"(에페 3, 16-17).

2012년 5월 13일
부활 제6주일에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민병덕 신부

발 간 사

교구장님이신 정진석 추기경님께서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쇄신, 변화하고 새로운 열정으로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라는 주제로 사목교서를 선포하셨습니다. 분명 한국 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놀랍도록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 모두는 세계화의 큰 물결과 함께 성장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개인주의, 종교적 무관심 등이 만연해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이러한 변화와 가치관들은 교회 내에도 크나큰 영향을 끼쳐, 입교자 감소, 냉담과 행방불명자의 증가, 청소년 계층의 외면, 그리고 사제 수도 성소의 감소 등 여러 징후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복음화'는 열정이 시들어 가고 있는 유럽 교회와, 국교는 가톨릭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이 온전히 정착하지 못한 라틴 아메리카 교회를 우선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한국 사회와 교회의 현실을 바라볼 때 한국 교회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복음화'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때에, 그동안 한국 교회의 '복음화'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였고,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던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들의 활동상을 다시금 되짚어 보고,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들의 '어제와 오늘'을 잘 정리하여 살펴보는 일은, 앞으로의 교회 미래에 아주 중차대한 작업 중의 하나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처음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에 '단체사목부'가 생길 때만 해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견해가 없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구의 '단체사목부'가 행여 기존의 활발한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들에 대한 지나친 관리나 통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장들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점차 누그러졌고 특히 교구 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공식적인 절차와 인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단체들이 함께 협력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담당 신부님들과 단체장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톨릭'의 이름을 걸고 활동하면서도 여전히 인준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모든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들이 함께 인준 과정에 동참하여 주시리라 기대해 봅니다.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들의 교구 인준 과정은 일부 단체들이 염려하듯이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구와 연결되

어 그 사도직 활동을 더욱 복음적이고 교회적이며 공식적이고 보편적인 활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구 내에서 '가톨릭'의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교구장님과의 최소한의 교류와 인준을 거부하는 것은 분명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할 일이라 여겨집니다.

이번 연구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뜻밖의 크나큰 난관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200년이 넘는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서 그토록 활발하게 활동하고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해 온 단체 사도직에 대해, 다만 몇몇 개별 단체들의 자체 연구가 있었을 뿐, 사도직 단체들에 대한 폭넓은 그 어떤 사목적 연구 작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들에 관한 최초의 사목적 연구이며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많은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들에 대한 연구 작업의 기초가 될 수도 있겠다는 데 크나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연구보고서가 '가톨릭'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든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들이 그 설립의 기본 개념과 원칙 그리고 활동의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들이 앞서 지적한 대로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그리고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보이는 오늘의 사회 속에서, 교회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이 본연의 복음 선포 사명을 구현하고 세상의 복음화를 이루는 데 더욱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돕는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표현으로써 명실 공히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복음화'에 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들의 분야별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생겨나길 바랍니다. 분명 우리 평신도들 가운데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전문적인 각 분야에서 평신도들은 주요한 직책과 크나큰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신도들은 각기 다른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 안에서 그 전문 분야의 복음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들이 함께하는 (사립) 단체들은 그 무엇보다도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야 할 자신들의 소명을 절실하게 깨닫고 복음과 교회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 교구의 사목적 노력에 더욱 능동적으로 동참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분야일수록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고, 단순한 친목 위주의 단체 활동은 오히려 교회의 계층 간의 분열과 세속주의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는 까닭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분야의 특수성이 있는 단체들일수록 더욱 복음화를 위한 전문 분야별 연구와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구뿐 아니라 본당과도 좀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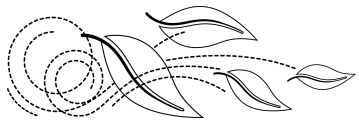
각기 다른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작은 공동체에서도 더욱 체계적이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복음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주관할 수 있는 교구 차원의 다양한 교육 과정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고 각 단체 담당 사제들의 역할도 더욱 분명해져서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들의 특성에 맞는 각각의 사목적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단체사목부 역시 형식적으로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구장님을 대리하여 단체의 활동 방향을 올바로 잡아 주고 늘 교구와 본당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실제적으로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천주교회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들은 그 어느 나라의 단체들보다도 더 활발하게 활동해 왔고 앞으로도 그처럼 활동하리라 기대합니다. 평신도들에게서 시작된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가 보여 주듯이 앞으로도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들의 활동이 올바른 방향에서 좀 더 좋은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점에서는 세계 교회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 활동의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으리라고 조심스런 기대도 걸어 봅니다.

끝으로, 이번 연구를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서울대교구 총대리 염수정 주교님과 사목국장 민병덕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 동안 이 모든 작업을 정리하고 완성하는 데 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객원 연구원 유혜숙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작업을 완성하는 데 늘 협조해 주신 양은주 보나 자매님과 조사 문의에 크게 도움을 주신 모든 단체장님들에게도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2년 5월 13일
부활 제6주일에

서울대교구 사목국 부국장
홍근표 신부



차 례

들어가면서 ····· 17
1. 기획 배경 ····· 18
2. 연구 목적 ····· 18
3. 연구 대상과 범위 ····· 19
4. 연구 일정 ····· 19

서언 ····· 21

제1부 평신도 사도직 단체의 정체성과 사명 ····· 25
제1장 평신도 사도직 단체의 기원과 역할 ····· 27
1. 사도직 ····· 27
1) 어원 ····· 27
2) 기원과 역사 ····· 28
(1) 사도직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 28
(2) 열두 제자들의 사도직 ····· 30
(3) 초기 교회 공동체의 사도직 ····· 32
(4) 교회와 그 구성원의 사도직 ····· 34
3) 형태와 종류 ····· 35
(1)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 ····· 35
(2) 교계적 사도직과 평신도 사도직 ····· 37
(3) 개인 사도직과 단체 사도직 ····· 39
4) 교회 구성원과 사도직 활동 ····· 40
(1) 성직자 ····· 40
(2) 수도자 ····· 41
(3) 평신도 ····· 42
5) 사도직 활동의 목적 '복음화' ····· 42
6) 사도직 활성화 ····· 44

2. 평신도 ····· 45
1) 어원 ····· 45
2) 기원과 역사 ····· 47
3) 개념 ····· 49
4) 권리와 의무 ····· 49
5) 평신도 사도직 ····· 50
(1) 평신도의 중요성 ····· 51
(2) 평신도 사도직의 필요성 ····· 52
(3) 평신도 사도직의 다양성 ····· 53
(4) 평신도 사도직의 목표와 활동 ····· 54
6) 평신도 사도직 활성화 ····· 55
7) 오늘날 요청되는 평신도상 ····· 56
3. 단체 ····· 58
1) 개념 ····· 58
2) 기원과 역사 ····· 59
3) 권리와 의무 ····· 62
(1) 단체 결성과 집회의 자유 ····· 62
(2) 단체 활동 시 지켜야 할 의무 ····· 63
4) 형태와 종류 ····· 63
(1) 공립 단체와 사립 단체 ····· 64
(2) 성직자 단체, 평신도 단체, 성직자와 평신도 공동 단체 ····· 64
5) 역할과 중요성 ····· 65
6) 평신도 사도직 단체 활성화 ····· 66
제2장 평신도 사도직 단체의 신학적 배경 ····· 69
1. 교회 ····· 69
1) 어원과 명칭 ····· 69
2) 기원과 역사 ····· 69
(1) 구약의 옛 백성과 교회 준비 ····· 70
(2) 신약의 새 백성과 교회 설립 ····· 71
(3) 교회의 성장과 발전, 위기와 도약 ····· 72
3) 교회에 대한 이해 ····· 74
(1) 성경의 이해 ····· 74
(2) 신학의 성찰 ····· 75

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관 ····· 78
(1) 교회의 존립 근거이신 삼위일체 하느님 ····· 78
(2) 세상의 기원에서 시작하여 세상의 종말에 완성될 교회 ····· 78
(3) 교회의 개념 ····· 79
5) 교회의 특성 ····· 81
(1) 하나인 교회 ····· 81
(2) 거룩한 교회 ····· 81
(3) 보편된 교회 ····· 81
(4)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 82
6) 이상적인 교회상 ····· 82
(1) 집회(기도와 미사) ····· 83
(2) 복음의 선포와 실천 ····· 83
(3) 공동체의 일치와 친교 ····· 84
(4) 이웃에 대한 봉사 ····· 84
2. 교회 공동체 ····· 85
1) 삼위일체 하느님 공동체 ····· 85
2) 초대 교회 공동체 ····· 85
3) '친교'의 교회 공동체 ····· 86
4) 가정 공동체, 구역·반 소공동체, 본당 공동체 ····· 87
(1) 가정 공동체 ····· 87
(2) 구역·반 소공동체 ····· 88
(3) 본당 공동체 ····· 89
5)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공동체 ····· 89
주요 참고 문헌 ····· 90

제2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 현황 ····· 93
제1장 한국 천주교회 평신도 사도직 단체 조직과 현황 ····· 95
1. 기원과 역사 ····· 95
1) 한국 천주교회 창립과 최초의 신자 단체 '명도회' ····· 95
2) 한국 천주교회와 성모 신심, 성모 성심회 ····· 98
3) 1933년 가톨릭 진행에 관한 주교 교서와 조직적인 평신도 사도직 단체 활동의 시작 ····· 99
4)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영향과 한국 천주교회 평신도 사도직 단체 활성화 106

2. 한국 천주교회 주요 평신도 사도직 단체 조직과 현황 ····· 108
1) 레지오 마리애 ····· 108
(1) 기원과 역사 ····· 108
(2) 창립 목적과 정신 ····· 109
(3) 조직과 운영 체계 ····· 109
(4) 사도직 활동 ····· 111
2)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 112
(1) 기원과 역사 ····· 112
(2) 창립 목적과 정신 ····· 113
(3) 조직과 운영 체계 ····· 114
(4) 사도직 활동 ····· 115
3) 성령쇄신봉사회 ····· 116
(1) 기원과 역사 ····· 116
(2) 창립 목적과 정신 ····· 117
(3) 조직과 운영 체계 ····· 118
(4) 사도직 활동 ····· 118
4)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 119
(1) 기원과 역사 ····· 119
(2) 창립 목적과 정신 ····· 120
(3) 조직과 운영 체계 ····· 120
(4) 사도직 활동 ····· 120
5) 매리지 엔카운터 ····· 121
(1) 기원과 역사 ····· 121
(2) 창립 목적과 정신 ····· 122
(3) 조직과 운영 체계 ····· 122
(4) 사도직 활동 ····· 123
6) 꾸르실료 ····· 124
(1) 기원과 역사 ····· 124
(2) 창립 목적과 정신 ····· 125
(3) 조직과 운영 체계 ····· 125
(4) 사도직 활동 ····· 126
제2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 현황 ····· 127
1. 인준 단체 총람 ····· 127

1) 사회사목부 관할 단체 ····· 127
2) 사목국 단체사목부 관할 단체 ····· 129
2. 사목국 단체사목부 관할 평신도 (사립) 단체 ····· 130
1) 가정 사목 관련 단체 ····· 130
(1) 가정 선교회 ····· 130
(2) 가정 성화 사도직 ····· 130
2) 성모 신심 관련 단체 ····· 130
(1) 루르드 성모회 ····· 130
(2) 마리아사제운동 다락방기도 봉사회 ····· 131
(3)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 131
(4) 서울대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푸른 군대) ····· 131
(5) 천주교 서울대교구 바뇌성모기도회 ····· 132
3) 성서 사목 관련 단체 ····· 132
(1)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 132
(2) 성서못자리 나눔터회(봉사자회) ····· 132
(3) 성서백주간 ····· 133
4) 선교 활동 관련 단체 ····· 133
(1) 서울미바회 ····· 133
(2) 전국 천주교 예수 노상 전교회 ····· 133
(3)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두 선교단 ····· 133
(4) 천주교 서울대교구 북방선교회 ····· 134
5) 공동체 운동 관련 단체 ····· 134
(1) 네오까떼꾸메나도 길 ····· 134
(2) 마리아 사업회(포콜라레) ····· 134
(3) 예수살이 공동체 ····· 135
(4) 한국 CLC ····· 135
6) 전례 관련 단체 ····· 136
(1) 성음악 관련 단체 ····· 136
(2) 가톨릭 전례 꽃꽂이 연구회 ····· 138
(3)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회 연합회 ····· 138
7) 직업 활동 관련 단체 ····· 138
(1) 가톨릭 광고인 협의회 ····· 138
(2) 가톨릭 서울 법조회 ····· 139
(3) 가톨릭 세무사회 ····· 139

(4) 서울 가톨릭 교수 협의회 ····· 139
(5) 서울 가톨릭 미술가회 ····· 139
(6) 서울 가톨릭 언론인 협의회 ····· 140
(7) 서울 가톨릭 의류회 ····· 140
(8) 서울대교구 가톨릭 의사협회 ····· 140
(9) 서울대교구 가톨릭 경제인회 ····· 140
(10) 서울대교구 가톨릭 약사회 ····· 140
(11) 천주교 서울대교구 운전기사회 ····· 141
8) 취미/특기 활동 관련 단체 ····· 141
(1) 가톨릭 목공예 ····· 141
(2) 가톨릭 아마추어 무선사회 ····· 141
(3) 가톨릭 마라톤 동호회 ····· 141
(4) 서울대교구 가톨릭 사진가회 ····· 142
9) 성/연령 관련 단체 ····· 142
(1) 가톨릭 여성 연합회 ····· 142
(2) 한국 오름회 ····· 142
10) 연구 관련 단체 ····· 143
(1) 이콘 연구소 ····· 143
(2)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 143
11)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 ····· 143
3. 천주교 서울대교구 단체 사목 ····· 144
1) 단체사목부 ····· 144
(1) 설립 목적 ····· 144
(2) 주요 업무 ····· 144
2) 인준 심사위원회 ····· 145
(1) 조직 체계와 주요 업무 ····· 145
(2) 회의 ····· 145
(3) 인준 요건 ····· 146
(4) 인준 승인 절차 ····· 146
(5) 심의 검토 내용 ····· 147
(6) 심의 분류 ····· 147
(7) 인준 단체 권리와 의무 ····· 147
(8) 인준이 승인된 단체(장)의 의무 ····· 148
주요 참고 문헌과 사이트 ····· 149

제3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 발전 방향 모색과 전망 ····· 151
제1장 신자의 단체 활동과 각 사도직 단체의 활성화 ····· 154
1. 신자의 단체 활동 활성화 ····· 154
1) 신자의 단체 결성과 활동 촉진 ····· 154
(1) 단체 결성과 모임의 권리 증진 ····· 154
(2) 단체 결성과 도입의 신중함 요청 ····· 155
2) 평신도의 참여와 공동 책임성 증진 ····· 157
(1) 단체는 평신도 참여와 공동 책임성 증진의 터전 ····· 157
(2) 단체 활성화를 통한 평신도의 참여와 공동 책임성 촉진 ····· 157
2. 평신도 사도직 단체 활성화 ····· 160
1) 카리스마(은사)와 정체성 확립 ····· 160
(1) 카리스마(은사) 식별 ····· 160
(2) 카리스마(은사)에 따른 사도직 활동 ····· 161
(3) 카리스마(은사)와 정체성 정립에 따른 내외적 쇄신 ····· 162
2) 교회의 사명 완성 ····· 166
(1) 인간의 기본권 수호, 존엄성 고양 ····· 166
(2) 공동선 증진, 연대성 함양 ····· 167
(3) 복음 전파, 선교 사명 구현 ····· 168
(4) 인간의 복음화와 현세 질서의 그리스도교화 ····· 169
(5) 하느님 나라 확장과 구현 ····· 171
(6) 교회 사명 구현을 위한 평신도 사도직 단체의 역할 ····· 171
3) 신자 양성과 재교육 역할 증진 ····· 174
(1) 평신도 사도직 단체는 신자 양성과 재교육의 장 ····· 175
(2) 단체별로 회원들을 위한 자체 양성 교육 프로그램 마련 ····· 176
제2장 단체 사목의 체계 확립과 지원 확대 ····· 178
1. 단체 사목의 체계 확립 ····· 178
1) 단체 승인의 원칙과 준거 확립 ····· 178
(1) 교회성과 공익성 구현 ····· 178
(2) 정관의 필요성과 정관에 따른 운영 ····· 179
(3) 교계와 맺는 관계성 ····· 179
(4) 명칭의 합목적성 ····· 180
(5) 천주교 서울대교구 자체 단체 승인의 원칙과 준거 마련 ····· 181

2) 단체 자율성과 교회 관할권의 조화 촉진 ····· 181
3) 천주교 서울대교구 상황에 적합한 단체 지침서 마련과 시행 ····· 184
2. 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 185
1) 단체에 대한 사목적 관심과 배려 ····· 185
(1) 단체 현황에 대한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파악 ····· 185
(2) 담당 사제 선임과 실제적 활동 ····· 186
(3) 단체 행사 및 재정 지원 ····· 186
(4) 교회의 공동체성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 ····· 187
2)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의 장 마련 ····· 188
(1) 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 188
(2) 교구, 지구, 본당 차원에서 단체 활동을 하는 모든 신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양성과 재교육 과정 마련 ····· 188
3) 단체 간 대화와 협력 증진 ····· 189
(1) 단체 간 친교 도모 ····· 190
(2) 단체의 단일성과 다양성의 조화 ····· 190
(3)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의 필요성과 활성화 ····· 190
4) 본당, 교구 조직과의 소통과 연계성 구축 ····· 191
(1) 본당과 교구 소통의 역할 ····· 191
(2) 본당과 교구 조직의 연계 역할 ····· 192
주요 참고 문헌 ····· 194

결어 ····· 195

들어가면서

1. 기획 배경

현재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교구 내 제 단체들을 더욱 효과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 단체들이 고유의 카리스마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단체사목부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현재 교구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 단체의 현황을 살펴보고 교회 가르침에 비추어 각 단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과 비전을 모색하며 더욱 실제적으로 지원·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초 조사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연구 목적

1) 하느님 말씀과 교회 가르침에 비추어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의 카리스마(은사)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에 맞갖은 비전을 모색한다.
2)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 현황 파악과 발전 방향 모색을 통해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의 내적 쇄신과 발전을 도모한다.
3)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가 자신의 현황을 올바로 파악하고 향후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단체 활동을 하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각 단체들을 지원 독려한다.
4)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에 대한 교구 운영 방안과 정책의 단초를 마련한다.
5)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단기 및 중·장기 발전 계획의 기초를 마련한다.
6)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하고 참여하며 공동 책임을 나누는 교구 공동체 건설에 기여한다.
7)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구현하는 지역 복음화, 세상 복음화에 기여한다.

3. 연구 대상과 범위

평신도 사도직 단체 중에서 한국 천주교회에서 활성화된 레지오 마리애,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성령쇄신봉사회,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매리지 엔카운터, 꾸르실료 등 주요 단체 조직과 그 구성원, 더 나아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단체사목부 관할 평신도 (사립) 단체 조직과 그 구성원을 주요 연구 대상과 범위로 설정한다.

4. 연구 일정

1) 2011년 7-8월

(1) 기획안 작성

(2) 위원회 구성

① 기획・조정・자문: 홍근표(사목국 부국장)
② 조사・연구・집필: 유혜숙(가톨릭대학교, 서강대학교 외래 교수)
③ 조사 지원과 협력: 양은주(사목국 단체사목부 담당 직원)

(3) 연구 필요성 공유

① 사목국 주요 관계자
② 교구청 주요 관계자
③ 산하 단체 주요 관계자

2) 2011년 9월-2012년 2월

(1) 평신도 사도직 단체 관련한 하느님 말씀과 교회 가르침 연구
(2)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 현황 파악
(3)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 발전 방향 모색과 전망
(4) 조사 연구 보고서 집필

3) 2012년 3월 이후

(1) 조사 연구 보고서 교정, 편집, 인쇄

(2) 조사 연구 보고서 출간

(3) 조사 연구 결과 공유

① 사목국 주요 관계자
② 교구청 주요 관계자
③ 산하 단체 주요 관계자

서언

교회는 '새로운 복음화'[1]의 기치를 내세우면서 제삼천년기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2012년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사목교서를 통해 "'새로운 복음화'는 첫 복음 선포와 재복음화를 아우릅니다. 그 방식이 과거의 선교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열정, 새로운 방법, 새로운 표현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이미 복음화가 이루어진 지역에서 반복하여 복음화를 시도하는 재복음화와는 다르게,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시대적 상황과 조건들을 숙고하면서 복음화의 길을 새롭게 모색한다는 면에서 새롭다는 뜻입니다"라고 밝히면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표현으로 복음을 힘차게 선포함으로써 '온 인류를 위하여 일치와 희망과 구원의 가장 튼튼한 싹'(「교회 헌장」 9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선언한다.

시대의 징표를 읽고 시대의 정황을 성찰하면서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표현으로 힘차게 선포하는 새로운 복음화,[2] 이는 "단순히 지리적으로 더욱 넓은 지역이나 더욱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 계획에 상반되는 인간의 판단 기준, 가치관, 관심 사항, 사고방식, 영감의 원천, 생활양식 등에 복음의 힘으로 영향을 미쳐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바로잡는 것"(「현대의 복음 선교」 19항)까지 포괄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음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화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생생하고 역동적으로 복음을 생활화하는 삶만이 '새로운 복음화'의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제삼천년기 교회가 주력하는 '새로운 복음화'의 전망 안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

1) '새로운 복음화'라는 용어는 1960년대 라틴 아메리카 지역 교회에서 기초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신자들의) 대중적인 움직임이 일어났을 때 자주 사용한 개념이며, 이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79년 폴란드 모길라의 거룩한 십자가 순례지 미사 강론과 1980년 아이티(Haiti) 토론에서 언급하면서 보편 교회 차원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참조: Yu Hae Sook, "La formazione della coscienza morale cristiana nelle piccole comunità in riferimento all'Arcidiocesi di Seoul in Corea", Accademia Alfonsiana della Pontificia Università Lateranense, Roma 2011, p. 136, nota 22; Leonardo Boff, *Con la libertà del Vangelo*, La Piccola Editrice, Roma 1992, p. 135; 「'새로운 복음화' 개념 연구 및 사목적 모색」,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2011년, 10쪽).

2)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3년 3월 9일 제19차 라틴 아메리카 주교 총회 강론에서 '새로운 복음화'를 새로운 열정, 새로운 방식, 새로운 표현의 측면에서 제시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500년에 걸친 복음화를 기념하는 일은, 여러분이 주교로서 자기 사제들과 신자들과 함께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일 때, 그 충만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분명 이 사명은 재복음화가 아니라,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사명입니다. 곧 그 열정과 방식, 그 표현에서 새로운 것입니다"라고 언급한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제19차 라틴 아메리카 주교 총회 강론(1983. 3. 9) 3항,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영문판, 1983. 4. 18, p. 9, in *AAS* 75(1983), 778; 「'새로운 복음화' 개념 연구 및 사목적 모색」,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2011년, 11쪽 재인용).

(1962-1965)를 전후하여 그 중요성이 부각된 평신도 사도직 단체의 정체성과 사명을 올바로 인식하고, 이를 근간으로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의 현황을 살펴보며, 더 나아가 과연 어떻게 하면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를 통해 '새로운 복음화'의 사명을 구현할 수 있을지 성찰해 보고자 한다.

하느님 말씀과 교회 가르침에 비추어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이 조사 연구 작업을 통해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의 내적 쇄신과 발전을 도모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며,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에 대한 교구 운영 방안, 단기 및 중·장기 발전 계획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제1부
평신도 사도직 단체의 정체성과 사명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전후하여 교회 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먼저 시대의 징표를 읽고 이를 복음의 빛으로 식별하며 성찰하는 여정 안에서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루었고, 이천년 이어 온 교회 역사에 커다란 이정표를 남겼다. 교회는 교회의 참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한편으로 초기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이상을 되새겼고, 다른 한편으로 현대화(aggiornamento)의 기치를 내세우면서 오늘의 세상과 오늘의 인간에게 자신을 개방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삶을 통하여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 가는 세상 복음화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성찰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하느님 백성의 주요 구성원인 평신도에 주목하면서 오늘의 세상과 오늘의 인간 속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그들을 복음화해야 하는 평신도의 사명과 역할에 주목하였고,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였으며, 평신도 사도직 활성화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런 맥락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 현황을 살펴보고 전망을 모색하기 이전에, 먼저 평신도 사도직 단체의 기원과 배경, 정체성, 사명과 역할은 무엇인지 고찰하고, 평신도 사도직 단체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신학적 배경으로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 공동체란 무엇인지 성찰하고자 한다.

제1장 평신도 사도직 단체의 기원과 역할

제1장에서는 교회에 평신도 사도직 단체가 생겨난 기원과 배경을 고찰하면서 평신도 사도직 단체가 해야 할 사명과 역할은 무엇인지 성찰한다. 이를 사도직, 평신도, 단체 순으로 살펴본다.

1. 사도직

사도직(使徒職, apostolatus, apostolate)이란 사도적 직무, 사도로서의 직분과 사도로서 행하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 사도직은 하느님을 흠숭하고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며 하느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교회와 그 구성원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며 완성으로 이끄시는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이 세상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구현하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알고 흠숭하며 그분의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를 삶으로 증거하는 교회와 그 구성원의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1) 어원[3)]

사도직(apostolate)이란 말은 라틴어로 '아포스톨라투스'(apostolatus)이며, '아포스톨라투스'는 '아포스톨루스'(apostolus)와 접미사 '-아투스'(-atus)가 합쳐진 말이다. '아포스톨루스'는 '사도'를 뜻하고 접미사 '-아투스'는 어떤 직책이나 인격 관계를 표현한다. 라틴어 '아포스톨루스'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ἀπόστολος)에서 비롯하였고, '아포스톨로스'는 헬라어 '아포스텔로'(apostello, ἀποστέλλω)와 히브리어 '샬라흐'(shālach, שָׁלַח)에서 유래하였다.

히브리어 '샬라흐'는 '가게 하다', '놓아주다', '풀어놓아 주다', '자유롭게 하다', '방임하다', '해방하다', '떠나게 하다', '보내다', '멀리 보내다', '파견하다', '전송하다'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주로 '사람이나 사물, 메시지를 보내

3) 참조: 손현기,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연구: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 논문, 2002년, 23-25쪽.

는 것'을 뜻하였다. 특별히 하느님께서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처럼 당신의 사자, 대리자, 예언자를 보내거나 파견하실 때 사용되었다. 이때 '샬라흐'는 하느님을 뜻을 전하거나 하느님을 대리하여 기적이나 표징을 행하는 사람, 곧 사자, 대리자, 예언자 자신을 의미하였다.[4]

히브리어 '샬라흐'는 칠십인역(LXX)에서 헬라어 '아포스텔로'로 번역되었다. '아포스텔로' 역시 '보내다', '내보내다', '떠나기를 명하다', '(어떤 사람에게) 지정된 장소로 갈 것을 명하다', '(사자나 대리자나 메시지나 명령을) 전달하다, 파송하다', '해방시키다', '놓아주다'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5]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아포스텔로'가 전적인 사자나 대리자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어 '샬라흐'보다 더 권위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는 신약 성경에서 '사자나 대리자로 파송된 자', '위임을 받은 자', '사자', '위임자', '전달자', '발송자'를 뜻하는 말로, 특히 파견한 분 곧 하느님(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인 권위를 부여받고 파견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6] 그 예로 열두 사도들(사도 1, 26), 바오로와 바르나바(사도 14, 14), 야고보(갈라 1, 19), 안드로니코스와 유니아(로마 16, 7), 티토와 그 일행(2코린 8, 18. 22-23) 등을 들 수 있다.

2) 기원과 역사

(1) 사도직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께 파견 받은 분으로서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볼 수 없는 하느님을 보여 주신 하느님의 계시자이자,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모든 사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수행하신 사도들의 모범이시고 사도직의 근원이시며 원형으로서 자리하신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필리 2, 6) 죄와 어두움 속에 사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4) 참조: 탈출 4, 28; 신명 34, 11; 이사 6, 8; 예레 1, 7; "샬라흐", 『히브리어 사전』, 로고스, 1999년, 981쪽; שָׁלַח, 『히브리어 · 아람어 사전』, 빌헬름 게제니우스 저, 이정의 역, 생명의말씀사, 2007년, 833-835쪽; שׁלח, 『구약성경의 간추린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 윌리암 L. 할러데이 편집, 손석태 · 이병덕 공역, 솔로몬, 1998년, 981-982쪽.

5) 참조: ἀποστέλλω, 『신약성서 헬라어 사전』, 고영민 편저, 기독교문사, 1996년, 46쪽.

6) 참조: 요한 13, 16; ἀπόστολος, 『신약성서 헬라어 사전』, 고영민 편저, 기독교문사, 1996년, 43쪽.

세상에 강생하셨다. 동방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 더구나 유다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 그중에서도 마구간 구유에서 탄생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선구자인 세례자 요한에게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 하느님께서 뜻하신 당신의 공적인 사명을 수행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래아에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마르 1, 15)라고 선언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고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나자렛에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루카 4, 18-19)라는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이의 해방과 구원을 위한 당신의 직무를 알려 주셨다. 더 나아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루카 4, 21)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예언자적이고 메시아적인 사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뜻하신 사명을 수행하시기 위해 당신과 함께할 협력자들, 곧 열두 제자를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지내셨다.[7] 예수님은 어느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머리를 기댈 곳조차"(마태 8, 20; 루카 9, 58) 없이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당신의 직무와 사명을 수행하셨다.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선포하셨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수한 행업의 발자취를 남기셨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난한 이와 굶주린 이, 세리와 창녀들, 당시 사회 환경에서 죄인들로 취급되었던 병자들,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했던 어린이와 여자들을 가까이하셨다. 이로 인해 당대 사람들에게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마태 11, 19; 루카 7, 34)라고 불리셨다.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행적으로 하느님과 그 나라를 선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적과 은총을 베푸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유다 이스카리옷의 배반과 유다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과 증오, 위기의식과 경쟁심으로 체포되기에 이르셨다. 예수님은 수난과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깨어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뜻보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셨다.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필리 2, 8)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셨으며, 당신의 사명인 인류 구원을

7) 참조: 마태 3, 13–4, 22; 10, 1-4; 마르 1, 9-20; 루카 3, 21–6, 16; 요한 1, 35-51.

위해 기꺼운 마음으로 수난과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는 죄목으로 골고타 곧 '해골 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의 도움으로 무덤에 안장되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당신의 사명, 곧 죄에 물든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셨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인간을 구원하려 행하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 곧 예수님 사명의 수렴이요 총괄이며 절정이었다.[8] 예수님께서는 나자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말씀처럼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억압받는 이들을 구하고 죄인들을 용서하는 데 전 생애를 바치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루카 9, 23)라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마르 10, 43-44)라고 당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루카 22, 19; 1코린 11, 24)라고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다음에도 가장 먼저 제자들을 찾아 당신 양 떼를 맡기셨으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을 파견하셨다. 마르코 복음서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 15ㄴ), 마태오 복음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 19-20ㄱ), 루카 복음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야 한다"(루카 24, 47)라고 전한다.

(2) 열두 제자들의 사도직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마태 4, 20)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다. 예수님께 '사람 낚는 어부'로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곧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9]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웠으며, 그

8) 참조: 마태 26, 47–27, 61; 마르 14, 43–15, 47; 루카 22, 47-56; 요한 18–19.

9) 참조: 마태 4, 18-22; 마르 1, 16-20; 루카 5, 1-11.

분의 행적을 직접 보고 체험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동안 열두 제자와 일흔두 제자를 파견하시면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고 앓는 이들을 고쳐 주며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과 능력을 나누어 주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복음을 선포하였고,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었으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었다.[10]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 수난과 죽음 전에 제자들을 위해 하느님 아버지께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요한 17, 16-18)라고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성별(聖別)하셨다. 예수님은 수난과 죽음을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셨고 부활과 승천의 영광 또한 누리셨다.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체험하였으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 오순절에는 예수님께서 생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강림을 맞이하였다.

성령 강림을 체험한 다음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지내던 삶에서 벗어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야말로 오랜 세월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참메시아, 곧 참그리스도라고 선언하였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을 체험한 이후 진정한 사도로 거듭났다.

제자들은 유다 대신 마티아를 사도로 뽑았고, 첫 신자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또한 초대 교회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고, 온갖 기적과 치유의 은총을 베풀었다. 전 생애를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자 노력한 그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삶을 증거하고자 헌신하였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지켜보며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나약함을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을 체험한 이후에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용기와 담대함을 보였다. 그는 진정한 '사도'가 되었고, '사도단'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전승에 따르면 사도 베드로는 생애 말기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 기간인 65년경에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자신은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없으므로 십자가를 거꾸로 세워 머리가 밑으로 향하게 해 달라고 청한 후 그대로 순교하였다고 전해진다.

---

10) 참조: 마르 3, 13-19; 마태 10, 1-15; 루카 6, 12-19; 10, 1-12; 요한 17, 9-19.

사도 대 야고보는 44년경 헤로데 아그리파 1세 때에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하였다. 전승에 따르면 사도 안드레아는 그리스의 파트라이(Patrai)에서 X형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였다. 사도 소 야고보는 이집트 또는 시리아에서 신전 지붕에서 던져지고 곤봉과 방망이로 매를 맞은 다음 순교하였다. 전승에 따르면 사도 필립보는 히에라폴리스(Hierapolis)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였다. 사도 바르톨로메오는 인도 또는 아르메니아, 프리기아, 라키오니아,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등 여러 곳에서 선교하다가 아르메니아에서 붙잡혀 산 채로 살갗이 벗겨진 다음 몽둥이에 맞아 순교하였다. 사도 마태오도 순교하였는데, 전승별로 처형 도구가 창, 칼, 도끼 등 여러 가지로 전해진다. 사도 토마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불신을 보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뵌 이후에는 전 생애를 바쳐 순교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고 한다. 사도 시몬은 이집트, 시리아, 메소포타미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유다와 함께 페르시아에서 순교하였는데, 십자가형으로 순교하였다고도 하고, 톱으로 몸이 두 동강이 되어 순교하였다고도 한다. 사도 유다는 사도 시몬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페르시아에서 창에 찔리거나 도끼에 잘려 순교하였다고 한다.

사도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복음 선포의 사명을 죽기까지 수행하였던 것이다.

(3) 초기 교회 공동체의 사도직

초대 교회에는 사도들과 함께 봉사자들(διακονος, diakonos, 디아코노스)이 있었다. 신도의 수가 늘어 가자 사도들은 먼저 그들을 도와줄 봉사자들을 선출하였다. 사도들은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찾아 기도와 안수로 봉사자의 직무를 맡겼는데, 스테파노, 필리포스, 프로코로스, 니카노르, 티몬, 파르메나스, 니콜라오스가 바로 첫 일곱 봉사자들이었다. 봉사자들은 품위가 있어야 하고,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으며, 술에 빠지지 않고, 부정한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사람이어야 했다. 봉사자들은 한 아내의 충실한 남편이어야 하고, 자녀들과 자기 집안을 잘 이끄는 사람이어야 했다. 초대 교회는 여자들도 봉사자로 선출하였는데, 그들 역시 품위가 있어야 하고, 남을 험담하지 않으며, 절제할 줄 알고 모든 일에 성실해야 했다.[11]

초대 교회에는 사도들을 도와주던 많은 협력자들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티모테

11) 참조: 사도 6, 1-7; 1티모 3, 8-13.

오,[12] 티토,[13] 필레몬,[14] 마르코와 루카,[15] 유다와 실라스,[16] 에라스토스,[17] 프리스카와 아퀼라,[18] 에파프로디토스,[19] 트로피모스,[20] 클레멘스,[21] 베로이아 사람 피로스의 아들 소파테르, 테살로니카 사람 아리스타르코스와 세쿤두스, 데르베 사람 가이오스, 아시아 사람 티키코스,[22] 데마스[23] 등을 들 수 있다. 예언자들, 교사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병을 고치는 사람들,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 등 수많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었다.[24] 사도행전은 안티오키아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르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메온, 키레네 사람 루키오스, 헤로데 영주의 어린 시절 친구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다"(사도 13, 1)라고 전한다.

'사도'는 열두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후에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열두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직접 그분께 제자로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지만 바오로와 바르나바 역시 사도라고 불렸다. 특별히 사울이라 불렸던 바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는 체험을 하고 회심하여 세례를 받고 이후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더욱 힘차게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열렬한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5] 사도 바오로는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상 곳곳에 교회 공동체를 세운 초기 교회 공동체의 중심 인물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2) 참조: 사도 16, 1. 3; 19, 22; 20, 4; 로마 16, 21; 1코린 4, 17; 2코린 1, 1. 19; 필리 1, 1; 2, 19; 1테살 1, 1; 3, 2. 5. 6; 2테살 1, 1; 1티모 1, 2. 18; 6, 20; 2티모 1, 2; 필레 1, 1; 히브 13, 23.

13) 참조: 2코린 2, 12. 13; 7, 6. 14. 15; 8, 6. 16. 18; 12, 18; 갈라 2, 1. 3; 2티모 4, 10, 티토 1, 4.

14) 참조: 필레 1, 1.4.

15) 참조: 필레 1, 24; 2티모 4, 11; 사도 15, 39; 콜로 4, 10; 1베드 5, 13.

16) 참조: 사도 15, 22. 27. 32. 40; 16, 16. 19. 22. 25. 29. 38; 17, 4. 10. 14-15; 18, 5.

17) 참조: 사도 19, 22; 2티모 4, 20.

18) 참조: 로마 16, 3; 1코린 26, 19; 2티모 4, 19.

19) 참조: 필리 2, 19. 25; 4, 18.

20) 참조: 사도 20, 4; 21, 29; 2티모 4, 20.

21) 참조: 필리 4, 3.

22) 참조: 사도 20, 4.

23) 참조: 필레 2, 24.

24) 참조: 1코린 12, 27-31; 사도 13, 1.

25) 참조: 사도 8, 1–9, 19.

폭행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다.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오로 역시 사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네로 황제 때 로마에서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다.

초대 교회에는 원로들(πρεσβυτερος, presbyteros, 프레스뷔테로스)과 감독들(επισκοπος, episkopos, 에피스코포스)이 있었다. 원로들은 흠잡을 데가 없고 한 아내의 충실한 남편이며, 자녀들도 신자이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선출되었다.[26] 감독들은 하느님의 관리인으로서 성령께서 양 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며 하느님의 교회를 돌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감독들은 흠잡거나 나무랄 데가 없으며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손님을 잘 대접하고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했다. 술꾼이나 난폭한 사람이 아니라, 관대하고 온순하고 돈 욕심이 없으며 자기 집안을 잘 이끌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아주 품위 있게 자녀들을 순종시키는 사람이어야 했다. 새로 입교한 사람이어서는 안 되고, 바깥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했다. 거만하지 않고 쉽사리 화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며,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을 사랑해야 하며,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자제력이 있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진정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의 자격을 갖추어야 했다.[27]

이렇게 초대 교회에는 여러 사도직을 수행하는 다양한 그룹들이 있었다.

(4) 교회와 그 구성원의 사도직

전술한 바와 같이 사도직이란 본래 하느님께 파견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직무 수행에 연원하는 것(1코린 1, 1)이기에, 전 교회 공동체와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하고 협력하며 그 직무를 계승하고 후대에 이를 전승해야 한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교회가 탄생하였기에,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이심을 증언하면서 이 세상 마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나가야 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평신도 그리스도인」은 9항 '평신도는 누구인가'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회와 그 신비에 대한 평신도의 완전한 소속을 천명하였고 평신도 소명의 독특한 성격을 역설하였다고 평가하면서 교황 비오 12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 일찍이 교황 비오 12세는 "신자들은, 더 정확하게 말해서,

---

26) 참조: 사도 14, 23; 15, 2. 4. 6. 22-23; 16, 4; 20, 17-18; 1티모 4, 14; 5, 17-19; 티토 1, 5-6; 야고 5, 14; 1베드 5, 1. 5; 2요한 1, 1; 3요한 1, 1.

27) 참조: 사도 20, 28; 필리 1, 1; 1티모 3, 1-7; 티토 1, 7-9.

평신도들은 교회의 일선에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인간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은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은 특별히 교회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더욱 분명한 의식을 지녀야 합니다. 교회란 모든 사람의 으뜸인 교황의 지도 아래 그리고 교황과 일치하는 주교들의 지도 아래 있는 지상의 신자 공동체입니다. 이들이 바로 교회입니다"라고 선언하였다.[28]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사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신실한 교회의 한 구성원에서 더 나아가 열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야 하고 이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건설하는 교회 자체가 되어야 한다.

3) 형태와 종류

사도직은 여러 가지 형태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교회 사명에 따라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으로, 교회 직무와 구성원에 따라 교계적 사도직과 평신도 사도직으로, 구성원 수와 활동 형태에 따라 개인 사도직과 단체 사도직으로 구분한다.

(1)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29]

교회 전체와 구성원 각자는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의 사명을 갖는다. 교회와 그 구성원은 하느님을 흠숭하고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며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사제직,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예언자직, 봉사와 섬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직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전 생애를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전하고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는 교회의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① 사제직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하느님께 가장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사제"(히브 6, 20)로서 인간을 하느님과 화해시키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느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30] 인간을 사제다운

28) 교황 비오 12세, 새 추기경들에게 하신 훈화, in *AAS* 38(1946), p. 149.

29) 참조: 「교회 헌장」 10-11, 35-36항.

30) 참조: 로마 5, 11.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고, 하느님만을 섬기게 하시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성화하시려는 당신 사업에 참여시키셨다.

사제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따라 하느님을 흠숭하고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며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인 교회와 그 구성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이 사제직을 정성스럽게 수행해야 한다.

② 예언자직

예수님께서는 산상에서 군중들에게 설교하시면서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마태 5, 37)라고 당부하셨다. 예수님은 바리사이파와 사두가이파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마태 3, 7),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위선자"(마태 23, 13. 14. 15. 23. 25. 27. 29)라고 일컬으면서 그들의 삶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비판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예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도 베드로에게도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마르 8, 33)한다고 꾸짖으셨다.

예언자직은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를 증거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며 아무런 주저 없이 하느님의 진리를 온 세상 곳곳에 드러내는 것이다.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말씀과 실천으로 신앙의 진리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 지체들은 이 예언자직을 삶에서 신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③ 왕직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으로서 온 세상 모든 이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셨지만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필리 2, 7) 되셨다.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셨으며(마태 20, 28; 마르 10, 45 참조),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필리 2, 8)하셨다.

왕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섬김과 봉사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교회와 그 구성원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스스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참다운 왕직을 수행해야 한다.

(2) 교계적 사도직과 평신도 사도직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는 먼저 하느님(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인 권위를 부여받고 파견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31] 초기에는 열두 사도들(사도 1, 26)뿐만 아니라 바오로와 바르나바(사도 14, 14), 야고보(갈라 1, 19), 안드로니코스와 유니아(로마 16, 7), 티토와 그 일행(2코린 8, 18. 22-23) 등 여러 사람들에게 사용하였는데, 후기에 이르러 열두 제자들이나 바오로의 직무에 한하여 사용하였다.[32] 초기 교회 공동체 이후 교회 내 위계가 자리 잡으면서 사도직이란 말은 주로 성직자의 직무, 곧 교계적 사도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평신도 사도직이란 말은 19세기 중엽 이후 평신도 운동이 자리 잡으면서 사용되었고, 평신도 사도직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하여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하느님과 인간의 중개자로서 성부 하느님께로부터 파견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구원의 당신 사명을 '지금 여기에서도' 교회와 그 구성원의 직무를 통하여 계속 실현하고 완성해 나가신다.[33] 교회와 그 구성원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구현하고 계승해 나가는데, 교계적 사도직은 성품성사를 통해 수행하고, 평신도 사도직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하여 수행한다.[34]

① 교계적 사도직

1-2세기 교회 직무는 교회의 당면한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생겨났다. 초기 교회 공동체는 직무별로 서열을 구분하거나 품계를 설정하지 않았다. 이에 신약 성경에는 열두 제자들, 사도들, 주교들에 이르는 '사도적 계승'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발전 과정이 뚜렷하게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초기 교회 공동체가 점차 커다란 공동체로 성장·발전하고 조직화와 체계화를 구축하면서 교회 직무를 구분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초대 교회 공동체의 봉사자들은 부제들로, 원로들은 신부들로, 감독들은 주교들로 이어지는 발전 과정을 갖게 된 것이다. 1세기에는 주교나 신부에 대한 구별이 분명하지 않았고, 2세기에 이르러 주교직에 대한 구별이 시작되었으며, 주교의 은퇴나 죽음 후에 다른 이에게 그 직분을 전수하게 된 것이다. 지역 교회가 주교를 중심으로 하면서, 신부들과

31) 참조: 요한 13, 16.

32) 참조: 사도 1, 25; 로마 1, 5; 1코린 9, 2: 갈라 2, 8.

33) 참조: 히브 4–10.

34) 참조: 요한 4, 14; 7, 38; 로마 6, 1-12.

부제들에 의해 보필되는 경향을 갖게 된 것이다. 5세기 이후에는 주교와 신부의 구별이 더 분명해졌고, 신부와 부제들은 주교들의 협력자로 자리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주교들과 신부들과 부제들의 직무에 대해 "주교들은 공동체의 봉사 직무를 협조자인 신부들과 부제들과 함께 받아들여, 하느님의 대리로서 양 떼를 다스리는 그 목자들이 되고, 교리의 스승, 거룩한 예배의 사제, 통치의 봉사자가 되는 것이다"(「교회 헌장」 20항)라고 가르친다. 특별히 주교들은 "신자들이 각자 자신의 여건과 능력에 따라 사도직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끊임없이 촉구하고, 신자들이 다양한 평신도 사도직 활동, 특히 가톨릭 운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를 후원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초자연적인 목적을 직간접으로 추구하는 단체들을 육성하고 증진시켜, 더욱더 완전한 생활을 지향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인에게 선포하며, 그리스도교 교리나 공적 예배의 발전을 촉구하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거나 신심운동 또는 자선 활동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주교 교령」 17항)라고 가르친다.

② 평신도 사도직[35]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과 사랑과 진리의 친교를 이루도록 세우신 당신의 백성을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고, 세상의 빛과 땅의 소금으로서 온 세상에 파견하신다.[36] 따라서 세례성사로 그리스도의 신비체와 결합된 모든 평신도는 교회와 세상 안에서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의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37]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을 이어받아 자신의 삶 안에서 이를 실천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성직자나 수도자와 달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현세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평신도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Sitz im Leben)에서, 곧 세상에서 각자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는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장(場)이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장인 사회 공동체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직무를 뜻하는 라틴어 '미니스테리움'(mynisterium)이 '봉사하다'를 뜻하는 동사 '미니스트라레'(ministrare)에서 비롯되었듯이, 모든 신앙인들은 하느님과 교

35) 참조: 「교회 헌장」 33항.

36) 참조: 「교회 헌장」 9항.

37) 참조: 「평신도 교령」 3, 5, 9, 33항.

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교회가 인간 구원을 위하여 인간 공동체에 봉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천명하면서, 교회 구성원 모두가 섬김과 봉사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친다.[38] 인간 공동체에 도움을 주고 인간 공동체를 향상시켜야 할 교회의 우선적인 사명이 '일치의 증진'이라고 언급하면서, 사회의 진정한 외적 일치가 믿음과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 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선언한다.[39]

(3) 개인 사도직과 단체 사도직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직무는 안수와 파견을 통하여 계승되었고, 직무를 계승한 이들은 그 성격에 따라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40]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역시 개인 사도직과 단체 사도직의 중요성을 가르쳤다.[41]

① 개인 사도직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개인 사도직이 "참된 그리스도인 생활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서(요한 4, 14 참조) 단체 활동을 포함한 모든 평신도 사도직의 근원이고 조건이며 그 무엇이든 이를 대신할 수 없다"(「평신도 교령」 16항)라고 그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어떤 환경에서는 오로지 개인 사도직만이 적절하고 가능"하므로 "모든 평신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인 사도직에 부름 받았으며 이 사도직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평신도 교령」 16항)라고 강조하였다.

② 단체 사도직

인간은 혼자서 살아가기 어렵기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본성상 사회적 특성을 갖는 인간에게는 개인 사도직뿐만 아니라 단체 사도직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역설하였다. "단체 사도직은 신자들의 인간 조건과 그리스도인의 요구에 잘 부합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친교와 일치를 드러내는 표지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두세 사람이라도

38) 참조: 「사목 헌장」 3항.

39) 참조: 「교회 헌장」 16항; 「사목 헌장」 42항.

40) 참조: 요한 20, 21.

41) 참조: 「평신도 교령」 15-16, 18-19항.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마태 18, 20)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일치단결하여 사도직을 수행한다"(「평신도 교령」 18항)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단체 사도직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교회 공동체나 다른 분야에서 사도직 자체가 흔히 공동활동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사실 사도직의 공동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들은 그 회원들을 뒷받침해 주고, 사도직을 위하여 회원을 양성하며, 그들의 사도직 활동을 준비하고 지도하므로, 개인이 따로 행동하는 것보다 거기서 더욱 더 풍요로운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 평신도들의 활동 분야에서, 조직적인 단체 사도직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평신도 교령」 18항)라고 역설하였다.

4) 교회 구성원과 사도직 활동

교회 구성원은 크게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분된다. 성직자에는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몬시뇰, 사제, 부제가 속하고, 수도자는 성품성사의 여부에 따라 성직자에 속하거나 평신도에 속하며, 평신도에는 성직자들을 제외한 모든 신자들이 속한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책이 있지만 그 사명은 오직 하나뿐이다. 사도들과 그 후계자인 성직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성화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한다. 평신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참여하며 교회와 세상에서 하느님 백성 전체의 사명을 자기 나름으로 수행한다.

(1) 성직자

성직자는 사도들의 사명을 이어받아 정결과 순명을 서원하는 성품성사를 통해 성별된 이들로서 사도의 사명을 살아가는 주교, 신부, 부제를 가리킨다. 초대 교회의 감독들, 원로들, 봉사자들의 주요 임무는 복음 선포, 전례 봉사, 공동체 사목이었다. 이 직분을 이어가는 주교들, 신부들, 부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받은 특별한 권한으로 교계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례와 성사를 거행하며,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는 직무를 수행한다. 물론 이 직무는 교회 전체를 위한 봉사의 직무이다. 주교들과 신부들, 부제들은 교회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봉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특별한 봉사직이 그 후계자

인 주교들에게 계승되며, 그 직무는 주교들의 협조자들인 신부들과 부제들의 협력으로 수행된다.

성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참여하고, 성화의 의무(사제직), 가르치는 임무(교도직), 다스리는 직무(사목직)를 수행하면서 하느님과 그 백성에게 봉사한다. 이에 하느님을 흠숭하고 경배하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전례와 성사를 집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착한 목자'로서 신자들을 사목한다.

① 하느님 말씀의 선포

성직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 15)라고 당부하신 대로,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하느님의 말씀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친다.

② 전례와 성사의 거행

성직자들은 전례를 집전하고 성사를 거행하면서 하느님을 경배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분의 현존을 실현한다. 세례성사로 하느님의 백성을 모으고, 성체성사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며, 고해성사로 하느님과 이웃과 화해하게 하고, 견진성사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며, 혼인성사로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을 거룩하게 하고, 병자성사로 앓는 이에게 힘을 주고 하느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게 한다.

③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

성직자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느님의 백성을 하나로 모으고,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돌본다.

(2) 수도자

수도자는 정결과 청빈과 순명의 서원을 통해 완전한 사랑의 복음적 권고를 살면서 하느님께 봉헌된 생활을 한다. 수도자는 하느님 나라를 위해 결혼을 포기하고 일생 동안 독신으로 정결하게 살아간다. 가난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순명의 삶을 살아간다.

수도원은 일반적으로 구성원에 따라 남자 수도회와 여자 수도회(수녀회), 성직

수도회와 평수사회, 관할권에 따라 교황청 관할 수도회와 교구 관할 수도회, 활동 형태에 따라 관상 생활 수도회와 활동 생활 수도회 등으로 구분한다. 교황청이나 교구의 인준을 받은 정규 수도회는 인준된 회칙이나 회헌에 따라 공적으로 정결, 청빈, 순명의 수도 서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다.

수도자들은 수도회의 소명과 카리스마(은사), 개인의 소명과 능력에 따라 기도와 고행, 노동, 본당 사목, 교육과 의료, 사회 복지, 선교 등 다양한 사도직 활동을 수행한다.

(3) 평신도[42]

평신도는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 백성이 된 이들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증거하는 이들이다. 가정과 사회에서, 정치・경제・노동・사회・문화 등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의 사명을 수행한다. 이 세상 곳곳에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협력자가 된다.[43]

5) 사도직 활동의 목적 '복음화'

사도직이라는 말이 복음화와 동의어로 사용될 만큼 모든 사도직 활동은 복음화를 목적으로 한다.

복음화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고찰할 수 있다.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지역 복음화, 세상 복음화 등으로 살펴볼 수 있고, 복음화, 재복음화, 새로운 복음화 등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내적 복음화와 외적 복음화 등으로도 살펴볼 수 있다.

복음화는 하느님 말씀과 교회 가르침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첫 복음 선포와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다시금 복음화를 시도하는 재복음화를 포함한다. 복음화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지향한 '현대화'(Aggiornamento)의 정신을 살려 새로운 열정, 새로운 방법, 새로운 표현으로 '지금 여기에서' 복음화를 이루는 '새로운 복음화'도 포함한다.[44]

복음화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 선포의 사명, 곧

---

42) 평신도에 대해서는 이어질 제1부, 제1장, 2. 평신도에서 더 자세히 고찰한다.

43) 참조: 「교회 헌장」 31항.

44) 참조: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2012년 사목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2011년.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 15)라는 말씀대로 “지리적으로 더욱 넓은 지역이나 더욱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 계획에 상반되는 인간의 판단 기준, 가치관, 관심 사항, 사고방식, 영감의 원천, 생활 양식 등에 복음의 힘으로 영향을 미쳐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바로잡는”(「현대의 복음 선교」 19항) 내외적 차원을 모두 포괄한다. 복음화는 교회 내적으로 쇄신을 도모하고 교회 외적으로 세상을 복음화하는 것 또한 포함한다.

일찍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의 설립 목적은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온 세상으로 넓히고, 모든 사람을 구원에 참여시키며,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한 신비체의 모든 활동을 사도직이라 한다. […] 교회 안에는 다양한 봉사 직무가 있지만, 그 사명은 오직 하나이다.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으로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그분께 받았다. 또한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며 하느님의 백성 전체의 사명에서 맡은 자기 역할을 교회와 세상 안에서 수행한다. 평신도들은 복음화와 인간 성화에 힘쓰며, 현세 질서에 복음 정신을 침투시켜 그 질서를 완성하도록 노력하여 실제로 사도직을 수행한다. 이렇게 평신도들은 그 활동으로 현세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언하며 인간 구원에 봉사한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속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평신도의 신분이므로 바로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인 정신으로 불타올라 마치 누룩처럼 세상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하느님께 부름 받았다”(「평신도 교령」 2항)라고 가르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치듯이 교회의 모든 사도직은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고 모든 사람을 그 구원에 참여시키며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도록 하는 복음화 사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 선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6) 사도직 활성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에 확장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에 참여시키며,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하느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교회의 모든 활동을 사도직이라고 규정하면서 교회 구성원 모두가 사도직을 위한 본질적 소명을 갖는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공의회는 성직자를 중심으로 하는 교계 사도직만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의 발전과 성화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힘을 기울이도록 부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평신도 사도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평신도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세상 어디에서나 더더욱 널리 선포되도록 노력할 사명을 갖고 있으며, 각자의 능력과 시대의 요구에 따라 교회의 구원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할 소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45]

사도직 활성화는 사도직을 수행할 사람들에게 사도직 수행에 앞서 먼저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더욱더 효과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사도직을 위한 교육은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등 전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사도직을 수행할 평신도의 연령, 성, 조건과 능력 등에 따라 활동 분야가 달라질 수 있고, 더욱 근본적으로는 사도직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를 배우고 익혀야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사도직 형태가 다양한 것에 기초하여 그 교육 역시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사도직 수행자에 알맞은 '눈높이 교육과 훈련', 사도직의 여러 가지 형태에 알맞은 '맞춤형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삶의 태도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교회 가르침에 대한 지성적 이해와 더불어 복음 정신이 충만한 실제 생활을 이룰 수 있는 인성적 이해, 실천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세 사물의 질서를 그리스도교적으로 쇄신하려면 신자들은 먼저 교회가 가르치는 사회 교리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지키고 유념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숙고하며, 하느님의 뜻과 공동선에 입각하여 현세 질서를 성찰하고 이를 올바로 바로 잡는 식견과 이해를 넓혀야 할 것이다. 또한 이웃 사랑에 기초한 자선과 선행의 가치를 배우면서 '지금 여기에서' 이를 실천하는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다.

45) 참조: 「평신도 교령」 1-2항.

2. 평신도

평신도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세상에 하느님을 전해야 할 특별한 사명을 갖는다. 평신도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을 수행하도록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1) 어원

평신도(平信徒, laicus, layman)란 말은 라틴어로 '라이쿠스'(laicus)이며, 라틴어 '라이쿠스'는 헬라어 '라이코스'(λαικος, laikos)에서 비롯하였다. 헬라어 '라이코스는 헬라어 '라오스'(λαός, laos)에서 비롯하였고, 헬라어 '라오스'는 히브리어 '암'(עם, am)에서 유래하였다.

히브리어 '암'은 주로 '민족', '백성'을 가리키고, 가끔 '종족', '족속', '지파'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암'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하느님의 백성', '야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 '거룩한 백성' 등으로 표현되었다. 드물게 '그모스(모압)의 백성'처럼 다른 민족의 백성을 가리킬 때,[46] 한 성읍 혹은 한 땅의 백성, 거기에 사는 주민, 특수한 지위와 직책을 가진 이들과 대조적인 의미에서 일반 무리나 백성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람, 인간을 지칭하기도 하였다.[47]

'암'과 비슷한 의미로 '고이'(גּוֹי, gôwy)라는 용어도 사용되었다. '고이'는 '국민', '민족', '백성', '군중'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내 이방인들', '이스라엘 이외의 민족들'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이방인' 그중에서도 '이스라엘 지역 내 이방인'을 가리키며, 더 넓게는 '민족들의 세계', '열방'이라는 의미로도 쓰였다.[48]

'암'과 '고이' 모두 처음에는 다양한 의미로 쓰이다가 점차 '암'은 하느님의

---

46) 참조: 민수 21, 29.

47) 참조: עַם, 『구약성서 히브리어·아람어 사전』, 빌헬름 게재니우스 저, 이정의 역, 생명의말씀사, 2007년, 599-600쪽; עַם, 『구약성경의 간추린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 윌리암 L. 할러데이 편집, 손석태·이병덕 공역, 솔로몬, 1998년, 741-742쪽.

48) 참조: גּוֹי, 『구약성서 히브리어·아람어 사전』, 빌헬름 게재니우스 저, 이정의 역, 생명의 말씀사, 2007년, 130쪽; גּוֹי, 『구약성경의 간추린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 윌리암 L. 할러데이 편집, 손석태·이병덕 공역, 솔로몬, 1998년, 178쪽.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로 더 사용되고, '고이'는 이와 대조적으로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 '이교도'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고 한다.[49]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칠십인역(LXX)은 히브리어 '암'을 '라오스'로 번역하였고 헬라어 '라오스'는 신약 성경에서도 사용되었다.

성경에서 '라오스'는 '일반적인 백성', '일단의 사람들', '군중', '민중', '서민', '무리', '백성',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고,[50] 특별히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었다.[51]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분은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위업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때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자비를 입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1베드 2, 9-10)라는 말씀에서 드러나듯이,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의미를 넘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곧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백성 모두를 포괄하는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52]

결론적으로 성경에 사용된 히브리어 '암'과 헬라어 '라오스'는 모두 성직자와 구별되는 평신도를 가리키기 위한 용어가 아니라 주로 하느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신도(layman)에 해당하는 헬라어 '라이코스'(λαικος, laikos)가 칠십인역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49) 참조: 『구약성경의 간추린 히브리어 사전』, 윌리암 L. 할러데이 편집, 손석태 · 이병덕 공역, 솔로몬, 1998년, 75쪽.

50) 참조: 마태 2, 4; 4, 23; 26, 5; 27, 25. 64; 루카 2, 32; 3, 21; 8, 47; 요한 8, 2; 사도 6, 8; 21, 36.

51) 참조: 사도 3, 23; 7, 17; 15, 14; 2베드 2, 1.

52) 참조: 로마 9, 25; λαός; λαικος, 『헬라어 분해 사전』, Herold K. Moulton 편집, 머릿돌, 247쪽; 고영민 편저, 『헬라어 사전』, 기독교문사, 1993년, 238쪽.

2) 기원과 역사[53)]

초기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모두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성령의 궁전으로서 모두가 다 한 형제자매였다.

헬라어 '라이코스'는 96년경 로마의 클레멘스의 편지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었다. 로마의 클레멘스는 이 편지에서 대사제(Archiereus), 사제(Iereus), 부제(Levites), 일반 신자(Laikos)를 구별하여 사용하였고, '라이코스'는 단지 성직자가 아닌 일반 신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였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나 테르툴리아누스 역시 성직자가 아닌 일반 신자, 거룩한 교회의 한 구성원을 뜻하는 의미로 '라이코스'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초기 교회 공동체, 곧 사도 시대와 교부 시대에는 '라이코스'를 여하한 비하의 의미도 담지 않은, 단지 성직자와 구별되는 일반 신자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라이코스'란 말이 사회적으로는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서만이 아니라 유식한 지배층과 달리 무지한 일반 백성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2세기 후반부터 3세기 로마의 박해에 맞서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교회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성직자'(클레리코스)와 '평신도'(라이코스)의 구별도 생겨났다. 이후 '라이코스'는 교회 내에서 평신도를 가리키는 용어로 정착하였다.

311년에 갈레리오 황제(305-313)는 그리스도교 박해가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고, 죽음을 앞둔 병석에서 관용의 칙서를 발표하였으며, 313년 6월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밀라노 칙령으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였다. 이후 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고, 로마 제국 황제들의 호의를 받으며 세계적 종교로 성장하였다. 교회는 점차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어 이른바 교계 제도를 확립하였고, 교회 내에는 점차 '교회와 세상',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개념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완전한 사회이고 세상은 불완전한 사회이며, 성직자는 교회를 책임지는 주체로서 가르치고 성화하며 다스리는 직무를 수행하고, 평신도는 성직자의 가르침을 받고 이에 순명하는 대상으로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양상은 라틴어 미사가 보편화된 8세기경부터 본격화되었다. 평신도는 라틴어를 잘 몰라 미사에 수동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평신도

53) 참조: 김인식, 「평신도에 대한 이해의 변천과 교회법전 안에 나타나는 평신도 사도직 활동에 대한 고찰」, 부산가톨릭대학교 석사 논문, 2008년, 7-18쪽; 『Decretum Gratiani』, c.12, q.1, c.7; 박동균, 「평신도의 신분—현행 교회법전을 중심으로」, 『신학과 사상』, 13(1995), 32쪽.

란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 '교육받지 못한 자', '무식한 자', '비전문가'를 가리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이런 교회의 흐름은 10세기경 수도회가 발달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일례로 1142년 『그라지아노 법령집』(Decretum Gratiani)은 교회 구성원을 성직자와 수도자로 이루어진 첫째 계급과 평신도로 이루어진 둘째 계급으로 구분하였다. 이른바 '피라미드형' 교계가 생겨난 것이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성 베드로 성전의 개축과 관련 대사 남용을 문제 삼은 데서 시작하여, 교황과 교도권, 공의회의 무류성, 성사의 문제를 제기하며 종교개혁을 단행하자, 교회는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를 개최하였고, 교도직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제1차 바티칸 공의회(1869-1870)까지 이어졌다.

19세기 후반, 성경학, 교부학, 전례학 등 신학이 발전하면서 하느님 백성에 관한 본래적 이해를 회복하였고 평신도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평신도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교황 레오 13세(1810-1903)는 1891년 5월 15일 '노동 헌장'으로 일컬어지는 회칙 「새로운 사태」를 반포하면서, 세상에서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평신도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였다.

더 나아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는 교회의 구성원인 평신도의 신원을 본래대로 다 같은 '하느님 백성'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았고, 평신도 사도직의 중요성을 재조명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을 다 같은 하느님의 백성으로 규정하였고, 평신도의 사명을 재조명하였으며, 평신도 사도직이 교계의 위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자체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고히 하였다.[54] 이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1965년 11월 18일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Apostolicam Actuositatem*, *AA*)을 반포하였고, 이런 배경과 전망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8년 12월 30일 「평신도 그리스도인」(*Christifideles Laici*, *CfL*)을 반포하였다. 평신도는 세상 한가운데 있는 교회로서 능동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존재로 재인식되기에 이르렀다.

54) 참조: 정일, "평신도", 『한국가톨릭대사전 11』, 한국교회사연구소, 2005년, 8912-8913쪽.

3) 개념

‘신자’[55]란 말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을 수행하고, 각자의 고유한 조건과 능력, 여건과 상황에 맞게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의 모든 신자, 곧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56] 둘째, 교회 안의 거룩한 교역자들은 성직자들이라고 부르고 그 외의 모든 신자들은 평신도들이라고 일컫는다.[57] 교회법 상으로 수도자는 성품성사의 여부에 따라 성직자에 속하거나 평신도에 속한다. 셋째, 일반적으로 평신도는 성직자, 수도자를 제외한 일반 신자만을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 평신도는 흔히 성품성사로 교계 제도에 참가하는 성직자와 서원이나 거룩한 결연을 통해 복음적 권고를 살면서 축성된 봉헌 생활을 하는 수도자들을 제외한 일반 신자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는 것이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하느님 백성으로 구성되고,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그리스도교 백성 전체의 사명 가운데에서 자기 몫을 교회와 세상 안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교회 헌장」 31항)을 일컫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주로 세 번째 의미, 곧 성직자와 수도자를 제외한 일반 신자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한다.

4) 권리와 의무

교회는 평신도들에게 교회의 전 구성원, 곧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가 지켜야 할 모든 신자의 권리와 의무와 더불어 평신도 고유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58]

교회는 평신도들에게 먼저 모든 신자로서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 곧 교회 구성원으로서 다 같이 누리는 평등성의 권리, 각자의 조건과 임무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 건설에 협력할 의무, 교회와의 친교 유지, 보편 교회와 개별 교회의 본분 수행,

---

55) ‘교우’, ‘교인’, ‘성도’ 등으로도 불린다.

56) 참조: 「교회법」 제204조 1항.

57) 참조: 「교회법」 제207조 1항.

58) 참조: 「교회 헌장」 37-38항.

성화된 삶, 복음 전파, 단체 활동과 집회의 자유, 각자의 신분과 조건에 따라 사도적 활동을 증진하고 지원할 권리,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받을 권리, 교회 신분 선택의 권리, 명예 훼손 금지, 사생활 보호의 권리, 사회 정의 증진,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의무, 교회의 공동선 증진의 의무를 부여한다.[59]

평신도들에게는 개인으로서나 단체의 회원으로서나 하느님의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한테 인식되고 수용되도록 노력할 전반적 의무와 권리"(「교회법」 제225조 1항), "자기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현세 사물의 질서를 복음 정신으로 적시고 완성시켜 특히 현세 사물을 처리하거나 세속 임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특별한 의무"(「교회법」 제225조 2항)를 부여한다. 또한 부부 생활을 하는 평신도들에게는 "혼인과 가정을 통하여 하느님 백성의 건설에 노력할 특수한 의무"와 "자녀들을 교육할 지극히 중대한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고,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의 권리와 복음 정신에 맞갖게 행동할 의무를 부여한다.[60] 교회 가르침을 살고 선포하며 옹호하고 사도직 활동을 잘 수행하는 데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각자의 능력과 조건에 맞게 교리 지식을 배우고 익힐 권리와 의무, 하느님 말씀과 성사를 통한 영적 선익을 위해 목자들에게 도움을 받을 권리, 교회에서 승인된 예식에 따라 하느님께 경배하고 교회의 가르침에 맞는 영적 생활의 고유한 형식을 따를 권리, 교도권에 순종할 권리, 독서자, 시종자 등 전례에 참여하고 봉사할 권리 등을 부여한다.[61]

5) 평신도 사도직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를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로 천명하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하는 친교의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평신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평신도 사도직(平信徒使徒職, apostolatus laicus, lay apostolate)의 의미와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숙고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가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을 이어받아 자신의 삶 안에서 이를 실천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62] 성직자나 수도자와 달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현세적

59) 참조: 「교회법」 제208-223조.

60) 참조: 「교회법」 제226-227조.

61) 참조: 「교회법」 제229-230, 213-214조.

62) 참조: 「교회 헌장」 34-36항.

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평신도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Sitz im Leben)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의 사명을 실천해야 한다. 평신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각자의 조건과 능력, 여건과 상황에 맞게 고유한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1) 평신도의 중요성

평신도들은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의 사도직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나 초기 교회 공동체 이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는 교회 내에서 아주 미미한 역할만을 담당하였다. 오랫동안 평신도는 단순히 가르침을 받고 순명하는 (ecclesia discens et oboediens) 대상으로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간택된 하느님의 백성은 하나뿐이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며'(에페 4, 5) 그리스도 안에서 재생한 지체들의 품위도 같고 자녀되는 은총도 같고 완덕에로의 성소도 같으며, 구원도 하나요 희망도 하나요 사랑도 갈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는 민족의 차별도 국가의 차별도 남녀의 차별도 있을 수 없다. '유다인이나 그리이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갈라 3, 28; 골로 3, 11)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모든 이가 같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이가 성덕을 닦도록 불리었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다(2베드 1, 1)"(「교회 헌장」 32항)라고 천명하였다. 초기 교회 공동체를 모범으로 교회의 본래 모습으로 거듭나고자 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하느님 백성으로서 갖는 평신도의 위상과 역할을 크게 강조하였다. 이에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1964),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1963),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1965) 등을 반포하였다. 그리고 현세 생활의 제 영역에서 살아가는 평신도야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 누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평신도 모두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현세의 사회 질서를 개선하여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역설하였다.

(2) 평신도 사도직의 필요성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목소리와 성령의 인도에 기꺼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즉각 응답”하라고 촉구한다. “주님께서 친히 이 거룩한 공의회를 통하여 모든 평신도를 거듭 부르시며, 평신도들이 날로 더욱 친밀하게 주님과 결합되어 주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필리 2, 5 참조) 주님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도록 권유하신다”라고 언급하면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찾아 가실 모든 도시와 장소에 새로이 평신도들을 파견하신다”(루카 10, 1 참조)라고 제시한다. 이에 “사도직의 다양한 형태와 방법을 통하여 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끊임없이 적응하는 평신도들은 바로 주님의 협력자가 된다”라고 선언한다(「평신도 교령」 33항).

평신도는 하느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며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누구나 창조주 하느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고, 신앙생활의 여정 안에서 성화와 완덕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초대받았다. 이에 평신도 사도직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하여 교회의 구성원이 된 신자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는 것이고, 성체성사를 통하여 하느님, 교회 공동체, 이웃들과 일치를 이루는 신자들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본래적이고 본질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다. 평신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매개체가 바로 평신도 사도직인 것이다.

평신도 사도직은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사실 자체에서 기원하는 것이므로 그 필요성은 신자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에 연결될 만큼 중요하다. 교회 안에서 절대로 없어질 수 없는 사명인 것이다. 교회에 맡겨진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평신도의 고유한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교회의 구성원 가운데에서 그 누구보다도 평신도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제 영역에서 하느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 누룩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자신이 부여받은 사도직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이 모범을 초기 교회 공동체 신자들의 생생한 삶에서 이미 찾아볼 수 있다.[63]

63) 참조: 사도 2, 42-47; 4, 32-37; 11, 19-21; 로마 16, 1-16; 필리 4, 3.

(3) 평신도 사도직의 다양성

① 가정에서

평신도는 성가정을 모범으로 가정의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 혼인을 통해 부부가 된 이들은 자신의 혼인 생활을 통해 상호 신뢰와 사랑으로 혼인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며, 자녀를 잘 교육하여 참그리스도인, 선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양성해야 한다. 평신도들은 가정 생활을 통해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가정 안에서 각자 수행해야 할 사명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② 사회에서

평신도의 고유한 특성은 바로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평신도들은 세속 안에서, 곧 각각의 온갖 세상 직무와 일 가운데에서, 마치 그들의 삶이 짜여지는 것 같은 일상의 가정 생활과 사회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거기에서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아, 자기의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며 복음 정신을 실천하고 누룩처럼 내부로부터 세상의 성화에 이바지하며, 또 그렇게 하여 무엇보다도 자기 삶의 증거로써 믿음과 바람과 사랑으로 빛을 밝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이 특별히 하여야 할 일은 자신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모든 현세 사물을 조명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일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자라서 창조주와 구세주에게 찬미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교회 헌장」 31항). 평신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의 복음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평신도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사상과 정신, 관습과 규율, 규범과 법률, 조직과 환경 모두를 복음의 정신으로 채워 가야 한다. 이 세상을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충만케 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 누룩이 되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에 함께하며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느님 말씀과 교회 가르침을 말로 전하고 행동으로 증거하면서 세상 복음화에 기여해야 한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며 교회란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③ 교회에서

평신도는 사목자와 하나 되어 그들의 사목 활동에 꼭 필요한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일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평신도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 전례 생활, 성사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영적 양식을 얻어야 하고, 여러 사도직 활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참여해야 하며, 교회가 잘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도 책임져야 한다.

(4) 평신도 사도직의 목표와 활동[64]

교회와 그 구성원은 누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의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갖는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온 교회와 그 구성원의 임무인 것이다. 특별히 평신도는 교회와 세상에서, 영적 질서와 현세 질서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성화해야 할 사명을 갖는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평신도는 현세 질서에 하느님 말씀과 교회 가르침을 심어 현세 질서를 그리스도교적 질서로 쇄신하고, 이 세상에 하느님의 뜻이 실현되고 그분의 나라가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든 인간의 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사목자들의 사목 활동에 협력하면서 각자 개인적인 사명과 교회의 공동 사명을 수행하여야 한다. 평신도들의 사도직 활동은 이웃 사랑의 생생한 표현이 되어야 한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했던 초기 교회 공동체의 모범을 따라 평신도들은 “사적이든 공적이든 국제적이든 사회 원조 사업과 자선 활동을 소중히 여기고 힘껏 도와 곤경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민족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주며 선의를 지닌 모든 사람과 함께 이러한 활동에 협력하여야 한다”(「평신도 교령」 8항).

평신도들은 복음 선포와 인간 성화에 힘쓰고, 현세 질서에 복음 정신을 침투시켜 현세 질서를 그리스도교적으로 완성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는 모든 활동, 곧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함으로써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백한 증인이 되고, 모든 인간 구원에 이바지해야 한다.

64) 참조: 「평신도 교령」 6-8항.

6) 평신도 사도직 활성화

제삼천년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평신도 사도직 활성화가 필요하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에 확장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에 참여시키며,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하느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교회의 모든 활동을 사도직이라고 규정하면서 교회 구성원 모두가 사도직을 위한 본질적 소명을 갖는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공의회는 성직자를 중심으로 하는 교계 사도직만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의 발전과 성화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힘을 기울이도록 부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평신도 사도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평신도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세상 어디에서나 더더욱 널리 선포되도록 노력할 사명을 갖고 있으며, 각자의 능력과 시대의 요구에 따라 교회의 구원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할 소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65]

교회법에서도 평신도들이 세례와 견진을 통하여 하느님께로부터 사도직에 위임되느니만큼 개인으로서나 단체의 회원으로서나 하느님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한테 인식되고 수용되도록 노력할 전반적 의무와 권리가 있고, 자기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현세 사물의 질서를 복음 정신으로 적시고 완성시켜 특히 현세 사물을 처리하거나 세속 임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특별한 의무도 있다고 언급한다.[66] 평신도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세상에 하느님을 전해야 할 특별한 사명을 갖는다. 평신도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 예언자직, 사제직을 수행하도록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교회는 평신도 사도직 활성화를 위하여 먼저 주교들에게 “신자들이 각자 자신의 여건과 능력에 따라 사도직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끊임없이 촉구하고, 신자들이 다양한 평신도 사도직 활동, 특히 가톨릭 운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를 후원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초자연적인 목적을 직간접으로 추구하는 단체들을 육성하고 증진시켜, 더욱더 완전한 생활을 지향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인에게 선포하며, 그리스도교 교리나 공적 예배의 발전을 촉구하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거나 신심운동 또는 자선 활동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주교 교령」 17항)라고 요청한다. 또한 “특수한 형태의 평신도 사도직을 도와주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은 적합한 사제들”(「평신도 그리스도인」 25항)을 선발하도록

65) 참조: 「평신도 교령」 1-2항.

66) 참조: 「교회법」 제225조.

권고한다.

이어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들에게 "주교, 본당 사목구 주임, 그 밖의 교구 사제와 수도 사제들은 사도직 수행의 권리와 의무가 성직자나 평신도나 모든 신자에게 공통된 것이며, 교회 건설에서 평신도들도 고유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목자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평신도들과 함께 형제로서 일하여야 하며, 사도직 활동을 수행하는 평신도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 교계의 위임을 받아, 이러한 교역에 종사하는 사제들은 그 사목 활동에서 교계를 대표한다. 이러한 사제들은 교계와 평신도들의 원활한 관계를 증진하며 언제나 교회 정신과 가르침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가톨릭 단체들의 영성 생활과 사도 정신을 발전시키는 데에 진력하고, 지혜로운 조언으로 평신도들의 사도직 활동을 도와주며, 그 사업을 촉진시켜야 한다. 평신도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며, 더욱더 효과적인 사도직 활동 방법을 신중하게 모색하고, 그 단체의 일치는 물론 다른 단체들과도 일치 정신을 증진시켜야 한다. 끝으로, 남녀 수도자들은 평신도들의 사도직 활동을 존중하고, 자기 수도회의 정신과 규범에 따라 평신도들의 활동 증진에 기꺼이 헌신하여야 하며, 사제들의 임무를 뒷받침하고 도와주고 보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평신도 그리스도인」 25항)라고 강조한다.

평신도 사도직 활성화 역시 교육을 필요로 한다. 먼저 평신도들에게 평신도 사도직이 무엇인지, 어떤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해야 하는지, 그 목표와 의미는 무엇인지 등 평신도 사도직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더 큰 결실을 거둘 수 있다.

7) 오늘날 요청되는 평신도상

오늘날 우리가 요청하는 평신도는 사도적 열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을 '지금 여기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신도 사도직을 각자의 조건과 능력에 따라 잘 수행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신앙은 생활로써 드러날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평신도는 평신도다운 삶의 방식과 실천으로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해야 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성직자나 수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 평신도 각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맡은 신자로서의 본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바로 평신도 사도직을 올바로 수행할 때 교회가 요구하는 참다운 평신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천주교회는 평신도로 시작한 교회이다. 초기 한국 천주교회 창립의 주역, 수많은 순교자들, 103위 성인들을 살펴보더라도 그 가운데 대다수가 평신도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평신도들이 한국 천주교회 창립과 성장 발전에 큰 몫을 해 왔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제 오늘의 평신도들도 훌륭한 신앙의 선조들을 본받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누룩으로서 거듭나야 한다.

3. 단체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렵기에 누구나 다른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본성적이든 인위적이든 인간은 자신의 삶을 더욱 잘 영위하기 위해 내외적 조건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단체나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단체 활동을 통해 교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바, 자신이 성취하려는 것, 더 나아가 교회가 해야 할 바를 실천해 나간다.

1) 개념

단체(團體, Associatio, Association)란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집단",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 또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결합한 두 사람 이상의 집단(集團)·법인(法人)·정당(政黨)" 등을 일컫는 말이다.

교회에도 여러 형태의 단체들이 있다. 주교단, 사제단처럼 성직자들만 참여하는 단체가 있고, 봉헌 생활회들과 사도 생활단들처럼 수도자들 혹은 선교사들만 참여하는 단체가 있으며, 평신도들 혹은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는 단체가 있다. 교회법은 "교회에는 봉헌 생활회들과 사도 생활단들과는 구별되는 단체들이 있다. 이 단체들 안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혹은 성직자들 혹은 평신도들 혹은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공동 활동으로 더 완전한 삶을 함양하거나 또는 공적 경배나 그리스도교 교리를 증진시키거나 또는 그 밖의 사도직 사업 즉 복음화 계획과 신심이나 애덕의 사업을 실행하고 현세 질서를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언급한다(제298조 1항).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는 '가톨릭 운동'(Actio Catholica, Catholic Action)과 연결되며, 이 '가톨릭 운동'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평신도들이 이 세상과 사회에 가톨릭 정신을 퍼뜨려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평신도 사도직의 조직적 사도직에 속하는 여러 활동과 그 단체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 말은 교황 성 비오 10세가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교황 비오 11세는 이 운동에 대해 '성직 사도직에 대한 평신도들의 협력'이며 '주교의 위임 아래 조직된 평신도의 사도적 활동'이라고 규정하였다. 「평신도 교령」 20항에 따르면 서로 다른 활동 방식을 갖는 "이 가톨릭 운동은 흔히 교계 사도직에 대한 평신도들의 협력이라고

일컬어"지며 다음의 네 가지 특성을 갖춘 조직체들을 가리킨다. 첫째 "이러한 조직의 직접 목적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며 그들의 양심을 그리스도교적으로 형성하고 다양한 공동체와 환경에 그리스도교 정신을 불어넣는 교회의 사도적 목적"이어야 한다. 둘째, "교회의 사목 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조건을 연구하고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셋째, "하나의 유기체처럼 결합되어 행동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더 적절하게 드러내고 사도직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넷째, 주교나 주교가 명시적으로 위임한 "교계의 상급 지도 아래 행동"해야 한다.

결국 교회 내 평신도 사도직 단체란 '둘 이상의 평신도들이 특정한 사도적 목적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조직하여 교계의 상급 지도 아래 활동하는 조직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교회는 「평신도 그리스도인」 30항에서 평신도 단체들을 위한 '교회성의 기준', 교회가 평신도 단체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그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교 생활의 완성과 사랑의 완덕을 향한 성숙으로 나타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화 소명, 교회의 교도권에 순종하여 교회가 진리를 해석하는 대로,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교회에 관한 진리, 인간에 관한 진리를 수용하고 선포하여야 할 가톨릭 신앙 고백의 책임, 교황과 주교의 교의적 가르침과 사목지침들을 수용하고 그들과 친교를 이루는 확고하고도 진정한 친교의 증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며, 그들의 양심을 그리스도교적으로 형성하고, 다양한 공동체와 환경에 복음의 정신을 불어넣는'(「평신도 교령」 20항) 교회의 사도직 목적에 대한 순응과 참여, 교회의 사회 교리에 따라 인간의 전인적 존엄성에 봉사하도록 투신하는 자세, 곧 인간 사회에서 교회의 현존을 위해 투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교회성을 갖추어야 교회가 권장하고 요청하는 올바른 평신도 단체가 될 수 있다.

2) 기원과 역사

평신도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여 활동하는 단체는 사실 초기 교회 공동체부터 존재하였다. 사도행전을 비롯한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미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여러 형태의 모임들이 자리하였다. 중세 시대에도 수도회의 제3회 활동이나 청빈 운동 등에서 이런 단체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본고가 다루고자 하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는 '가톨릭 운

동’이라는 이름으로 19세기부터 시작되었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기점으로 더 활성화되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가톨릭 운동’은 신자들을 중심으로 조직한 가톨릭 사도직 활동을 의미한다. 이 운동은 19세기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 벨기에 등 역사적으로 가톨릭 전통이 뿌리 깊은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근대 이후 급속하게 파급되어 가는 반(反) 교회적 성향을 띤 여러 사상과 가치관, 국가 권력, 교회 박해 상황에 대응하면서 교회의 가르침과 정신을 이 세상에 전하고자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제 단체 운동에서 비롯되었다. 사실 근대 이후 교회는 인문주의 대두와 신본주의 쇠퇴, 종교개혁으로 인한 교회의 분열, 르네상스 운동과 과학의 부흥, 지동설의 대두와 신대륙 발견, 프랑스 혁명(1787-1799), 유물론과 공산주의의 대두 등 여러 가지 반교회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기 때문이다.

‘가톨릭 운동’의 형태는 국가마다 다양하였다. 발생 초기라 할 수 있는 1828년 이탈리아 피에몬테 왕국의 임금 비오 부루노네 란테리(Pio Brunone Lanteri)가 ‘가톨릭 우애’(Amicizie Cattoliche)를 창설하였고, 1833년 프랑스의 앙토안느 프레드릭 오자남(Antonie-Fredric Ozanam)과 동료들이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Societas Sti. Vincentii a Paulo)를 창설하였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지원과 도움을 주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1848년에서 1860년 사이에 프랑스에서는 ‘교회 수호를 위한 가톨릭 연맹’(Ligue catholique pour la défense de l’Eglise), 벨기에에서는 ‘가톨릭 연합’(Union catholique), 독일에서는 ‘가톨릭 단체’(Katholischer Verein), 스위스에서는 ‘자비회’(Piusverein), 영국에서는 ‘가톨릭 연합’(Catholic Union), 스페인에서는 ‘가톨릭 단체’(Asociación de católicos) 등이 생겨났다.

‘가톨릭 운동’은 교황 그레고리오 16세(1831-1846)가 1832년 반포한 회칙 「미라리 보스」(Mirari vos), 교황 비오 9세(1846-1878)가 1864년 반포한 「실라보」(Silabo)에서 힘을 얻어 더욱 촉진되고 전파되었다. 1863년 프랑스 말리네스(Malines)에서 국제적인 회의가 열렸고, ‘가톨릭 운동’이라는 조직체가 탄생하였다. 더 나아가 ‘가톨릭 운동’은 1891년 5월 15일 교황 레오 13세(1878-1903)가 회칙 「새로운 사태」(Renum Novarum)를 반포하면서 교회에서 자리 잡게 되는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제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에 ‘가톨릭 운동’은 더 조직화되었다. 당시 유럽 교회는 커다란 위기를 겪었다. 이에 평신도가 진정한 교계 사도직의 협력자로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고 그 나라를 구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특별히 ‘가

톨릭 운동'의 교황이라 불리는 교황 비오 11세(1922-1939)에 이르러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독일의 나치즘에 대항하여 평신도 사도직이 급부상하였다. 아일랜드에서는 1921년 레지오 마리애, 벨기에에서는 1924년 가톨릭 노동 청년회(J.O.C.)가 생겨났다. 이 모든 가톨릭 운동 단체들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교황 비오 12세(1939-1958)는 1957년 10월 5일 평신도 사도직 회의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자리하지만 교회 내 명확한 조직이 없는 '가톨릭 운동'에 대해 언급하였다. 교황 비오 12세는 사도들을 통하여 주님께로부터 받아 내려온 선교 사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미 조직된 여러 운동들 가운데 몇 개를 승인하는 것을 전 교회 공동체에 제안하면서 공적으로 교회의 운동이라 말해 왔던 이 운동들을 교회의 '사도직'으로 부상시켰다. 교황 요한 23세(1958-1963)는 '가톨릭 운동'에 종교적 차원을 특성화하라고 요청함으로써, 다른 분야에서 진행되는 그리스도인들의 활동과 다른 '가톨릭 운동'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렇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활동과 '가톨릭 운동'의 구분이 이루어졌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새로이 교회상을 재정립하면서 '가톨릭 운동'의 역할을 분명히 하였다. 교회는 신비적이고 역사적인 실제, 하느님과의 내적 일치 그리고 모든 인간과의 합일에 대한 그리스도의 성사, 상징, 도구로서 자리한다.[67] 교회는 성령 안에서의 일치이고 인간과 세상의 구원의 성사라는 전체성 안에서 복음화의 특별하고 고유한 직무를 이어받았으며,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복음화의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르심 받았다. 세례성사의 기초 위에서 각자의 고유한 은사와 직무로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참여해야 한다. 서로 다른 은사와 직무는 그들에게 서로 친교 안에서 공동으로 일할 것을 요청한다. 이런 전망 안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톨릭 운동'이 특권 집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특별한 봉사직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말한다.[68]

교황 요한 바오로 2세(1978-2005)는 「평신도 그리스도인」에서 하느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지체, 성령의 궁전으로서 갖는 평신도의 정체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의 참여자로서 가지는 사명을 언급한다. 또한 "세속은 평신도들이 자신의 그리스도인 소명을 성취하는 자리가 되고 그 수단이" 된다고 제시하면서 세속 안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불린 평신도의 개인 사도직과 단체 사도직의 소명을 언급한다. 특별히 현대에 들어 "협회, 단체, 공동체, 운동 등 무수한 형태의 집단이 형성되고 전파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평신도 단체

67) 참조: 「교회 헌장」 1, 48항; 「선교 교령」 1, 5항; 「사목 헌장」 49항.

68) Cf: Giuseppe Scabini, "L'azione cattolica e varie forme di apostolato nell'insegnamento teologico", in *Seminarium* (1976), pp. 116-118.

활동의 새 시대"(29항)가 열렸다고 역설한다.

교황 베네딕토 16세(2005-현재)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에서 단체와 이웃 사랑을 연결시키면서 "인간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증가하는 것은 결국 창조주께서 인간의 본성 자체에 이웃 사랑의 계명을 새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세상에 그리스도교가 현존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31항)라고 언급하고 "다양한 교회 단체들의 참된 주체는 본당에서부터 개별 교회, 보편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원의 교회 자신"(32항)이라고 제시한다.

3) 권리와 의무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단체를 결성하고 모임을 하는 권리를 가지면서 동시에 단체의 회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도 가진다.

(1) 단체 결성과 집회의 자유

교회는 관할권자와 신자 모두에게 단체를 결성할 자유가 있다고 천명하고 이를 교회법으로 명시하였다.

교회는 단체 결성이 교회 관할권자의 소임이라고 일컬으면서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교 교리를 전수하거나 공적 경배를 증진시키는 일을 목적하거나 또는 본성상 교회의 권위에 유보되는 기타의 목적들을 추구하려는 신자들의 단체들을 설립하는 것은 오로지 교회의 관할권자의 소임"(제301조 1항)이고, "교회의 관할권자는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개인들의 계획으로는 목적 달성이 충분히 배려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영적 목적들을 직접으로나 간접으로 추구하기 위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들도 설립할 수 있다"(제301조 2항)라고 명시한다.

교회는 신자들도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다. 교회법 제298조 1항과 제299조 1항은 신자들이 서로 사적 협정을 맺고 완덕의 삶 함양, 공적 경배나 그리스도교 교리 증진, 사도직 사업 즉 복음화 계획과 신심이나 애덕의 사업 실행, 현세 질서를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제 목적들을 추구하기 위한 단체들을 결성할 자유가 있다고 명시한다. 제215조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애덕이나 신심의 목적 또는 세속에서 그리스도교적 소명을 촉진하기 위한 단체들을 임의로 결성하고 운영하며 그 목적을 공동으로 추구하기 위한 집회를 가질 자유가 있다"라고 명시한다. 제216조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모두가 교

회의 사명에 참여하느니만큼 각자의 신분과 조건에 따라 독자적 기획으로도 사도적 활동을 증진시키거나 지원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한다.

(2) 단체 활동 시 지켜야 할 의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의 사도직 소명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소명에 따라 교회가 승인한 단체나 조직에 가입한 평신도들은 그 고유한 영성 생활의 특성을 충실히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평신도 교령」 4항)라고 권고한다.

「교회법」은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신자 각자가 지켜야 할 의무도 명시한다. 제223조 1항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개인으로서나 단체의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때에는 교회의 공동선뿐 아니라 타인들의 권리 및 타인들에 대한 의무도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제216조는 “어떠한 기획도 교회 관할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가톨릭의 명칭을 붙이지 못한다”라고 명시한다. 제223조 2항은 “교회 권위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고유한 권리의 행사를 공동선에 비추어 조정할 소임이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관할권자에게 단체 조정의 소임과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다. 제298조 2항은 신자들이 “특히 교회의 관할권자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장려되거나 추천되는 단체들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언급한다. 제304조 1항은 “모든 단체들은 공립이거나 사립이거나 어떤 명의나 명칭으로 불리든지 간에, 그 단체의 목적 즉 사교적 목표, 본부 소재지, 통할(운영) 및 그 단체에 가입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건들을 정하고 또한 시대와 장소의 필요나 유익을 유의하면서 활동 방침도 규정하는 정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2항은 “시대와 장소의 관행에 맞추고 특히 지향하는 목적에서 가려낸 명의 즉 명칭을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다.

4) 형태와 종류

평신도 사도직 단체는 설립 주체에 따라 공립 단체와 사립 단체, 그 구성원에 따라 성직자, 평신도,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 단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공립 단체와 사립 단체[69]

교회법상 단체는 설립 주체에 따라 공립 단체(제299조 2-3항; 제301조, 제312조)와 사립 단체(제321-326조)로 구분할 수 있다. 공립 단체란 교회의 관할권자, 곧 사도좌, 주교회의, 교구장 주교가 설립한 단체이고, 사립 단체란 그리스도교 신자들, 곧 평신도들과 성직자들이 각기 또는 함께 사적 협정에 따라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공립 단체의 경우, 그 관할권자가 보편적, 국제적 차원에서는 사도좌, 국가 차원에서는 주교회의, 교구 차원에서는 교구장 주교가 된다(제312조). 사립 단체의 경우 신자들에 의해 독자적으로 설립된 비공식 단체(제299조 1항), 교회의 관할권자에 의해 장려되거나 추천된 단체(제299조 2항), 교회의 관할권자에 의해 단순히 인정된 단체(제299조 3항), 법인으로 설립된 단체(「교회법」 제322조 2항)로 구분할 수 있다.[70] 또한 어떤 "사립 단체도 그 정관이 관할권자에 의하여 인준되지 아니하는 한 교회 안에서 인정되지"(제299조 3항) 않으며, "교회의 관할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가톨릭'의 명칭을"(제300조)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도 2001년 추계 정기총회(10월 15-18일)를 통하여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법을 재확인하면서 공립 단체와 사립 단체의 역할을 분명히 한다. 주교들은 공립 단체의 발언이나 활동만이 공식성을 띠고, 사립 단체는 설령 교회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발언이나 활동이 공식성을 띠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립 단체는 관할권자의 동의 없이 '가톨릭, 천주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정관이 해당 관할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단체로서 인정된다고 언급한다. 또한 설령 그 정관이 승인을 받더라도 사립 단체는 사립 단체일 뿐 공립 단체처럼 교회의 공식성을 가질 수는 없다고 명시한다.

(2) 성직자 단체, 평신도 단체, 성직자와 평신도 공동 단체

단체는 그 구성원에 따라 성직자 단체, 평신도 단체, 성직자와 평신도 공동 단체로 구분할 수 있다.[71]

---

69) 참조: 안규태, 「신자들의 공립 단체와 사립 단체」, 『사목』, 1992년, 79-90쪽; 주교회의 사무처, 「교회의 공립 단체와 사립 단체」, 『경향잡지』, 2001년 12월호(제93권) (통권 1605호), 76-77쪽.

70) 참조: 「교회법」 제312조; 제298-299조.

71) 본고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 그중에서도 사립 단체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므로 성직자 단체나, 봉헌 생활회, 사도 생활단처럼 수도자 관련 단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교회법」 제298조 1항은 “교회에는 봉헌 생활회들과 사도 생활단들과는 구별되는 단체들이” 있으며, “이 단체들 안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혹은 성직자들 혹은 평신도들 혹은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공동 활동으로 더 완전한 삶을 함양하거나 또는 공적 경배나 그리스도교 교리를 증진시키거나 또는 그 밖의 사도직 사업 즉 복음화 계획과 신심이나 애덕의 사업을 실행하고 현세 질서를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제시한다.

5) 역할과 중요성

평신도 사도직 단체는 개별 단체 차원에서는 개인 성화, 신심 고양, 가정 성화, 이웃 사랑,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과 사랑, 선교 활동, 사회 참여, 사회복지 향상 등 여러 가지 목적을 지향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복음화’라는 공동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모든 평신도 사도직 단체가 복음화라는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각 단체 활동을 통해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 교령」을 통하여 평신도 사도직 단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공의회는 “평신도들의 활동 분야에서, 조직적인 단체 사도직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것은 긴밀한 협력만이 현대 사도직의 모든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그 선익을 확고히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18항)라고 말한다. 이어 “모든 사도직 단체는 올바르게 평가되어야 한다”(21항)라고 명시한다. “교계가 시대와 장소의 요청에 따라 훌륭한 단체로 인정하고 권장하거나 그 시급한 설립을 결정한 단체를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은 특별히 중요시하고 각자 자기 역량에 따라 이를 발전시켜야” 하고 “이런 단체들 가운데서 국제 가톨릭 기구나 단체들은 오늘날 특별히 높이 평가되어야”(21항) 한다고 언급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은 평신도 단체의 실제적인 결성 그 자체가 인간의 사회적 본성을 드러내고 더 광범위하고도 효과적인 활동을 하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오늘날과 같이 다원화되고 분화되며 세속화된 세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도직 단체들은 복음을 실천하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고 선교와 사도직의 열정을 배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72]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오세아니아 교회」는 하느님 백성인 평신도들의

72) 참조: 「평신도 그리스도인」 29항.

소명을 언급하면서 '시대의 징표들'이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열매들로서 새로운 교회 운동에 주목한다. "새로운 교회 운동은 제자의 삶을 좀 더 충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연령의 가톨릭 신자에게 강력한 자극과 격려가" 되고, "그리스도를 새롭고 깊게 발견하며",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리스도께 충실"하게 하고, "신자들의 신앙 생활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직시한다. 따라서 주교들에게는 "이러한 운동을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징표로 받아들이고, 운동 단체들에게 지역 교회의 구조 안에서 일함으로써 소속 교구의 친교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당부"하고, "사목적 판단에 따라 교회 운동들을 받아들이고 지도하는 한편, 교회 운동 단체들에게 해당 교구의 사목 계획을 존중하도록 당부하여야"(47항) 한다고 명시한다.

모든 신자들은 각자 은사와 책무를 가진 만큼 고유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직무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세상과 인간의 마음에 하느님 나라를 실현할 책무를 받았다. 이런 비전 안에서 '가톨릭 운동'은 교계 사도직에 대한 평신도들의 참여가 되기에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이다.[73]

인간은 누구나 '너'를 필요로 하고, '너'에게로 향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마태 18, 20)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단체 사도직은 신자들의 인간 조건과 그리스도인의 요구에 잘 부합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친교와 일치를 드러내는 표지이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일치단결하여 사도직을 수행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가정 공동체는 물론 공동체 사도직의 특성을 지닌 본당 사목구와 교구에서 그리고 스스로 결성한 임의 단체에서 사도들이 되어야 한다"(「평신도 교령」 18항).

6) 평신도 사도직 단체 활성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는 현 시대가 "평신도 활동의 새 시대"(「평신도 그리스도인」 29항, 「사도들의 후계자」 114항)라고 역설하면서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교회의 목자인 주교들에게 당부한다. 주교는 "인간의 본성과 그리스도인의 세례의 품위를 바탕으로 하는 권리인 평신도들의 결사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단체들의 발전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장려하고, '교회 운동들'과 새로운 공동체들

73) Cf. Giuseppe Scabini, "L'azione cattolica e varie forme di apostolato nell'insegnamento teologico", in *Seminarium* (1976), p. 115.

을 따뜻하게 환영하여, 그리스도인 생활과 복음화의 활력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교는 아버지로서 이 새로운 평신도 공동체들과 함께함으로써, 그들이 지역 교회의 생활 안에 그리고 교구와 본당의 조직들 안에 겸손하게 자리 잡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주교는 교회 승인의 표시로서 이러한 평신도 단체들의 정관 승인을 보장하여야 한다(「평신도 교령」18-19항; 「교회법」 제215조; 제299조 3항; 제305조; 제314조; 「평신도 그리스도인」 29, 31항; 「교회의 선교사명」 72항 참조). 그럴 때에 교구에서 공동으로 수행되는 다양한 사도직 활동은, 각각의 고유한 성격을 마땅히 존중하면서 주교의 감독 아래 조정될 수 있다(「교회법」 제394조 1항 참조). 각 평신도 단체 지도자들과 갖는 긴밀한 접촉으로 주교는 다양한 운동 단체들의 정신과 목적을 알고 이해할 수 있다. 주교는 교구 가족의 아버지로서, 다양한 평신도 운동들 사이의 진실한 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경우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충돌이나 대립을 막을 책임이 있다(「평신도 그리스도인」 31항 참조). 주교는 특별한 평신도 은사의 진정성을 판단하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 생활 속에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을 간직하도록'(1테살 5, 19-21) 촉구받는 교회 목자들의 과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교회 안에서 새로운 은사의 진정성과 단체 권리의 적합한 행사를 보증할 수 있는 교회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교회 헌장」 12항과 「평신도 그리스도인」 30항 참조). 주교는 성좌가 보편 교회를 위한 국제 평신도 단체를 인가하거나 설립할 때 주목하여야 한다"(「사도들의 후계자」 114항)라고 요청한다.

『서울대교구 시노드 후속 교구장 교서』「평신도」 18항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매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도직 운동과 단체들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표징"이라고 선언하면서 "현세의 일을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와 평화를 증진하는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기를 권고"한다. 또한 "평신도 단체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교회성'에" 있으므로, "교회 사도직 단체들은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확고하고도 진정한 친교를 이루며 서로 협력하여야 하고, 교회 전체의 사도직과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하느님의 교회를 다스리도록 성령께서 세워 주신(사도 20, 28 참조) 주교와 이루는 일치는 그리스도인 사도직의 본질적 요소"이며 "한 교구 안에서 활동하는 온갖 형태의 사도직 단체의 확고한 일치를 드러내는 표징적 행위"라고 제시한다. 각 단체가 다른 단체들과 일치하고 협력하며, 주교와도 일치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더불어 "많은 사도직 단체의 외국어 명칭도 우리말로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평신도 사도직 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

고 촉진한다.

평신도 사도직 단체 활성화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필요로 한다. 먼저 평신도들에게 평신도 사도직 단체가 무엇인지, 평신도 사도직 단체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그 목표와 의미, 중요성과 역할은 무엇인지 등 평신도 사도직 단체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교회의 사명을 더욱 잘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평신도 사도직 단체의 신학적 배경

제2장에서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란 과연 무엇이고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정립할 수 있도록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 공동체란 어떤 것인지 함께 고찰한다.

1. 교회

1) 어원과 명칭

‘교회’(敎會, Ecclesia, Church)라는 말은 그리스어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ια, Ekklesia, Ecclesia)에서 비롯하였다. 이 말은 본래 호메로스 시대의 민중회의 아고라에서 유래하였는데, 본래 정치적인 의미로서 ‘민족 집합체’, 더욱 구체적으로는 ‘정치적 집단의 회의 또는 집회’를 뜻하였다. 이를 히브리어 성경 그리스어 번역본인 칠십인역(Septuaginta, LXX)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이나 집회’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카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에다’라는 말을 그리스어 ‘에클레시아’로 번역하면서 그리스도교적으로 사용되었다.

어원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교회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 공동체 전체, 더 나아가 하느님 백성 전체를 뜻하는 말이다.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는 신약 성경에 114회 사용되었는데, 복음서에서는 마태오 복음서에서만 3회, 사도행전 23회, 요한 묵시록 20회, 나머지는 서간에서 사용되었다.

2) 기원과 역사

교회는 세상과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예표되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서 준비되었으며,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 이후 가시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를 드러내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사도들과 초대 교회 공동체 신자들이 유다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곧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교회가 세상과 인간 역사에 뿌리내리게 되었다. '순례하는 교회'는 이천 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성장과 위기, 쇄신과 도약의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74]

구약의 옛 백성 이스라엘이 교회 공동체를 준비하고, 신약의 새 백성, 곧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한다.

(1) 구약의 옛 백성과 교회 준비

한처음에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계속 죄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을 향한 당신의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에 하느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선택하시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전개하셨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어 당신이 마련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에 시달리면서 학대를 받았을 때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억압의 땅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출애급'의 기적을 행하셨다.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에 머물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셨고 단물을 솟게 하셨으며 시나이 산에서 친히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셨다. 하느님은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당신의 백성이 되는 계약이었다. 이 계약을 통해 하느님은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 곧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을 내리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정착하였고 점차 국가 조직을 정비하였으며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정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과의 계약에 충실하지 못했고 그분이 내리신 계명을 저버리고 주변 민족의 우상을 섬겼으며 부정과 부패의 역사를 이어갔다. 예언자들은 다른 민족을 통한 하느님의 심판과 벌을 예고하였고,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신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로마 등으로 이어지는 주변 강대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예언자들은 장차 메시아가 출현하여 이스라엘과 만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그분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느님 나라를 기다렸다.

---

74) 참조: 「교회 헌장」 2, 5, 8-9항.

(2) 신약의 새 백성과 교회 설립

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하느님 나라의 도래(到來)와 현존(現存)을 선포하셨다. 예수님은 갈릴래아에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마르 1, 15)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다.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현존한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루카 17, 21)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의 현존을 선포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자리한다. 하느님 나라는 우리 '가까이'에서, '이미 지금 여기에서' 체험되는 나라이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기에, 미래에 충만히 완성될 종말론적 하느님 나라인 것이다. 이 나라는 의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죄인들에게도 열려 있으며, 진실한 회개와 신실한 믿음을 요청한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실현된다. 예수님은 수난과 죽음과 부활의 삶을 통해 당신이야말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참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고,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성하셨으며,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파스카 신비를 성취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더 나아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12제자를 부르셨고, 그들 중에서 베드로를 선택하시어 그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그들을 세상 곳곳에 당신의 복음을 전할 사도로 파견하셨다.[75]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고동락(同苦同樂)하며 지낸 생생한 삶의 체험과 예수님을 참으로 살아 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바탕으로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곧 교회를 창설하였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 수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의 삶에 기반을 두고 세워진 것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전에 직접적으로 교회를 설립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교회를 시작하셨고 당신의 전 생애를 통하여 교회의 기반을 다지셨다고 말할 수 있다.

---

75) 참조: 『교회론』, 심상태, 가톨릭대학 신학부 강의록, 17쪽.

② 제자들과 교회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교회의 역사는 바로 30년경 오순절에 사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군중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 곧 복음을 선포하면서 시작되었다. 즉 사도들과 사도들의 복음 선포를 받아들인 신자들이 모여 사랑과 일치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실제적으로 창설되었다.

초기 교회의 신자들은 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열성적으로 선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스라엘을 넘어 다른 나라에도 전파되었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크게 두 그룹으로 형성되었다. 하나는 유다계 그리스도교 공동체이고, 다른 하나는 이방계 그리스도교 공동체이다. 유다계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아직도 엄격한 유다 사상을 보존하면서 이를 실천하던 유다 지방의 예루살렘 교회, 갈릴래아 교회, 사마리아 교회, 요르단 서안 지방의 교회 등이다. 이방계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소아시아, 그리스, 이탈리아, 이집트 등에 건설된 교회로, 대표적으로 소아시아(시리아)의 안티오키아 교회와 다마스쿠스 교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교회, 이탈리아의 로마 교회, 그리스의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를 들 수 있다. 이방계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개종한 그리스인, 헬레니스트, 기타 비유다인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과격한 유다 민족주의의 등장과 그로 인한 반감, 바오로 사도의 선교 활동 등으로 이방계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급속히 성장하였고, 70년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 유다계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급격히 쇠퇴하였다.

(3) 교회의 성장과 발전, 위기와 도약

로마 제국의 영토가 확장되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교세가 날로 성장하자, 그리스도교의 급속한 교세 확장에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점점 정치적 불안감을 갖게 되었고, 교회는 200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다.

311년 갈레리오 황제(305-313)는 박해가 그리스도교 전파를 막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고, 죽음을 앞둔 병석에서 관용의 칙서를 발표하였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밀라노 칙령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였다. 이후 교회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고, 로마 제국 황제들의 지원을 받으며 유럽 전역에 뿌리내리게 되었다. 5세기 중반기에 국경 지대의 게르만 민족

이 이동하면서 로마 제국이 멸망하였으며 교회 자체도 붕괴될 위험에 처하였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게르만 민족이 개종하게 되었다. 유럽 전역에 그리스도교에 기반을 둔 새로운 중세 문화가 탄생하였고,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같은 신앙 위에서 일치되는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1054년 교황 수위권, 성상 숭배, 누룩 없는 빵,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이견으로 교회는 동방 비잔틴 교회와 서방 라틴 교회로 갈라졌다. 근대 인문주의 사상이 대두하고 세속권이 강화되며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대사 남용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서방 교회는 다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로 다시 갈라졌다.

종교개혁 이후 교회는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를 통하여 교회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신앙과 교의를 재정립하였고, 교회 쇄신을 시작하였으며, 신대륙 탐험을 계기로 세계 선교에 나섰다. 교회는 18-19세기에 계몽주의 사상, 프랑스 대혁명(1789), 칼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의 유물론 사상과 공산주의 대두 등으로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되었다. 교회는 반교회적 상황에 직면하였고, 교회 재산을 국가에 반납하였으며, 수많은 박해를 받았다. 그러나 이를 통해 교회는 노동자와 일반 서민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는 데 노력하게 되었다. 교회는 급변하는 내외 정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1869년부터 1870년까지 제1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하였고,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하여 교회는 내적으로 교회 쇄신을 단행하였고, 외적으로는 세상에 문호를 개방하고 소통을 개진하며 그리스도교의 일치, 더 나아가 비그리스도교와의 일치를 도모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초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구현하고자 '원천에로' 되돌아갔고, 오늘의 세대가 공감하는 교회 모습을 찾기 위해 '세상에로' 문호를 개방하였다. 평신도의 사명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성직자와 평신도가 다 함께 참여하고 공동 책임을 지는 교회 공동체를 강조하였다. 급변하는 현대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사목 정책을 수립하였고, 각 나라와 민족 고유의 사상과 문화를 수용하는 토착화를 단행하였다.

1983년 새로운 시대 사상과 상황을 반영한 새 교회법을 반포하였고 1984년에 발효하였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급변하는 현대 세계에 적응하는 정책을 입안, 시행하고 있다. 다른 그리스도교와의 일치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교 종교들과도 폭넓은 대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2008년 교황청 '교회 통계 연감 2008'에 따르면 세계 가톨릭 신자는 모두 11억

6,571만 4천 명이며, 총 인구의 17.4%를 차지한다. 이는 2000년 이후 약 11.54%가 증가한 수치이다.[76]

3) 교회에 대한 이해

여기서는 교회란 과연 무엇인지를 하느님 말씀과 교회 가르침에 근거하여 소고한다.

(1) 성경의 이해

성경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한 마디로 정의하는 말을 찾아볼 수는 없기에, 성경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비유와 은유를 통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교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① 하느님의 백성

어원에서 살펴보았듯이,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 백성이 이루는 공동체를 가리킨다. 이는 이스라엘만으로 이루어진 옛 백성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진 새 백성을 의미한다. 백성의 신분은 하느님의 자녀이고(로마 8, 15), 법률은 사랑의 계명이며(요한 13, 34-35), 이 백성의 목적은 하느님 나라의 구현이다(마태 6, 33).

② 그리스도의 몸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와 은유들은 대부분 바오로 서간에서 나타난다.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오로가 가장 많이 사용한 은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체이다.[77]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 이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이들이 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은유는 그리스도와 신앙인들과의 일치와 사랑,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모든 신앙인들의 일치와 친교를 드러낸다.

---

76) 참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 자료마당 내 통계 게시판 30번 글 참조.

77) 참조: 1코린 12, 12; 로마 12, 4-5; 에페 1, 22-23; 4, 15-16; 콜로 1, 18; 2, 19.

교회가 하느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한 다른 모든 사람과도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신비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이 삶에 필요한 은사를 내려 주신다.

③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쓰이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은유이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신부' 또는 '하느님의 아내'라는 은유로 표현되었다면, 신약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2코린 11, 2-3; 에페 5, 22-33)라고 표현된다. 교부 시대에 이르면 교회에 대한 표상이나 은유들이 매우 여성적인 이미지로 나타난다.

④ 어머니

교부들의 저서에서는 교회를 어머니로 표현하는 '어머니 교회'(Mater Ecclesia)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한다. 그런데 교회를 '어머니'로 표상하는 것은 이미 요한 복음서에 나타나 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그 죽음의 순간에 사랑하는 어머니와 제자들을 모자(母子) 관계로 연결 짓는다. 예수님은 성모 마리아께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요한 19, 26)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요한 19, 27)라고 말씀하신다. 성모 마리아와 제자의 모자 관계는 혈연에 기반하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에 기반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성모 마리아는 혈연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이실 뿐만 아니라, 혈연을 넘어 그리스도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여정에 있어서도 어머니의 역할을 담당하신다.

(2) 신학의 성찰[78]

교회는 이천 년 역사를 거치면서 다양하게 이해되었다. 본고에서는 교회를 신비체적 공동체, 제도, 성사, 복음 선포, 봉사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다.

78) 『교회론』, 심상태, 가톨릭대학 신학부 강의록, 31-81쪽에 근거하여 전개한다.

① 신비체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교회를 신비체적 공동체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느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성전으로 이해한 개념과 맞닿아 있고, 성경의 '친교'(Communio) 개념에 굳건한 기반을 두고 있다. 이 교회상은 초대 교회 공동체에서 중세 초기 교회에 이르기까지 주류를 이루었고, 19세기 중엽부터 다시 부각되어 20세기 초엽에 활성화되었으며, '원천에로의 복귀'를 기치로 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이후 현재까지 중요시되고 있다.

② 제도로서의 교회

교회를 제도로 이해하는 것은 중세 후기부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 주류를 이루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의 제도적 측면을 강하게 거부하고 비판하였기에, 교회는 오히려 이를 더 강력하게 옹호하였다. 제도주의적 교회관은 1550년에서 1950년까지 강조되었다.

제도주의적 교회관은 흔히 교계중심적, 성직주의적, 법률주의적, 계선주의적 특성을 지닌다. 가르치고 다스리며 거룩하게 하는 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조하고, 교회 밖에서의 구원의 가능성을 배제한다.

③ 성사로서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 없는 하느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느님의 성사이고, 교회는 승천하시고 현양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사이다. 성사적 교회관은 20세기 이후 많은 가톨릭 신학자들이 제시하였고 앙리 드 뤼박(Henri de Lubac, 1896-1991)이 정립하였다. 이 교회관은 공동체적 교회관과 제도적 교회관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며, 세상에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강조한다. 앙리 드 뤼박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며 실제로 그분을 이 세상에 현존하도록 한다고 말한다.

④ 복음 선포로서의 교회

복음 선포적 교회관에 따르면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에 의해 모이고 형성된 회중이며, 교회의 사명은 자신이 듣고 믿은 바와 온 세상에 전하도록 위임받은 바를 선포하는 것이다. 복음 선포적 교회관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선포된 복음을 믿고 이에 응답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며, 성사들은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 교회관은 칼 바르트(Karl Barth, 1886-1968)가 주창했고, 한스 큉(Hans Küng, 1928-현재)이 제창하였다.

⑤ 봉사로서의 교회

봉사적 교회관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부각되었고, 공의회 이후 교회 공식 문헌에서 강조되었다.

봉사적 교회관에 따르면, 교회는 고통당하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봉사하는 교회이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종의 형상을 취하여 인간으로 강생하셨고, 십자가상 죽음을 통해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하느님의 뜻을 따른 '고난 받는 종'이 되셨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로서 신자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도래와 임재를 복음 선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행동과 실천, 곧 봉사를 통해 증거해야 한다. 교회의 사명은 입교자를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돕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회는 봉사를 통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다. 사실 교회의 봉사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봉사이어야 하고, 교회의 봉사적 역할은 세상을 하느님의 나라로 변모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느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느님의 역사(役事)로 이루어지지만 교회와 인간 각자는 봉사를 통해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협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교회관은 시대 사상이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 강조점을 달리하였다. 이제 교회는 이 모든 교회관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제삼천년기를 살아가는 오늘의 세대에게 꼭 필요한 교회의 모습을 구현하고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관

칼 라너(Karl Rahner, 1904-1984)는 교회사를 세 단계, 곧 제1단계는 초기 교회 공동체 시대, 제2단계는 초기 교회 공동체 이후부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의 시기, 제3단계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그 이후의 시대로 나누었다고 한다. 그만큼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거의 이천 년에 가까운 서구 유럽적 교회의 틀을 깨고 교회를 세계 중심적으로 이해하게 된 혁신적인 공의회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토착화에 대한 이해 안에서 각 민족, 문화, 사상에 이미 주어져 있는 하느님의 뜻과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는 데 교회의 사명이 있다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계기로 하여 달라진 교회의 개념을 공의회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함께 성찰한다.

(1) 교회의 존립 근거이신 삼위일체 하느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의 존립 근거를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 안에서 고찰하면서, 교회가 성부의 보편적인 인간 구원 계획(「교회 헌장」 2항), 성자의 파견과 구원 활동(「교회 헌장」 3항), 성령의 파견과 성화 활동(「교회 헌장」 4항)으로 성립되었다고 천명한다. 이에 공의회는 성 치프리아노와 성 아우구스티노의 사상에 근거하여 교회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로 모인 백성"으로 정의하고, 신자들이 성자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성부께 가까이 나아간다고 가르친다(「교회 헌장」 4항). 교회 일치의 최고 표본과 최고 원리는 삼위일체 하느님, 곧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가 하나가 되는 한 분이신 하느님의 일치라고 언급한다(「일치 교령」 2항).[79]

(2) 세상의 기원에서 시작하여 세상의 종말에 완성될 교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가 "세상이 생길 때부터 이미 예표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구약에서 오묘하게 준비되었고, 마지막 시대에 세워져 성령 강림으로 드러났으며, 세말에 영광스러이 완성될 것"(「교회 헌장」 2항)이라고 가르친다. 교회는 세상의 기원에서 시작하여 세상의 종말에 완성될, 볼 수 있으면서 동시에 볼 수 없는 성사적(聖事的) 실재인 것이다.

---

79) 참조: 정하권, "성령", 『한국가톨릭대사전 7』, 한국교회사연구소, 1999년, 4566쪽.

(3) 교회의 개념

①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람은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을 이루도록 불린다"[80] 라고 선언하면서 교회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에 바탕을 둔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81]라고 가르친다. 공의회가 언급한 '하느님의 백성'은 평신도만을 뜻하지 않고 성직자와 수도자 모두를 포함하며, 더 나아가서는 가톨릭 신자만이 아니라 비가톨릭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처럼 교회의 보편성, 하느님 백성의 보편적 일치를 강조하는 공의회는 마침내 가톨릭 신자이든 아니든 하느님의 은총을 통하여 구원될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 비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②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비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도 바오로가 제시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 사상에 근거하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비체'라고 규정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머리가 되시고 세례 받은 모든 이는 그분 몸의 지체가 되어 '교회'라는 하나의 신비체를 형성한다는 것이다.[82]

일찍이 사도 바오로는 당대 그리스·로마 문화권에서 "널리 알려져 있던 '다양한 지체들과 하나의 몸'이란 비유를 교회에 적용시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르면서 하나의 생명체로 제시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인격 안에 여러 지체들을 하나로 묶어 '몸'이라는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어 내는 중심 원리가 되고, 신앙인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하나의 생명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들이 되는 것이다.[83]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교회의 과거이고 현재이며 미래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과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살아 있는 신비체이다.

---

80) 「교회 헌장」 13항.

81) 참조: 「교회 헌장」 9-17항.

82) 참조: 「교회 헌장」 32항.

83) 김영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고린토 1서 12장 12-31절」, 『생활성서』, 2002년 6월호, 104쪽; 참조: 104-106쪽.

③ 그리스도의 성사, 세상 속의 성사, 구원의 도구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가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의 표징이며 도구"로서 "그리스도의 성사"[84]라고 선포한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지혜와 자비의 지극히 자유롭고 심오한 계획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인간을 구원하셨다. 그런데 하느님의 인간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 활동은 교회가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제단에서 거행할 때마다 계속된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상 속의 성사이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도록 이끄는 구원의 도구이다. 교회는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의 신비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실천하는 '구원의 보편 성사'"로서 일곱 성사(세례, 성체, 고해, 견진, 혼인, 성품, 병자 성사)를 거행하고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사'이다.[85]

④ 친교의 공동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가 하느님과 인간의 친교, 하느님과 일치된 사람들 사이의 친교로 이루어지는 '친교의 공동체'라고 천명한다. 친교의 교회론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론의 핵심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실제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신자가 성령 안에서 다른 이들과 친교를"[86] 이루고 "신앙 고백과 성사, 교회 통치와 친교의 유대로 결합된다"[87]라고 가르친다.

교회는 그 본질에 있어서 하느님께 드리는 봉사, 인간에 대한 봉사, 세계의 변혁을 위한 봉사로서 미사이다. 이제 미사 안에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피와 생명으로 맺어지는 친교가 완전히 실현되고, 다양성과 단일성 안에서 완전하고도 유일한 관계가 실현된다. 언제 어디서나 믿는 이들이 이루는 친교가 일치를 가져오고 주님의 은총을 보여 주는 가시적인 징표가 된다.[88]

---

84) 「교회 헌장」 1항.

85) 참조: 「사목 헌장」 45항; 「교회 헌장」 1-3, 48항.

86) 「교회 헌장」 13항.

87) 「교회 헌장」 14항.

88) 참조: 알로이스 라칭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론」, 『사목』, 제105호(1986년 5월), 62-70쪽.

5) 교회의 특성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89]라는 특성을 갖는다.

(1) 하나인 교회

교회는 단일성을 특징으로 한다. 교회의 단일성과 일치성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활동하시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일치에 근거한다. 삼위일체 하느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하느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느님 나라로 향하게 하신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느님과의 일치 안에서 국가와 민족, 인종과 피부색의 구별 없이 모든 인류를 일치시켜 '하나인 교회'를 형성한다. 하나인 교회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을 흠숭하고 한 신앙을 고백하며 한 몸을 이룬다.

(2) 거룩한 교회

교회는 거룩함을 특징으로 한다. 교회의 거룩함은 하느님의 거룩함에 근거하고, 하느님의 거룩함은 교회의 거룩함으로 드러난다.

하느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거룩하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고 "나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에서 가려내어 내 것이 되게 하였다"(레위 20, 26)라고 말씀하셨다. 교회는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끊임없이 성화되는 삶으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하느님을 보여 주어야 한다.

(3) 보편된 교회

교회는 보편성을 특징으로 한다. 하느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교회는 하느님의 보편적 구원 의지를 실현하는 구원의 도구로서 온 세상 모든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해야 한다.

'가톨릭'(Catholic)이라는 말이 '보편적인', '공번된'이라는 의미를 가지듯이, 본시 교회는 개별 민족이나 특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과 지역을 포용하

89)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는 “모든 이에게 모든 것”(1코린 9, 22)으로서 자리해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역시 “하느님 백성의 이 보편적 일치는 세계 평화를 예시하고 증진하므로 모든 사람이 이 일치로 부름 받고 있다. 가톨릭 신자이든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신자이든 모든 사람이 다 여러 모로 이 일치에 소속되어 있거나 관련되어 있다. 하느님의 은총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부른다”(「교회 헌장」 13항)라고 언급한다.

(4)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교회는 사도성을 특징으로 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의 체험과 신앙에 기초하여 설립되었고, 그들의 복음 선포로 확장되었으며, 그들의 전구와 후손들의 계승에 힘입어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교회의 사도성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수행하는데,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은 사도적 권한을 직접적으로 계승하고, 신부, 부제, 수도자, 평신도들은 이 사도적 권한에 참여한다.

6) 이상적인 교회상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상을 초대 교회 공동체의 생활에서 살펴볼 수 있다.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 생활상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첫 신자 공동체의 생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사도 2, 42-47)

초대 교회의 공동체 생활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키프로스 태생의 레위인으로, 사도들에게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얻은 요셉도, 자기가 소유한 밭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사도 4, 32-37)

이제 초대 교회 공동체의 활동을 집회(미사와 기도), 복음의 선포와 실천, 공동체의 일치와 친교, 이웃에 대한 봉사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집회(기도와 미사)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 공동체가 안식일에 회당의 공동 기도에 참석한 다음(20, 7) 개인 집에서 그들만의 집회를 가졌다고 전한다(2, 46; 12, 12; 16, 40; 20, 8). 이 집회는 오늘날로 하면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로 이루어졌다. 말씀 전례는 세례 전 예비신자 교리교육,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메시아성을 강조하는 강론(2, 23-26), 신앙과 애덕 실천을 위한 가르침(14, 22; 16, 3), 윤리 교육 등으로 구성되었다. 성찬 전례는 친교, 빵을 나눔, 기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예식 집전자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먼저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 빵과 포도주 위에 손을 펴들고 축복하였다(1코린 11, 23-26). 또한 음식을 장만하여 서로 나누는 애찬을 곁들였다. 이 예식을 통해서 초대 교회 공동체 신자들은 모두 십자가상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며 서로 친교와 일치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 복음의 선포와 실천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부하신 대로 성령 강림 이후 계속하여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인간과 세상의 구원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였다.

더 나아가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 모범을 보이신

것, 사도들이 가르친 바를 실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중에서도 참 행복 선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 거짓 맹세와 보복에 관한 금령, 원수에 대한 사랑, 기도와 단식, 물질에의 초탈, 자선과 선행, 하느님 사랑과 섭리에 대한 믿음과 사랑 등의 가르침을 자주 묵상하면서 실천하려고 애썼다.

(3) 공동체의 일치와 친교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서로 일치하고 서로 친교를 나누었다. 이는 초대 교회 공동체의 공동 소유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초대 교회 공동체 신자들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썼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 재산의 공동 소유는 강제적인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원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초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협력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4) 이웃에 대한 봉사

초대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따라 자기를 낮추고 다른 이를 섬기는 봉사의 삶을 살았다. 초대 교회 공동체는 식사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런 삶을 통해 자유인과 종으로 대변되는 신분의 차별, 남녀의 성(性) 차별, 민족적이며 사회적인 장벽들을 넘어섰다(갈라 3, 26-29). 초대 교회 공동체는 이웃에게 봉사하고, 이웃에게 헌신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은 과연 어떠한지 생생하게 증언하였다.

초대 교회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상(像)을 제시한다. 교회는 초대 교회 공동체가 제시한 이상적인 교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2. 교회 공동체

교회는 공동체이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공동체를 따라 하느님 백성 모두가 일치를 이루고 사랑을 나누는 친교의 공동체이다.

1) 삼위일체 하느님 공동체

삼위이신 하느님은 성부, 성자, 성령 상호간의 일치와 사랑, 친교와 나눔 안에서 일체(一體), 즉 하나가 되신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은 각자 주된 자신의 활동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다른 위격의 활동에도 참여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2) 초대 교회 공동체[90]

초대 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고, 빵과 음식을 함께 먹으며 서로 친교를 나누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아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서로 형제자매로 여기면서 사랑하는 가운데 하느님의 큰 은총을 누렸다.

성령의 은총으로 충만해진 교회는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전하였고, 수많은 이적과 표징을 행하면서 하느님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증거하였으며, 사람들을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로 초대하였다.

초대 교회 공동체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생활상을 보여 준다. 따라서 오늘의 교회 공동체 역시 초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구현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할 것이다.

90) 참조: 사도 2, 42-47; 4, 32-37.

3) '친교'의 교회 공동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친교에 근거하여, 친교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이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찰한다.

첫째, 하느님과 인간의 친교를 강조한다. 공의회는 현대 무신론의 다양한 형태와 원인을 살피고 이에 대한 신앙인의 책임을 언급하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과 대화하도록 초대받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며 하느님의 행복에 참여하도록 부름 받은 존재라고 선언한다. 따라서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도록 부름 받은 그 소명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91]

둘째, 인간과 인간의 '형제적 친교'를 강조한다. 공의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 후에 성령을 주시어 당신의 몸인 교회 안에서 모든 이가 서로서로 지체를 이루고 여러 가지 은사에 따라 서로 봉사하는 새로운 형제적 친교를 이루게 하셨다고 언급하면서, 인간의 형제적 대화는 인간 공동체 안에서 더 깊이 이루어지며, 상호 존중을 요청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인간의 존엄, 형제적 친교, 자유의 가치들을 세상에 전하고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통해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가 현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언급한다.[92]

셋째, 성체성사가 하느님과 인간의 친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친교를 도모하는 "형제적 친교의 만찬이며 천상 잔치를 미리 맛보는 선취"(「사목 헌장」 38항)라고 말하면서 공의회는 '성사적 친교'를 강조한다.[93]

넷째, 성령께서 교회를 친교와 봉사로 일치시켜 주신다고 말하면서, 공의회는 교황과 주교단의 친교, 주교와 사제단의 친교,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의 친교와 같이 교회 내 구성원 사이의 '사도적 친교'와 '교계적 친교'를 강조한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신앙 고백과 성사, 교회 통치와 친교의 유대, 서로 친밀한 형제애로 결합된다고 말한다.[94]

다섯째, 공의회는 아직 완전한 친교를 이루지는 못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께

91) 참조: 「사목 헌장」 19-21항.

92) 참조: 「사목 헌장」 23, 32, 39항.

93) 참조: 「교회 헌장」 7항.

94) 참조: 「교회 헌장」 4, 8, 13-14, 21-25, 28-29, 41, 43항; 「교회 헌장」 사전 설명 주석 2(22항 1의 끝 주석), 4. 주의.

대한 신앙 고백과 사랑의 유대로 결합되어 있는 교회와 비가톨릭 그리스도인 사이의 친교, 교회와 비그리스도인들과의 친교를 강조하면서 그들 구원의 가능성 또한 천명한다.[95]

여섯째, 순례하는 교회와 천상 교회의 친교,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복된 사도들과 순교자들, 모든 성인과의 통공,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 등 공의회는 신비체 전체의 친교를 강조한다. 공의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분의 평화 속에 잠든 형제들과의 결합과 영신적 선익의 교류를 언급하면서 천상 교회와의 결합이 거룩한 전례 안에서 가장 고귀한 방법으로 표현된다고 말한다.[96] 또한 "성인들의 생활에서 모범을, 통공에서 참여를, 전구에서 도움을"(「교회 헌장」 51항)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4) 가정 공동체, 구역·반 소공동체, 본당 공동체

교회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친교와 사랑 안에서 서로 인격적으로 사귀고 삶을 나누면서 친교와 일치를 이루는 공동체, 곧 사귐과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이다.

교회가 서로 친밀하게 사귀고 삶을 나누며 섬기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공동체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가정 공동체, 구역·반 소공동체, 본당 공동체의 공동체성을 확립해야 하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등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 정신 안에서 서로 일치하며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친교의 교회 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

삼위 간의 온전한 사랑과 일치를 통해 하나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범을 따라, 가정의 화목과 성화를 도모하고, 복음과 삶의 나눔으로 공동체 내 구성원 간의 일치와 사랑을 다져가며, 사목 활동을 통해 이웃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와의 친교와 연대를 도모해야 한다.

(1) 가정 공동체

가정은 혼인 관계 및 혈연 관계로 구성된 가족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장소 내지 조직체를 말한다. 가정은 인간 생활의 기초가 되는 공동체로서 사회의 기본 단위이기도 하면서, 가정, 구역·반 소공동체, 본당으로 연결된 교회의 기본

95) 참조: 「교회 헌장」 15-16항; 「사목 헌장」 92항.

96) 참조: 「교회 헌장」 49-50항; 「사목 헌장」 18항.

단위이기도 하다.

현대에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 있는가 하면, 모자(母子) 가정, 부자(父子) 가정의 한 부모 가정,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자손녀가 함께 사는 조손(祖孫) 가정, 무자녀 가정, 소년소녀 가장 가정, 미혼모나 미혼부 가정, 재혼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존재한다. 교회는 이혼 증가, 인공 유산의 폐해, 불임 수술이나 피임, 가정 폭력, 고령화 등 현대 가정이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직면하면서 가정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가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더불어 관련 사목을 시도하고 있다.

1994년 국제 가정의 해를 맞아 교황청 가정위원회는 각 교구에 가정사목부를 신설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천주교회도 교구별로 가정사목부를 신설하면서 관련 사목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대교구는 1997년 사목국 내 가정사목부를 신설하여 신자 가정이 사랑과 생명으로 가득 찬 성화된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고 있다.[97]

(2) 구역·반 소공동체

오늘의 인간은 다원화, 세속화, 익명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만큼 더 근본적이고 더 깊이 있는 차원에서 자기 자신, 이웃, 공동체, 더 나아가 하느님과 진정한 소통, 친교, 통교의 관계를 필요로 한다. 이런 시대의 징표를 식별하고 성찰하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를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 친교의 공동체로 가르치고 초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구현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강조한다. 소공동체 역시 이런 교회의 흐름과 전망 안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전후로 생겨났고, 1956년 브라질을 시작으로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전 세계 곳곳에 퍼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 서울대교구가 소공동체 사목을 2000년대 복음화를 위한 교구의 장기적인 사목 정책으로 채택하면서 시작되었고, 점차 전국 교구로 확산되었다. 소공동체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교우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복음을 읽고 나누며 이를 삶으로 실천하고 이웃에게 선포하는 공동체이다. 하느님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묵상하며 나누고 실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은 곳에서 만나 뵙고 자기 자신의 복음화와 이웃, 지역의 복음화를 도모한다.

---

97) 참조: 서울대교구 사목국 가정사목부 홈페이지(www.ihome.or.kr).

(3) 본당 공동체

본당은 교구장 주교의 권위와 위임 아래 본당 신부가 관할하는 신자들의 공동체로,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과 친교, 인간과 인간의 만남과 친교를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실현하는 공동체이다.

본당 공동체는 하느님 백성이 믿음을 중심으로 형성한 '신앙의 공동체'이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이며,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구현해 가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기다리는 '희망의 공동체'이다. 하느님을 경배하고 흠숭하는 '예배의 공동체'이고 그분의 말씀을 지역과 세상에 전하는 '선포의 공동체'이다.

본당의 모든 구성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면서 사랑과 일치의 공동체, 사귐과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친교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 복음화, 세상 복음화에 기여해야 한다.

5)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공동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별하는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관점에 앞서 먼저 다 같은 하느님의 백성으로 규정한다. 하느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와 사랑으로 함께하시는 하나의 공동체이듯이, 교회도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로 이루어지는 단일한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인 것이다. 따라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형제·자매의 수평적 관계라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상호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98]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그 모범을 보이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느님의 종'으로서의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완수하셨기 때문이다.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서로 사랑하고 일치하면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친교에 참여해야 한다. 사목자와 사목 협력자로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책임지는 동반자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

98) 참조: 마태 20, 28.

주요 참고 문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교회 헌장」, 1964년.
_____, 「사목 헌장」, 1965년.
_____, 「주교 교령」, 1965년.
_____, 「평신도 교령」, 1965년.
_____, 「선교 교령」, 1965년.
『교회법전』, 1983년.
교황 바오로 6세, 「민족들의 발전」, 1967년.
_____, 「현대의 복음 선교」, 1975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평신도 그리스도인」, 1988년.
_____, 「교회의 선교 사명」, 1990년.
_____, 「아시아 교회」, 1999년.
_____, 「오세아니아 교회」, 2001년.
교황 베네딕토 16세,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2005년.
『서울대교구 시노드 후속 교구장 교서 희망을 안고 하느님께(히브 7, 19)』, 천주교 서울대교구, 2003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2012년 사목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2011년.
「'새로운 복음화' 개념 연구 및 사목적 모색」,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2011년.
L'apostolato dei laici, Guy Régnier, Edizioni Dehoniane Bologna, Bologna 1985.
Laici per una nuova evangelizzazione, Studi sull'esortazione apostolica 《Christifideles Laici》 di Giovanni Paolo II, Editrice Elle Di Ci, A cura di Mario, Leumann(Torino) 1990.
Lay Ministry, A Theological, spiritual and pastoral handbook, William J. Rademacher, St Paul Publications, 1991.
Lay disciples, Evangelizing Power in the Parish, Susan Blum Gerding & Frank P. DeSiano, Paulist Press, New York/Mahwah 1999.
Lay Ministers, Lay disciples, Evangelizing Power in the Parish, Susan Blum Gerding & Frank P. DeSiano, Paulist Press, New York/Mahwah 1999.
"L'azione cattolica e varie forme di apostolato nell'insegnamento teologico", Giuseppe Scabini, in *Seminarium* (1976), pp. 107-125.
손현기,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연구: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 논문, 2002년.

김상현, 「평신도 사도직의 의미와 그 현대적 역할」,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 논문, 2003년.

김인식, 「평신도에 대한 이해의 변천과 교회법전 안에 나타나는 평신도 사도직 활동에 대한 고찰」, 부산가톨릭대학교 석사 논문, 2008년.

Agatangelo da Langasco, “Associazioni cattoliche”, in *Enciclopedia Cattolica*, Citta del Vaticano, 1949, pp. 184-185.

Luigi Cardini, “Azione Cattolica(A. C.) - Apostolato cattolico organizzato dei laici”, in *Enciclopedia Cattolica*, Citta del Vaticano, 1949, pp. 594-598.

Luigi Cardini, “Azione Cattolica Italiana(A. C. I.)”, in *Enciclopedia Cattolica*, Citta del Vaticano, 1949, pp. 599-609.

제2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 현황

한국 천주교회에는 다양한 평신도 사도직 단체들이 자리한다. 이 모든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는 개인 성화, 신심 고양, 영성 심화, 선교 활동, 복음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계명 실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돕기, 하느님과의 일치와 친교 등 여러 가지 목적을 수행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고 완성해 나간다.

제2부에서는 먼저 한국 천주교회 평신도 사도직 단체의 조직과 현황을 살펴보고 이어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의 조직과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황청 관할 국제 사도직 단체로는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꾸르실료, 네오까떼꾸메나도 길,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푸른군대)이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관할 전국 사도직 단체로는 가톨릭 학교 법인 연합회, 꾸르실료 한국 협의회, 마리아 사업회(포콜라레),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 이사회, 전국 가톨릭 경제인 협의회, 한국 가톨릭 결핵 사업 연합회, 한국 가톨릭 교수 협의회, 한국 가톨릭 나사업 연합회, 한국 가톨릭 노동 청년회, 한국 가톨릭 농민회, 한국 가톨릭 미술가 협회, 한국 가톨릭 성령쇄신 봉사자 협의회, 한국 가톨릭 시각 장애인 선교 협의회, 한국 가톨릭 아동 복지 협의회, 한국 가톨릭 언론인 협의회, 한국 가톨릭 여성 협의회, 한국 가톨릭 운전 기사 사도회 전국 협의회, 한국 가톨릭 의료 협회, 한국 가톨릭 학교장회, 한국 레지오 마리애(광주: 한국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뚜스), 한국 레지오 마리애(대구: 한국 의덕의 거울 세나뚜스), 한국 레지오 마리애(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한국 매리지 엔카운터, 한국 지속적인 성체조배 봉사자 협의회,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 한국 행복한 가정 운동, M.B.W. 한국 공동체 추진 봉사회, 총 25(28)개 단체가 있다.

한국 천주교회와 서울대교구 내 다양한 평신도 사도직 단체 조직과 현황을 바탕으로 시대적 변화와 상황에 맞게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표현으로 거듭나야 할 한국 천주교회와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의 미래 발전 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한국 천주교회 평신도 사도직 단체 조직과 현황

제1장에서는 한국 천주교회 평신도 사도직 단체가 어떻게 생겨나고 발전해 왔는지 먼저 그 기원과 역사를 살펴보고, 이어 현재 한국 천주교회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평신도 사도직 단체들 가운데 주요 단체로 레지오 마리애,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성령쇄신봉사회,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매리지 엔카운터(ME), 꾸르 실료의 조직과 현황을 개괄적으로 고찰한다.

1. 기원과 역사[99]

한국 천주교회 평신도 사도직 단체는 교리 교육과 선교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명도회'로 시작되었고,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한국 천주교회 창립과 최초의 신자 단체 '명도회'[100]

중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한문으로 번역한 한역서학서(漢譯書學書)가 조선에 유입되고 이를 실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우리나라에 천주교 창립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수광(李睟光, 1563-1628), 유몽인(柳夢寅, 1559-1623), 이익(李瀷, 1681-1763) 등은 보유론적 측면에서 가톨릭 신앙을 논평하였고, 1770년경 이익의 제자들 가운데 가톨릭 신앙을 인정하고 실천하는 실학자들이 생겨났다. 그들은 젊은 지식인 그룹으로 정치적으로는 기호(畿湖) 남인(南人), 학문적으로는 조선 실학의 선구자 이익의 학문을 계승하여 연구하던 성호학파(星湖學派)에 속한 이들로서, 홍유한(洪儒漢, 1726-1785), 권철신(權哲身, 1736-1801), 이벽(李檗, 1754-1786),

99) 참조: "한국", 방상근, 『한국가톨릭대사전 12』,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년, 9339-9349쪽; 장동하, "복음의 수용과 고난의 길", 『예수 그리스도와 가톨릭』,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73-289; 최혜선,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가톨릭』, 291-310쪽; 김영수, "제4장 가톨릭과 유교의 만남", 『천주교와 한국 근·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 '근·현대 100년 속의 가톨릭교회'에 대한 한국 7대 종단 성직자 양성담당자 의식조사보고서, 가톨릭출판사, 2005년, 84-101쪽; 『한국천주교회사』 1, 2, 3, 4, 한국교회사연구소, 2009~2011.

100) 참조: "명도회", 방상근, 『한국가톨릭대사전 4』, 한국교회사연구소, 1997년, 2631-2633쪽.

정약전(丁若銓, 1758-1816) 등이었다. 1779년 겨울 권철신, 이벽, 정약전, 이승훈, 김원성, 이총억, 권상학 등은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에 있는 주어사(走漁寺)에서 유교 경전과 한역 서학서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강학회(講學會)를 개최하였고, 『천주실의』, 『칠극』, 『성체유요』 등 한문으로 번역된 한역 서학서를 학문적으로 탐구하였으며, 기도와 재계 등으로 천주교의 가르침을 일부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1783년 말 이벽은 연행사(燕行使) 서장관(書將官)으로 파견되는 아버지 이동욱(李東郁, 1739-?)을 따라 북경(北京)에 가게 된 이승훈(李承薰, 1756-1801)에게 북경의 북당에 찾아가 성직자를 만나 영세를 하고 성경을 한 부 얻어 오라고 당부하였다. 이벽의 요청대로 북경의 북당을 방문한 이승훈은 스스로 영세 받기를 청하여 틈틈이 교리를 배웠고, 1784년 2월에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그라몽(Jean Joseph de Grammont, 1736-1812) 신부에게 세례를 받았으며, 많은 교리 서적과 성물을 가지고 1784년 3월에 귀국하였다. 이벽은 수개월 동안 교리 서적을 배운 다음 이승훈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정약종(丁若鍾, 1760-1801), 정약용(丁若鏞, 1762-1836) 형제, 권일신, 김범우(金範禹, ?-1786)를 비롯한 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마침내 1784년 겨울 무렵 서울 수표교 부근 이벽의 집에서 이벽, 권일신, 정약종, 이존창 등이 이승훈에게 대세(代洗)를 받으면서 한국 천주교회가 창립되었다. 이렇듯 한국 천주교회는 한국 청년 지식층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자생적으로 탄생하였다.

교계 제도와 성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초기 한국 천주교인들은 가성직제도(假聖職制度)를 만들어 임의로 성직 계급을 정하고 성사를 집전하며 성무 활동을 하였다. 이승훈, 권일신, 홍낙민, 최창현, 이존창, 유항검 등이 신부로 활동하면서 미사, 고해성사, 견진성사 등을 집전하였다. 이후 교리를 더 공부하고 1789년과 1790년에 북경을 왕래하면서 이것이 교회에서 금지하는 비합법적인 제도라는 것을 깨달아 즉시 성무 활동을 중단하였으며, 북경 주교에게 성직자 파견을 요청하였다.

1794년 말 주문모 신부(1752-1801)가 조선에 입국하였다. 주문모 신부는 여회장 강완숙과 여러 신자들의 도움을 받아 교회 조직을 견고하게 다져 나갔다. 명도회를 조직하여 신자들이 하느님 말씀과 교회 가르침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도록 이끌었다. 이렇게 한국 천주교회 최초의 단체 '명도회'가 창립되었다.

명도회(明道會)는 평신도들이 모여 교리도 배우고 선교 활동도 하는 단체로서, 명회(明會)라고도 불렸다. 주문모 신부는 북경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던 평신도 사도직 단체와 비슷하게, '천주교 교리를 가르치는 회'라는 뜻을 담아 '명도회'라고

이름하였다. 명도회가 정확하게 언제 설립되었는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대략 주문모 신부가 활발하게 사목 활동을 하던 1796년에서 1798년 사이에 설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명도회는 교리 교육과 선교 활동 단체였기에 당시 명도회원들은 먼저 천주교가 가르치는 교리를 배우고자 노력하였고 이어 그 배운 바를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고자 애썼다. 또한 회원 상호 간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었다.

명도회는 점차 전국적 단체로 퍼져 나갔다. 주문모 신부는 교리 지식에 밝은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를 명도회 회장으로 임명하였고 회장 아래 3-4명 또는 5-6명으로 구성된 회(會)를 조직하였다. 「황사영 백서」에 따르면, 황사영이 체포될 당시 회가 6개 있었다. 육회(六會)라고 불렸는데, 육회 회원들은 각 회별로 홍문갑, 홍익만, 황사영, 김여행, 현계흠, 그리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다른 한 사람의 집에서 축일 때마다 모였다. 명도회는 '명도회규'(明道會規)라고 일컬어지는 규칙도 시행하였다. 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엄격한 규칙이었다고 한다. 명도회원이 되려면 정식 회원으로 입회하기 전에 먼저 1년 동안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해야 했고, 1년 후 열심한 정도에 따라 정식 회원 여부가 결정되었다. 명도회에는 남녀 신자 모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 천주교회는 창립된 다음 해인 1785년에서 1886년 조불 조약으로 신앙의 자유를 묵시적으로 얻기 전까지 100여 년 동안 무수한 박해를 겪었다. 박해는 신자들의 조상 제사 금지, 천주교를 정권 유지 내지 쟁탈을 위한 당쟁에 이용하던 정치 행태, 서학과 천주교를 사학(邪學)과 사교(邪敎)로 간주하는 학풍, 교회의 평등 사상을 당시 신분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위협적인 사상으로 여기는 풍토 등으로 야기되었고, 이로 인해 크고 작은 박해가 발생하였다.

명도회는 초기 한국 천주교회에서 활발하게 단체 활동을 수행하였으나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고 주문모 신부가 순교하면서 명도회 역시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었다. 물론 1827년 정해박해 때 순교한 이경언의 서한이 명도회원에게 보낸 것이라는 데서 신유박해 이후에도 명도회 활동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926년 데시데라토 폴리(Desideratus Polly, 沈應榮) 신부가 조직한 명도회도 있는데, 선교 활동에 주력한다는 점에서 한국 천주교회 최초의 단체 명도회와 일련의 관련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각 교구나 본당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명도회' 또는 '명도원' 같은 단체는 이름만 같을 뿐 최초의 단체 명도회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본다.

2) 한국 천주교회와 성모 신심, 성모 성심회[101)]

한국 천주교회는 초기부터 성모 마리아께 특별한 신심을 갖고 있었고, 조선에서 활동하던 프랑스 파리 외방선교회 소속 선교사들도 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성모 신심을 전파하였다. 조선 교구 제2대 교구장인 로랑 마리 조제프 앵베르(Laurent Marie Joseph Imbert, 1796-1839) 주교의 경우, 성모님의 전구 안에 무사히 조선에 입국하기를 기도하면서 조선 입국 시기를 1837년 12월 8일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축일'로 정할 만큼 성모 신심이 남달랐다. 당시 조선 교구는 중국의 북경 교구와 동일하게 성 요셉을 주보 성인으로 모셨는데, 앵베르 주교는 조선 교구의 새로운 주보로 '원죄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를 모시고자 했다. 이에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는 1841년 조선 교구가 '성 요셉'과 더불어 '원죄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를 공동 주보로 모시도록 허락하였다. 김대건 안드레아(1821-1846) 신부도 위험한 여행 중에 성모님의 보호를 청하였고, 페레올 주교와 다블뤼(Marie Nicolas Antoine Daveluy, 1818-1866) 신부는 1846년 병오 박해가 일어난 이후 지방을 순회할 때마다 늘 성모님께 보호를 청하였다.

이렇듯 특별한 성모 신심으로 1846년 11월 2일 다블뤼 신부는 충청도 공주 수리치골에 '무염시태 성모 성심회'를 설립하였다. '무염시태 성모 성심회'(Confraternitas Immaculati Cordis B.V.Mariae)는 프랑스 샤를르 뒤 프리슈 데 쥬네트 신부가 1836년 12월 16일에 설립한 단체로, 성모님을 공경하고 성모님의 전구에 힘입어 하느님께 죄인들의 회개를 청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런데 조선에서 설립된 '무염시태 성모 성심회'는 성모 신심뿐만 아니라 선교 활동에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무염시태 성모 성심회'는 꾸준히 성장하였고 대부분의 본당에서 '성모 성심회'나 '성모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1887년, 1912년, 1923년, 1932년, 1958년에 간행된 『한국 교회 지도서』도 성모 성심회를 한국 천주교회에서 승인한 단체로 소개하면서 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였다.

오늘날에도 초기 한국 천주교회에서 차지했던 비중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본당에 '성모회'라는 단체가 조직되어 있다.

---

101) 참조: 방상근, "성모 성심회", 『한국가톨릭대사전 7』, 1999년, 한국교회사연구소, 4599쪽.

3) 1933년 가톨릭 진행에 관한 주교 교서와 조직적인 평신도 사도직 단체 활동의 시작

1784년 창립된 한국 천주교회는 거듭되는 탄압과 박해로 회복의 가망이 없어 보일 정도로 피폐해졌지만, 계속되는 긴 박해 속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성직자 영입을 추진하며 신학생을 양성하면서 교회 체계를 정립해 나갔다. 초기 한국 천주교회 신자들은 주문모 신부를 시작으로 한 외국 선교사들의 사목 활동, 한국 천주교회 초대 '총회장' 최창현 요한(1754-1801)과 한국 천주교회 초대 '여회장' 강완숙 골롬바(1760/1761-1801)를 중심으로 한 사목 협력에 힘입어 교회 조직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교회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

100여 년 동안 계속된 박해 후에 교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조정이 쇄국 정책에서 개화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였고, 일본과 서구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맺었으며, 이 조약으로 신앙의 묵인 내지 자유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교회는 1785년 초대 한국 천주교회 신자들이 모임을 가졌던 명례방 김범우의 집에 1882년 종현(명동) 본당을 설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1883년 제물포, 특별히 1886년 조불 조약 체결 이후, 1887년 원산, 1889년 부산, 대구, 전주 등에 많은 본당과 공소를 설립하여 더 활발하게 복음을 선포하였다. 1885년 본당 3개, 선교사 11명, 신자 13,623명에서 1895년 본당 18개, 선교사 25명, 신자 25,998명으로 증가하였다. 1882년 인현 서당을 설립, 교육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903년에는 88개 학교를 운영하였다. 1885년 서울 곤당골에 보육원을 세워 23명의 고아들을 돌보는 것을 시작으로 비슷한 시기에 양로원도 세우면서 사회 복지 사업을 시작하였다. 1881년부터 일본에서 인쇄소를 운영, 1886년에는 서울에 근대식 인쇄소를 세워 교회 서적을 신자들에게 보급하면서 한글 보급에 앞장섰고, 1906년 「경향 신문」을 창간하였다.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일본 침략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회 활동에 많은 제약과 통제를 가하였다. 각종 법령을 빙자하여 교회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를 탄압하였고, 1930년에 이르러 교회에 전쟁에 협조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신사참배를 요청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 수행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요청하였고, 교회 시설을 침략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1939년 종교 활동에 국가의 감독을 규정한 '종교단체법'을 시행하여 종교 단체는 정부가 폐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미국,

아일랜드, 프랑스 선교사들을 추방하거나 구금하고 선교 활동에 제약을 가했다. 이러한 식민 통치 아래서 교회는 1945년 해방을 맞기까지 각종 감시와 통제를 받았다. 몇몇 성가는 가사가 불온하다는 이유로 부르지도 못했고 평화를 기원하며 기도하는 것 역시 반전 사상을 갖게 한다는 이유로 금지되었으며 관련 신자들도 구속되었다. 일본은 일본어로 기도하고 교회 출판물도 일본어로 출판하도록 강요하였고, 1942년 신학생 양성 기관인 예수성심신학교를 강제 폐교시키고 1945년 초에는 『경향잡지』를 폐간하였다. 때문에 1910년 병합 이후 천주교 신자의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개항기 연평균 신자 증가율이 6.98%였는 데 비해 일제 시기 연평균 증가율은 2-3%에 불과했다. 한일병합 당시 인구 수 대비 신자율이 0.56%이었는데, 1919년 3·1운동 때는 0.53%로 오히려 줄었고, 1944년에도 0.71%로 별로 증가하지 못하였다.

일제 시대에 천주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겪으면서도 교회 체계를 정립해 나갔다. 1911년 조선 대목구를 서울 대목구와 대구 대목구로 분리하였고, 1920년 원산 대목구, 1927년 평양 지목구, 1928년 연길 지목구와 황해도 감목대리구, 1937년 전주 지목구와 광주 지목구, 1937년 춘천 지목구를 설립하였으며, 1940년 원산 대목구를 폐지하고 덕원 면속구와 함흥 대목구를 설립하였다. 1925년에는 1839년 기해박해·1846년 병오박해 순교자들 가운데 79위가 복자품에 올랐다.

더 나아가 한국 천주교회 창립 초기부터 활발했던 평신도의 활동이 1933년 3월 조선 주교단이 '가톨릭 진행'(Actio Catholica, Catholic Action)과 관련한 교서를 내면서부터 더욱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해당 교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102]

조선 오위 주교의 교서

조선 5교구 모든 주교는 각 지방 모든 교우들에게 강복하며 가톨릭진행에 대하여 자의교서를 내리노라.

1. 가톨릭진행은 무엇인가?
가톨릭교회에서는 자기 직무대로 교우들을 다스려 영생에로 인도하는 동시

102) 『경향잡지』, 1933년 3월호(제27권 제3호 통권 754호), 121-130쪽. 당시 교서 내용이 옛 한글 표기로 되어 있어 일부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표기로 대체하여 인용한다.

에 처음부터 열심 교우들의 도움을 청하였고 또 그 도움을 받았으니 교우들은 성직자들과 힘을 합하여 교회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유지하고 창설하는 데 노력하였느니라.

성 바오로 종도의 서간을 보면 이미 열심 남녀 교우들이 교회의 일을 유효하게 도왔으니 곧 루카, 마르코, 포이베, 우르바노 등 남녀 교우들이었더라. 그 후로도 세기가 지남을 따라 천주교회 역사가 증명함과 같이 성직자들을 돕는 열심 교우들의 여러 회가 일어남을 볼 수 있으니 곧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부터 십자군과 기사 등 그런 회가 있었고 최근 세계에 이르러는 전교사업회, 성베드로 사업회, 성령회, 교구전교회 같은 허다한 조선회가 흥기하였도다. 그러므로 또한 근대에 이르러 여러 위 교종께서 자세하고 간절한 교서를 내리사 교우들의 협력을 장려하시고 통제하심으로써 직접 혹 간접으로 영혼상 이익을 주는 모든 교중사업과 일에 함께 힘쓰기를 훈령하셨으니 이것이 이른바 가톨릭진행이니라.

2. 가톨릭 진행의 원칙과 규구

가톨릭진행회의 목적은 신덕을 보존하고 전파하며 영신상 물질상 모든 방법으로 천주교회의 권리를 높이고 보호하고 주창하는 것이니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교종 비오 제11세 폐하께서 각 지방의 처지와 능력과 이익됨을 따라 여러 종류의 회와 단체를 조직하기를 훈명하시고 요긴한 때에는 그 회와 단체에게 가톨릭진행회의 보통 법칙 이외에 특별한 교시를 친히 내리시기도 하시느니라.

가톨릭진행에 속한 어떠한 단체와 회를 물론하고 항상 지켜 나갈 보통 원칙은 대개 이러하니

첫째, 교회에 복종—교우들을 다스리는 권리는 혹시 특별히 어려운 경우에는 시행하지 못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항상 교회 장상들에게 있는 것이니 그런고로 모든 회와 단체는 장상으로부터 절대로 명령하는 것만 복종할 뿐 아니라 또한 지시하고 훈수하는 것까지라도 복종할 것이오.

둘째, 가톨릭정신—가톨릭정신은 항상 괴악한 무돈착(無頓着) 주의를 배척하나니 진실한 가톨릭정신으로 활동하는 자들은 함부로 아무것이나 행하지 아니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항상 일의 성질과 일의 결과가 그리스도의 성의에 합하는 것을 힘써야 하되 천주교의 도리와 천주교의 법칙과 천주교의 행습대로 행

함이오.

셋째, 일치와 화목함—대개 진심으로 화목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이라도 유효하게 할 수 없음이라. 화목은 불목이 없는 것에 있다한즉 이 원칙대로 가톨릭진행회에 들어서 불목을 일으키는 모든 문제를 피할지니 곧 정치 문제, 계급 문제 등이라. 가톨릭진행회의 인원들은 반드시 서로 친형제와 같이 지낼지니 다 같이 천주교 자식으로서 다 같이 천주교회의 일을 보는 자라. 그리스도 앞에는 "유다인의 분별도 없고 히브리인의 분별도 없고 노예의 분별도 없고 자유민의 분별도 없고 남자의 분별도 없고 여자의 분별도 없이 모든 이가 그리스도 안에 일체이니라"(갈라 3, 28).

3. 조선가톨릭진행회

이런 회가 가톨릭진행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줄을 누가 모르리오? 이러므로 5교구 모든 주교는 조선지방에 이 좋은 결과를 더욱 많이 내고자 하여 지난 조선 주교 공회에서 가톨릭진행회에 대한 문제를 상의한 후 자와 같이 그에 대한 조문을 결정하였느니라.

이십이됴 일심합력하여 가톨릭진행회를 장려하고 도울 수 있는 대로 전 조선에 일체로 할지니 이를 위하여

일, 열위 주교는 매년 일차씩 때를 정하여 한 곳에 모여 각 위 주교의 제출하는 의견을 토론 상의하고 가톨릭진행회로써 교중공익을 장려할 방침을 정할 것이오.

이, 각 교구에는 가톨릭진행 사무처리회의를 정하고 본 주교는 의장이 되어 의원들을 선정할 것이오.

삼, 각 신부 지방에도 할 수 있으면 가톨릭진행회를 세우고 그 지방 신부가 관리할 것이오.

사, 교구 중에서 가톨릭진행에 대한 무슨 문제가 있게 되면 문제는 열위 주교 중 1위에게 위탁할지니라.

지금까지 조선에 가톨릭진행회가 없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니 도로혀 조선천주교회 시초에 교우들이 교회 사정에 힘을 같이 하여 노력한 것보다 더 기묘한 것이 없도다. 조선천주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신부들이 들어오기 전에나 후에나 열심 있고 지혜 있는 교우들이 기묘하게도 전력을 다하여 교중 일에 헌신

한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으리라.

오늘날에 이르러도 당연히 그들의 자취를 따라가는 이가 많으니 곧 회장들과 전교회장들과 그 외에 교중일을 잘 돕는 열심 교우들이라. 이들은 세상에서 아무 갚음도 바라지 아니하고 자기 직분을 열심히 실행하여 외교인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권화하며 예비자와 교우들의 영혼을 도와 인도하나니 이는 훌륭한 가톨릭진행이니라.

여러 가지 학교에서 자기 의식을 구함보다도 학생들의 정신을 지도하고 바른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날마다 그 어려운 직무를 행하고 있는 교사들은 어떠한가? 이 또한 가톨릭정신으로써 행하면 역시 가톨릭진행의 좋은 일이니라.

각처에 성당, 경당, 학교, 기타 교중사업, 교중기관을 혹은 설립하고 혹은 유지하기 위하여 기성회, 후원회, 기타 조직된 여러 가지 회와 단체는 다 확실한 가톨릭진행이니 지금같이 있는 모든 회와 단체를 일제히 들어 말할 수는 없으나 여하간 이 지방에 교우들의 협력으로 종사 상찬할 만한 좋은 결과를 내었도다.

이러므로 조선 천주교 공회의 의향은 이 모든 노력을 통제하여 가톨릭활동을 날로 진보시킴에 있나니 군난풍파는 이미 오래전에 그친지라 교중일을 하기에 편리한 때이요 시대는 변하는지라 불가불 할 일이 더욱 많이 생기나니 여기에 가톨릭활동을 더욱 힘있게 진행할 필요가 긴급하도다.

탁덕들은 자기의 맡은 영신상 성무로 인하여 다른 사무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교우들의 협력이 있어야 하고 교구들은 탁덕들과 함께 아니하면 또한 교중사업을 할 수 없나니 이에 탁덕들과 교우들이 힘을 서로 합하여 천주교회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5교구 열위 주교는 경성에 모여 이에 대하여 3월 6일부터 협의한 바 결정한 사항을 대략 들면,

가톨릭진행에 대하여

평양 감목 목 주교 각하께서 조선가톨릭진행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시다.

위원회의 직무는 모든 이 앞에 천주교를 전파하며 교중 모든 자선사업을 혹 설립 혹 유지하기로 힘쓸 것이오.

좋은 역사와 참고서를 수집하여 출판물과 강연의 자료를 삼으며 가톨릭진행에 대한 도서관과 박물관과 미술관 같은 것을 주선할 것이오.

가톨릭 강연과 교육에 관한 활동 사진이나 환등 같은 것을 가지고 순회를 조직할 것이오.

어느 교중에 무슨 자선회가 있어 교구들에게 유조하거든 그 조직과 경험을

다른 교우에게 통지하여 가난한 교우들에게 도움이 되게 할 것이오.

교구 의사나 교중 병원이 있어 치료하기에 순편유익한 곳을 조사하였다가 요긴한 이에게 지시할 것이오.

외국에 이사 가는 교우에게 대하여 수계하기에 조당없는 지방과 조선인 교우에게 성사 주는 신부의 주소와 성당 주소 같은 것을 통지하여 줄지니라.

대구 감목 안 필노랴노
원산 감목 신 보니파시오
경성 감목 원 아드리아노
평양 교구장 목 요안
연길 교구장 백 테오도로

상기 교서와 관련한 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03]

기서

가톨릭진행에 대한 교서를 읽고
서포 홍용호

우리는 『경향잡지』 제745호에 가톨릭진행회에 대한 각위 주교 주의 교서를 배독하였다. 이에 기자는 가톨릭진행회의 뜻과 일반 의무의 몇 가지를 설명하여 볼까 한다.

먼저 뜻을 말하면 가톨릭진행운동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교우들이 자기의 완덕을 닦기로 힘쓴 것 외에 또한 다른 교우와 특히 외교인들을 위하여 종도의 직분을 행함이니 곧 자기의 착한 표양과 착한 권면으로써 남을 사주구령길로 인도하고 또는 모든 자선 사업과 좋은 기관을 혹 설시하며 혹 설시된 것을 유지하고 발전하고 확장하여 이로써 외교인을 이끌어 성교회로 나아오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각 사람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완덕을 힘써 닦을지니 내가 덕행이 있으면 자연 남에게까지 번져나가 유익을 끼친다. 대저 철학의 이치대로 선이라 하는

103) 『경향잡지』, 1933년 4월호(제27권 제4호 통권 755호), 158-160쪽. 당시 기서 내용이 옛 한글 표기로 되어 있어 일부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표기로 대체하여 인용한다.

것은 스스로 번져 나가는 것이다. 이 번져 나가는 선덕이 곧 가톨릭진행이요 활동이다. 내가 먼저 신앙과 도리를 실행하면 이도 또한 번져 나가 전파된다. 실다운 교우는 자기 혼자만 선과 진리를 가지고 있음으로 만족을 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리를 세상에 공개하며 선전하기로 노력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생각하라. 너희는 보세에 가서 만민을 가르치고 […] 모든 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이 명령을 진정한 교우들은 오늘까지 이천년 동안에 봉행하여 왔다. 또 그리스도의 산상강론을 들어보라. 장소와 시간과 사람의 제한이 없이 만대 만인을 통합하여 일체로 도덕의 법전을 주시지 아니하셨는가.

교우로서 첫째 명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전체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고 모든 사람이 다 구령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가? 내가 남의 권면을 듣고 성교회원이 되었으니 나도 남을 권면하여 성교회에 들이지 아니할까? 가톨릭 신자는 평교우나 성직자나 귀인이나 천인이나 분간할 것 없이 진정으로 교우의 사상을 가졌으면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 전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공경케 한다. 이 신성한 운동이 하루 바삐 구체적 실현되기를 목마르게 기다리며 또한 비는 바이다.

가톨릭 진행과 관련한 교서를 반포한 1933년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에서 온전한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정교 분리 원칙에 의해 사회 참여나 단체 활동이 여의치 않았던 때이다. 그렇지만 평신도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또 단체 조직을 통해서도 자신의 사도직 활동을 수행하였고, 교회 내 평신도 사도직 활동은 교리 연구, 선교 활동, 이웃 사랑, 친교 도모 등 다양한 목적으로 전개되었다.

1933년 조선 주교단이 가톨릭 진행에 관한 교서를 발표한 이후에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한국 천주교회는 중장년, 여성, 청년 등 각 계층별로 사도직 단체를 결성하였고 관련 사도직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1932년 '가톨릭 소년', 1937년 '가톨릭 청년 연합회', '가톨릭 부인회 연합회'가 창립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938년 '가톨릭 여자 청년 연합회'가 발족하여 여성 운동에 주력하였다.

4)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영향과 한국 천주교회 평신도 사도직 단체 활성화

한국 천주교회는 8·15 해방으로 일제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났지만, 1948년 분단 정권이 수립되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또다시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북한 교회는 대부분 폐쇄되었고 많은 성직자들이 체포, 투옥, 옥사, 살해, 행방불명되었으며 수도원과 수녀원이 강제 해산되었다. 대부분의 성당과 교회 기관이 폐쇄되었고 전쟁으로 파괴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 교회는 거의 전멸하였다. 이에 적지 않은 신자들이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월남을 강행하였다. 결국 북한 교회는 일명 '침묵의 교회'로 남게 되었다.

이와 반면 남한 교회는 아일랜드나 미국 출신 선교사로 일제 치하에서 수감되었던 선교사들이 풀려나고 추방된 선교사들이 다시 입국하면서 그리고 한국인 성직자들 역시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전개하면서 다시금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해방 직후 남한 교회는 일제 시대 폐간되었던 주간지 「경향신문」을 복간하여 일간지로 발행하였고, 『경향잡지』, 『가톨릭청년』 등의 월간지도 복간하였으며, 각종 교회 서적을 출간하였다. 논산의 '대건중학교'를 비롯하여 각종 교육기관을 설립하였고, 가톨릭교육협회도 조직하였다. 병원, 진료소,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사업 기관을 설립하여 간접 선교에도 힘을 기울였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치하의 북한 교회와 달리,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받는 남한 교회는 다시금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물론 1950-1953년 6·25 전쟁으로 남한 교회 역시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많은 교회 건물이 파괴되었고 활기차게 전개되던 교회의 사업도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공산군 점령 지역에서 많은 성직자, 수도자들이 체포되었고, 수감 중에 옥사하거나 피살되고 행방불명되었다. 하지만 외국 교회의 지원에 힘입어 전쟁 고아의 구호 사업, 전쟁 난민 구호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파괴된 교회를 복구하면서 다시금 선교 활동을 재개하였다. 재건의 과정에서 천주교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1953년 신자 수가 대략 17만 명이었고, 휴전 이후 연평균 신자 증가율은 16.61%에 이르렀다. 1958년에는 24.18%의 신자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신자의 급증은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삶과 죽음 등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였고, 당시 활발하게 전개되던 사회 복지 사업의 결과이기도 하였다. 또한 중산층 지식인들이 상당수 입교하면서 교회에서 이들을 위한 '지성인 교리강좌'를 개최할 정도였다. 교회는 간척 사업, 소규모 도로와 도량의 건설 등도 지

원하였고, 교육, 출판, 의료, 사회 복지 사업을 강화하였다.

이 시기에 교회는 내적으로 교회를 쇄신하고 외적으로 세상에 문을 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하였다. '하느님 백성'의 친교와 일치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평신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평신도 사도직의 의미를 궁구하고 그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각자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각기 고유한 방법으로 교회 사명에 참여해야 하는 평신도 모두의 사명을 공고히 하고, 평신도 사도직 활동의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평신도 사도직 단체 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조직적이고 단체적인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를 전후하여 한국 천주교회 내 평신도 사도직 단체들도 활성화되었다. 한국 천주교회 초기부터 자리했지만 주로 개인 신심에 머물렀던 성모 신심은 레지오 마리애 활동으로 단체 신심으로 확산되었고, 노동자, 농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1950-1960년대 한국 천주교회 평신도 사도직 단체 활동은 1953년 레지오 마리애, 1953년 2월 대한가톨릭학생회, 1954년 10월 8일 대한가톨릭학생총연합회, 1958년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J.O.C), 1966년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 1972년 한국가톨릭농민회 등 여러 단체가 새로이 설립되면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68년 한국 가톨릭 평신도 사도직 중앙위원회(현 한국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가 설립되면서 더욱 활력을 띄게 되었고, 세계 각국 교회의 다양한 가톨릭 사도직 단체들이 도입되어 활동을 전개하였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성령쇄신봉사회, 매리지 엔카운터, 꾸르실료,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 등 현재 한국 천주교회에서 각기 고유한 카리스마(은사)와 사명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와 운동 대부분이 도입되었다. 이 단체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전후하여 세계 전역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들의 사도직 단체 사명을 구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평신도 사도직 단체 활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인 복음화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훌륭한 도구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평신도 사도직 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가져온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하여, 특별히 교회의 예언자직에 근거하여, 교회의 정치적·사회적 참여는 진리, 정의, 평화, 공동선을 추구하는 가톨릭 정신 속에 확대되고 심화되었다. 이에 한국 천주교회 평신도 사도직 단체들도 각 단체의 고유한 설립 목적과 정신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더욱 더 효과적으로 완수하려고 노력하였고 교회의 내적 쇄신과 사회 복음화에 헌신하였다.

2. 한국 천주교회 주요 평신도 사도직 단체 조직과 현황

이 장에서는 한국 천주교회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평신도 사도직 단체 가운데 각 교구, 본당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주요 단체로 레지오 마리애,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성령쇄신봉사회,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매리지 엔카운터, 꾸르실료의 조직과 현황을 개괄적 차원에서 살펴본다.

1) 레지오 마리애[104]

(1) 기원과 역사

레지오 마리애는 1921년 9월 7일 저녁 8시 '복되신 동정 마리아 성탄 축일' 전야에 아일랜드 더블린 시 마이러 하우스(Myra House)에서 프랭크 더프(Frank Duff, 1889-1980), 토휘 신부, 13명의 여성 신자들이 모임을 가진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 모임은 창립 당시 '자비의 모후'(the Association of Our Lady of Mercy)라고 불렸다. 1921년 창립 첫해에 4개의 모임이 창단되었고, 1925년 11월 고대 로마 군대 조직의 명칭을 도입하여 오늘날과 같은 레지오 마리애 기본 조직 형태를 갖추었으며, 1928년부터 스코틀랜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한국 천주교회 레지오 마리애는 1953년 5월 31일 광주 교구장 서리 해롤드 헨리(Herold Henry) 현 신부와 토마스 모란(Thomas Moran) 안 신부가 목포시 산정동 본당에 '치명자의 모후' 쁘레시디움과 '평화의 모후' 쁘레시디움, 경동 본당에 '죄인의 의탁' 쁘레시디움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1955년 10월 9일에는 산정동 본당 3개 쁘레시디움과 경동 본당 2개 쁘레시디움 등 5개의 쁘레시디움으로 최초의 꾸리아인 '목포 매괴의 모후' 꾸리아가 탄생하였다. 1956년 8월 7일에는 광주시 북동 본당 산하 8개 쁘레시디움으로 '중재자이신 마리아' 꾸리아가 설립되었으며 1956년 12월 6일에는 '중재자이신 마리아' 꼬미시움으로 승격되었

104) 참조: 김해걸, "레지오 마리애", 『한국가톨릭대사전 4』, 한국교회사연구소, 1997년, 2133-2136쪽; "한국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 속인적 신앙 공동체, 2011년 기준 서울대교구 인준 단체들』,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단체사목부, 2011년, 199-202쪽; 콘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 홈페이지(www.legionofmary.ie); 서울 세나뚜스 홈페이지(www.senatus.or.kr/sub011.htm); 대구 세나뚜스 홈페이지(www.dgsenatus.or.kr).

다. 이후 레지오 마리애는 한국 천주교회 전 교구에 확산되었고, 모든 본당에 쁘레시디움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1958년 4월 6일 우리말로 된 정규 교본이 발간되었고, 1958년 7월에는 세계 본부 꼰칠리움에서 한국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뚜스를 승인하였다. 이로써 레지오 마리애는 도입된 지 5년만에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국가 평의회를 운영하게 되었다.

서울대교구 레지오 마리애는 1956년 5월 18일 명수대(현 흑석동) 본당에 평화의 모후 쁘레시디움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1957년에는 혜화동 본당에 '상지의 좌' 꾸리아, 1959년 명수대 본당에 '평화의 모후' 꾸리아가 설립되었다. 1960년 3월 30일 상지의 좌 꾸리아가 한국 무염시태 꼬미시움으로, 1974년 9월 25일 레지아로, 1978년 12월 23일 세나뚜스로 승격되었다.

대구대교구 레지오 마리애는 1957년 1월 3일 왜관에 '종도의 모후' 쁘레시디움을 창단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어 대구 계산동 본당에 1957년 2월 4일 '다윗의 탑' 쁘레시디움, 1958년 1월 26일 '의덕의 거울' 꾸리아가 설립되었다. 1959년 2월 22일 '의덕의 거울' 꾸리아가 꼬미시움으로 승격되었고, 1986년 5월 1일 레지아로 승격되었으며, 2003년 12월 24일 꼰칠리움의 승인으로 세나뚜스로 승격되었다.

(2) 창립 목적과 정신

레지오 마리애는 기도(특별히 묵주 기도)와 활동을 통해 성모님과 교회의 사업에 협력하고,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며, 단원들의 성화를 통해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데 단체의 목적을 두고 있다. 레지오 마리애 단원들은 기도와 활동을 통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 선포와 선교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원들은 성모 마리아께서 가진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 겸손과 순명, 인내와 희생을 닮으려 노력한다.

(3) 조직과 운영 체계

'마리아의 군대'를 뜻하는 '레지오 마리애'(Legio Mariae)라는 단체명에서도 드러나듯이, 레지오 마리애는 고대 로마 군대 조직 이름을 빌어 단체를 구성하였다.

조직은 가장 작은 단위인 쁘레시디움(Pr), 꾸리아(Curia), 꼬미시움(Comitium), 레지아(Legia), 세나뚜스(Senatus), 꼰칠리움 레지오니스(Concilium Legionis)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기본 단위 조직은 쁘레시디움(Praesidium)으로 대개 간부 4명을 포함하여 6~15명으로 이루어지고 단원 수가 증가하면 분단한다.

쁘레시디움 상위 단위로는 꾸리아(Curia), 꼬미시움(Comitium), 꼬미시움보다는 크고 세나뚜스보다는 작은 단위로 레지아(Regia)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인천, 대전, 수원, 춘천, 원주, 청주, 부산, 마산, 전주, 제주, 안동, 의정부 교구에 레지아가 설립되어 있다. 레지아 위에 세나뚜스(Senatus)가 있는데, 현재 한국 천주교회에는 광주 세나뚜스, 서울 세나뚜스, 대구 세나뚜스가 있다.

광주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뚜스는 지역적인 문제에 따른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고 한국 레지오 마리애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콘칠리움으로부터 1978년 12월 23일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설립을 인준받았고, 2003년 12월 24일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뚜스를 인준받았다. 이와 더불어 한국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뚜스는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뚜스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뚜스는 2011년 기준으로 광주대교구, 부산・전주・마산・제주 교구 레지오 마리애를 관리 운영하며, 산하에 1개 레지아, 33개 꼬미시움, 성인 303개 꾸리아, 소년 4개 꾸리아, 성인 4,110개 쁘레시디움, 소년 124개 쁘레시디움을 두고 있다.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는 2011년 기준으로 서울대교구를 비롯하여 대전・청주・춘천・원주・인천・수원・의정부 교구 레지오 마리애를 관리 운영하며, 산하에 10개 레지아(대전, 청주, 춘천, 원주, 인천, 수원, 의정부, 동서울, 중서울, 서서울), 115개 꼬미시움, 1,334개 꾸리아, 16,891개 쁘레시디움을 두고 있다.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뚜스는 2011년 기준으로 대구대교구, 안동교구 레지오 마리애를 관리 운영하며, 산하에 1개 레지아, 33개 꼬미시움, 성인 303개 꾸리아, 소년 4개 꾸리아, 성인 4,110개 쁘레시디움, 소년 124개 쁘레시디움을 두고 있다.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Concilium Legionis Mariae)는 레지오 마리애 창립 지역인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으며, 전 세계 170여 개국에 있는 산하 모든 레지오 마리애 단체를 통솔 관리 운영한다.

단원은 대개 행동 단원(봉사 활동)과 협조 단원(기도 봉사)으로 구성된다. 행동 단원은 대부분의 일반 행동 단원과 그보다 등급이 높은 쁘레또리움(Praetorium) 단원으로 구분되고, 협조 단원은 대부분의 일반 협조 단원과 그보다 등급이 높은 아듀또리움(Adjutorium) 단원으로 구분된다. 만 18세 이상은 성인 단원, 18세 미만은 소년 단원으로 구분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2월 31일 기준 한국 천주교

회 전체 레지오 마리애 회원 수는 남자 80,831명, 여자 185,020명, 총 265,851명이고, 서울대교구 회원 수는 남자 19,815명, 여자 41,850명, 총 61,665명이다.[105] 2011년 5월 기준 서울 세나뚜스 소속 행동 단원은 161,906명, 협조 단원은 207,687명이다.

(4) 사도직 활동

쁘레시디움은 주 1회 모임을 갖고 꾸리아는 월 1회 모임을 갖는다. 레지오 마리애 단원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1시간 30분 정도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레지오 마리애 모임은 시작 기도, 묵주 기도 5단과 성모찬송, 까떼나, 마침 기도로 이루어지며 이 모임에서 그동안 한 활동에 대해 보고하고 새로운 활동을 부여받는다. 행동 단원은 한주간 동안 성인은 2시간, 소년은 1시간 이상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협조 단원의 경우 일반 협조 단원은 뗏세라(Tessera) 기도문과 묵주 기도 5단을 매일 바쳐야 하고, 상급 아듀또리움 단원은 매일 미사에 참례하여 영성체를 해야 하며, 성무일도도 한 차례 바쳐야 한다.

레지오 마리애는 공인된 교본에 명시된 규정과 꼰칠리움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 해당 교구의 교구장과 본당 주임 사제의 지도에 따라, 단원들에게 알맞으며 교회의 복지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형태의 사회 봉사와 가톨릭 활동을 전개한다. 레지오 마리애 단원 활동으로는 신자(전입 교우) 가정 방문, 전례 봉사, 교리 교육, 선교 활동(예비신자 권면, 쉬는 교우 회두 활동), 환자 방문, 상가 방문, 연도, 장례 봉사, 독거 노인 방문, 복지 기관 봉사 활동 등이 있다.

105) 참조: 2010. 12. 31. 현재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1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년, 34쪽.

2)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106)]

(1) 기원과 역사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는 1833년 프랑스 출신 앙토안느 프레드릭 오자남(Antonie-Fredric Ozanam)과 소르본 대학생 5-6명이 파리에서 설립하였다. 당시 파리 소르본 대학교 법과대학 학생이던 오자남은 '역사 협의회'라는 토론 모임 활동을 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사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동료들과 함께 '자선 협의회'를 설립하여 자선 활동을 시작하였다. 1834년 2월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를 주보성인으로 정하였고, 1835년 회의 명칭을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로 개명하였다. 1835년 12월 8일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저서에 기초하여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의 회칙을 제정하였다. 1845년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로부터 공적인 평신도 단체로 승인을 받아 교황청 관할 단체가 되었다. 이후 급성장하여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등 전 세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국제 사도직 단체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1월 5일 청주교구 교현동 본당에서 처음으로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를 시작하였고, 서울대교구에서는 1961년 2월 8일 명동 본당에서 시작하였다. 1963년 4월 세계총이사회가 한국 천주교회에서 처음으로 청주지구이사회를 청주교구이사회로 인준하였고, 1965년 3월 3일 서울지구이사회를 인준하였다. 1967년 7월 세계총이사회가 서울지구이사회를 서울교구이사회로 승인하였고, 1973년 9월 17일 한국전국이사회 설립을 승인하였다. 1975년 2월 21일 한국전국이사회가 출범하였고, 2000년 10월 10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전국이사회를 한국이사회로, 중앙이사회를 교구이사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106) 참조: H'élène Lebrun, "빈첸시오 아 바오로", 『한국가톨릭대사전 6』, 한국교회사연구소, 1998년, 3826-3829쪽; 방상근,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가톨릭대사전 6』, 한국교회사연구소, 1998년, 3832-3833쪽;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서울대교구이사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 속인적 신앙 공동체, 2011년 기준 서울대교구 인준 단체들』,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단체사목부, 2011년, 123-126쪽;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홈페이지(www.ssvp.or.kr).

(2) 창립 목적과 정신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는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를 주보성인으로 공경한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Vincentius a Paulo, 1581-1660)는 1581년 4월 24일 프랑스 남서부 랑드(Landes) 지방에 있는 닥스(Dax) 시 근처 푸루이(Prouy)에서 가난한 농가의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남달리 총명했던 그는 12살 때 닥스에 있는 코르들리에회 수도원에 보내져 드 코메(Comet) 집안의 가정교사로 일하였다. 이에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15세인 1595년부터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닥스의 학교에서 공부하였다. 1597년 툴루즈(Toulouse)에서 신학을 공부하였고, 1598년 타르브(Tarbes) 주교좌 성당에서 차부제품과 부제품을 받았으며, 1600년 9월 13일 20세의 나이에 사제 서품을 받았다. 이후 계속 신학을 공부하여 1604년 신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1605년 기부금을 받기 위하여 마르세유(Marseille)에 갔다가 나르본(Narbonne)을 거쳐 돌아오는 길에 이슬람 해적들에게 붙잡혀 튀니지(Tunisie)에 노예로 팔려 갔다. 처음에는 어부에게 팔려갔는데 배멀미를 하여 다시 연금술을 연구하는 노인 의원에게 팔려갔고 노인에게서 여러 가지 병을 치유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후 그는 세 명의 첩과 살고 있는 이에게 팔려갔는데 세 명의 첩 가운데 한 명이 가톨릭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결국 그 여인이 남편을 설득하여 빈첸시오 아 바오로는 1607년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다.

빈첸시오 아 바오로는 아비뇽(Avignon)에 머물다 로마에 가서 신학을 다시 공부하였다. 1609년 파리 궁전의 전담 신부가 되었고, 1610년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Marguerite de Valois) 왕비의 빈민 구제계를 담당하였으며, 파리 근처 클리쉬(Clichy) 지역의 주임 신부로 일하였다. 1613년에는 공디(Gondi) 백작의 전담 신부 겸 가정 교사로 임명되어 백작뿐만 아니라 그곳의 하인들과 소작인들도 돌보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하인과 소작인들의 물질적, 영신적 가난을 직접 체험하였다.

그는 1617년 리용 근처 샤띠옹 레 돔브(Châtillon-les-Dombes)에 주임 신부로 일하였고, 이 본당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애덕회'(Confrérie de la Charité)를 설립하였다. 1619년 공디(Gondi) 백작의 간절한 부탁으로 다시 백작의 전담 신부 겸 가정 교사로 재임명되어 1625년까지 그 지역에서 열성적인 사목활동을 펼쳤으며 애덕회를 결성하였다. 1619년에는 파리 방문 수도회(Monastère de la Visitation) 영적 지도 신부를 겸하였고 1625년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선교 사제회'를 설립하였다. 이 회는 라자로 거리에 있는 나환자 병원 라자로의 집으로 이사한 이후 '라자로회'라고 불렸다. 1632년 그는 파리에서 성직자들이 화요일마다 모임을 갖는 '화요회'를 설립하였고, 1633년 30년 전쟁(1618-1648)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난한 이들, 버려진 아이들을 돕기 위하여 '애덕 부인회'(Dames de la Charité)를 설립하였다. 이어 가난한 이들을 좀 더 헌신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성 루이즈 드 마리약과 함께 1633년 11월 29일 '애덕 자매회'(Soeurs de la Charité)라는 활동 수녀회를 설립하였다. 이 회는 오늘날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라 불린다.

그는 1643년 루이 13세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고해성사를 집전하였고, 1648년부터 1652년에 걸쳐 2번이나 발생한 프롱드의 난(La Fraonde) 때에는 중재 역할을 수행하였다.

빈첸시오 아 바오로는 1660년 9월 27일 79세의 나이로 영면하였고, 1737년 6월 16일 클레멘스 12세 교황(1730-1740)에 의해 성인품에 올랐으며, 1885년에는 교황 레오 13세(1878-1903)에 의해 모든 자선사업 단체의 수호 성인으로 선포되었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는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를 본받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들에게 봉사함으로써 하느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돕는 형제자매적 사랑을 기초로 한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회원은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돕고 그들에게 봉사하며 애덕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이다.

(3) 조직과 운영 체계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는 본당협의회, 지구이사회, 지역이사회, 교구이사회, 전국이사회, 프랑스 파리 총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총이사회는 설립자인 복자 앙토안느 프레드릭 오자남의 조국 프랑스 파리에 소재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산하에 147개 국가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75만여 명의 활동 회원과 250만여 명의 후원 회원을 두고 있다. 산하 협의회는 4만 9천 5백여 개이며, 활동 대상자 수는 2천 5백만 명에 이른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국제 연맹은 2012년 가톨릭 평신도 사도직 단체 최초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ECOSOC) 비정구기구(NGO)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2011년 기준으로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서울, 수원, 의정부, 청주, 마산, 춘천, 광주, 전주, 대구, 제주, 대전, 안동, 원주, 부산, 인천 교구에 교구이사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전 교구 산하 협의회 653개, 활동회원 5,782명과 명예회원 36,66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기준 서울대교구 산하 138개 본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는 본당에 구성된 '협의회'를 기본 조직으로, 남성, 여성, 혼성, 청소년 협의회로 운영된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를 조직하려면 먼저 본당 신부와 사전 설립에 관한 절차 승인을 받아야 하고, 6-7명의 회원과 회장, 부회장, 총무(서기), 회계로 최소한의 임원을 구성해야 한다. 이후 지역, 교구이사회와 협의해야 하며, 새로운 협의회와 이사회의 설립은 총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회원은 실제로 활동하는 활동 회원(정회원), 시간을 할애하기는 어렵지만 매월 회비를 납부하면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명예 회원(비종교인, 타종교인 포함), 회원들의 활동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거나 행사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 회원으로 구성된다.

(4) 사도직 활동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회원들은 모임과 활동을 함께한다. 먼저 주 1회 모임에 참석하여 회원 간 사랑을 돈독히 하고 나눔을 하며 활동 계획을 세운다. 더 나아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면서 그들에게 봉사하고 협력한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회원들은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선적 사랑을 제공한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는 이웃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영세민, 빈곤 가정, 틈새 가정 등 자력으로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하는 가정에 주식비, 의료비, 생활 보조비 지원, 독거 노인이나 환자 돌보기, 치료 봉사, 소년소녀 가장 돕기, 장학금 지급, 재해·재난 지원(갑작스런 사고나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생활 정착금, 장례 보조금 지원), 사회 복지 시설 방문, 봉사, 생활용품 지원, 교도소 수감자, 행려자 지원, 입교 권면, 쉬는 교우 회두 권면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한다.

3) 성령쇄신봉사회[107]

(1) 기원과 역사

‘성령 쇄신 운동’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때 받은 성령의 은혜를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운동이다. ‘성령 쇄신 운동’은 본래 ‘성령의 은사 쇄신 운동’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성령의 은사만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쇄신하는 의미도 담아 ‘성령 쇄신 운동’이라고 일컫는다. 성령 쇄신 운동은 교회 공동체에 현존하시는 성령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령의 강림을 증거하며, 성령의 은사를 인식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계속되도록 하려는 운동이다.

‘성령 쇄신 운동’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 이후 1966년 미국 펜실베니아 주 피츠버그 듀케인(Dequesne) 대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듀케인 대학교는 성령회(Holy Ghost Fathers)가 운영하는 대학이었는데, 그 대학의 몇몇 평신도 신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1966년부터 성령 강림을 지향하면서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하였고 성령 송가를 바쳤다. 1967년 2월 그들은 주말 피정 중에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였고, 이 체험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하였으며, 그 체험을 들은 이들 역시 기도하면서 같은 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령 쇄신 운동’이 학교와 본당, 수도원으로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1973년 6월 노틀담 대학교에서 열린 세계 대회에는 수십 명의 주교들과 600여 명의 신부들을 포함하여 22,0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어 1978년 4월 ‘성령쇄신 국제협력평의회’가 발족하였다.

우리나라의 ‘성령 쇄신 운동’은 1973년 12월 5일 메리놀회 소속 제럴드 파렐 신부, 슬레비 신부, 블로워 신부, 봐이스트 수녀, 이정자 수녀, 염영호 요한 등이 모여 ‘가톨릭성신운동협의회’를 결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1974년 1월 15일 처음으로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8주 성령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3월 26일 첫 성령 기도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보급하였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활동을 전개하면서 1975년 2월 7일 ‘성신운동협의회’를 ‘전국성령봉사회’로, 1978년 5월 ‘전국성령쇄신봉사회’로, 1979년 2월 2일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

107) 이범주, “성령 쇄신 운동”, 『한국가톨릭대사전 7』, 한국교회사연구소, 1999년, 4571-4574쪽;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 속인적 신앙공동체, 2011년 기준 서울대교구 인준 단체들』,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단체사목부, 2011년, 105-108쪽;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홈페이지(www.crks.or.kr).

자위원회'로 개명하였다. 1976년 6월 19일 서울에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첫 성령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이후 청년성령쇄신봉사회도 운영하고 있다.

1978년 5월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가 발족되었고, 2011년 기준 서울대교구 총 215개 본당 중 147개 본당이 성령 기도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구·본당 차원에서 성령 세미나와 성령 기도회를 개최하여, 신자들이 성령의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 창립 목적과 정신

'성령 쇄신 운동'은 성령 강림을 체험한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렬하게 전파했던 사도들과 초대 교회 공동체 신자들의 체험에 근거하여 성령의 내재하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서 성령의 은사적 활동이 더 강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와 신자들의 삶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모든 이가 성령의 활동을 '지금 여기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이가 생명을 창조하는 성령 쇄신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봉사로 회원 자신과 그 가정의 성화를 도모하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가르침과 사목 지침에 부응하는 '성령 쇄신 운동'을 전개하여 본당의 모든 신자들을 성령 안의 신앙생활로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갈망하는 신자들이 함께 모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미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능동적으로 교회에 봉사하기 위한 심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공동체 안에 살아 계시는 성령을 확신하고, 자신들이 성령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초대 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성령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가정이 사랑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한다.

성령은 모든 이들을 하느님께 인도하는 분이시며, 그분의 능력은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기에, '성령 쇄신 운동'은 일시적인 운동(movement)이 아니라 끊임없는 쇄신(renewal)이다. 성령 쇄신으로 신자들의 신앙 생활을 심화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성령 쇄신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 쇄신 참가자들은 이 시대, '지금 여기에서' 계속되는 성령의 활동을 모든 이웃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증거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더 나아가 봉사자들의 모든 가정이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의 생명력을 체험하는 '작은 교회'를 이루는 것에 운영의 모토를 두고 있으며, 교의적 내용에 부합하는 직속기구 운영 및 교육,

피정, 세미나, 행사 등의 개최를 통해 계속적인 쇄신을 추구한다. 세상과의 일치와 조화를 추구하고 교회의 전통과 가르침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조직과 운영 체계

성령쇄신봉사회는 장년 대상의 '성령쇄신봉사회'와 청년 대상의 '청년성령쇄신봉사회'가 있다. 성령 쇄신 봉사자는 성령 세미나 교육과 교구 봉사회에서 실시하는 기초 봉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회원은 누구나 가능하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0년 12월 31일 기준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 천주교회 전체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회원 수는 남자 22,755명, 여자 11,640명, 총 34,395명이고, 서울대교구 회원 수는 남자 508명, 여자 1,185명, 총 1,693명이다.[108] 2010년 성령 쇄신 운동 교육 수료자 수는 한국 천주교회 전체 남자 11,629명, 여자 34,388명, 총 46,017명이고, 서울대교구는 남자 3,733명, 여자 12,497명, 총 16,230명이다.[109]

(4) 사도직 활동

사도직 활동은 본당 신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각자가 받은 성령의 은사를 하느님의 뜻에 합당하게 봉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꽃 피울 수 있도록 내적이며 영적으로 기도하고 봉사하는 데 그 뜻이 있다.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는 현재 교구 차원, 지구 차원, 본당 차원에서 활동한다. 교구 차원에서는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와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의로 모여 기도하는 교구 철야 기도회, 내적・육적・영적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교구 치유 기도회, 평일 기도회 참석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토요일 오후에 실시하여 특전미사로 봉헌하는 교구 생명 축복 기도회를 열고 있다. 지구 차원에서는 각 본당의 기도회를 산하에 둔 지구별 기도회를 두고 있고, 현재 총 20개 지구의 기도회와 지구 회장단을 두고 있다. 본당 차원에서는 성령 쇄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각 본당의 기도회를 두어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과 일반 교우들이 서로의 것을 나눔으로써 성령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이 밖에 교육, 피정, 세미나, 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다.

---

108) 참조: 2010. 12. 31. 현재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1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년, 34쪽.

109) 참조: 2010. 12. 31. 현재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1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년, 35쪽.

성령쇄신봉사자는 기도하며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7주간 매주 1회씩 교육, 팀 대화, 매일 묵상 등을 지도한다. 성령쇄신봉사자회는 교육 및 홍보 자료, 각종 관련 책자를 발간하며, 모든 이가 회개하고 복음에 친숙하며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4) 지속적인 성체조배회[110]

(1) 기원과 역사

성체조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초기 교회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8세기 성 베네딕도 요셉 라브르(Benedict Joseph Labre, 1748-1783)에 의해 40시간 성체조배가 프랑스, 벨기에 등지에서 발전하였지만, 여하튼 19세기 중엽까지는 개별 본당의 보편적인 신심으로 자리잡지는 못했다. 성체조배가 일반화된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중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가 회칙 「신앙의 신비」를 통하여 성체흠숭을 권장하면서부터이다.[111]

지속적인 성체조배회는 1991년 6월 2일 교황청 평신도위원회로부터 신자들의 보편적 국제 사도직 단체로 인준되었으며,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1994년 10월 주교회의 추계 정기 총회에서 주교회의 산하 사도직 단체로 인준을 받았다. 현재 전국 많은 본당에서 지속적인 성체조배회가 운영되고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1987년 11월 2일 '서울대교구 가르멜산 성체회'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인 성체조배를 처음 실시하였다. 1988년 역삼동, 금호동, 시흥동, 아현동, 신림동 본당에서 각 500-1000명 내외의 신자들과 함께 성체조배를 실시하였고 이듬해에는 논현동, 정릉동, 가회동 본당에서 각 200-850명 이상의 신자들과 함께 성체조배를 실시하였다. 1989년 6월 26일 '천서 제53호' 공문에 의해 '가르멜산 성체회 서울대교구'라는 이름으로 신심 단체 설립을 인준받았고 1993년 1월 19일 '가르멜산 성체회'와 분리하여 '서울대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로 개

110) 참조: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홈페이지(http://org.catholic.or.kr/jisok/jisok.htm).

111) 참조: 심규재, "성체 신심", 『한국가톨릭대사전 7』, 한국교회사연구소, 1999년, 4838쪽; "서울대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 속인적 신앙 공동체, 2011년 기준 서울대교구 인준 단체들』,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단체사목부, 2011년, 109-112쪽.

명하였다. 2011년 기준 서울대교구 내 42개 회원 본당에서 6,216명의 회원이 중심이 되어 지속적인 성체조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창립 목적과 정신

모든 신자들이 현시된 성체 앞에서 지속적인 조배를 함으로써 성체공경과 성체신심을 증진시키고 참신앙 생활을 하도록 도움을 주며, 더 나아가 세상의 구원과 신앙인의 성화를 위해 기도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여 지속적인 성체조배를 드림으로써 하느님께 흠숭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적 현존을 드러내며, 성체께 감사와 위로를 드리고, 공동체의 성화를 위해 기도하며, 성직자에 대한 그리스도적 사랑과 순명, 신자에 대한 성직자의 자부적 사랑의 증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지향한다.

(3) 조직과 운영 체계

지속적인 성체조배회는 본당에 성체조배실을 만들어 신자들이 언제나 성체조배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조직은 담당 사제,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2월 31일 기준 한국 천주교회 전체 지속적인 성체조배봉사자협의회 회원 수는 남자 1,373명, 여자 11,490명, 총 12,863명이고, 서울대교구 회원 수는 남자 579명, 여자 5,521명, 총 6,100명이다.[112]

(4) 사도직 활동

지속적으로 성체조배를 하는 것이 주된 사도직 활동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성체조배를 실시하는 본당을 대상으로 성체조배 기초교육(7주)과 재교육, 봉사자 학교 및 여성학교 3단계 교육(8주), 매년 성체성혈 대축일에 일일피정을 실시하고, 월례미사 및 성체조배, 봉사자 피정(1박 2일), 성체현양대회 등을 실시한다. '성체조배' 회보(계간지)도 발행한다.

112) 참조: 2010. 12. 31. 현재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1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년, 34쪽.

5) 매리지 엔카운터[113]

(1) 기원과 역사

매리지 엔카운터(Marriage Encounter, ME)는 1952년 스페인의 가브리엘 칼보 신부에게서 착안되었다. 당시 문제 청소년들을 위해 일하던 가브리엘 칼보 신부는 그들의 문제가 대부분 가정 문제, 특히 좋지 않은 부부 관계로부터 생긴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에 부부 관계를 좋게 하면 결국 청소년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고, 만일 부부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도록 도울 수 있다면 이와 동시에 청소년들도 도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가브리엘 칼보 신부와 몇몇 부부들이 약 10년 동안 스페인 전국을 돌며 부부들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1962년 가브리엘 칼보 신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실험적으로 최초의 매리지 엔카운터 주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이 주말 프로그램에 28쌍의 가난한 노동자 부부들이 참가하였다. 이 주말 프로그램은 스페인 전역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켜 급속하게 퍼져 나갔다. 1966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그리스도교 가정 운동 국제 연합회(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Christian Family Movements, ICCFM)가 개최되었고, '부부의 만남' 운동이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에 급속히 퍼져 나갔으며, 그리스도교 가정 운동(Christian Family Movement)의 지원 속에 미국에도 전파되었다.

1967년 8월 미국 노트르담 대학교에서 그리스도교 가정 운동 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 참여한 예수회 갤러거(Gallagher) 신부는 부부들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자신의 사제 생활에 새로운 열의가 솟아남을 체험하였다. 1968년 여름 갤러거 신부는 부부들을 위한 주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매리지 엔카운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국, 특히 뉴욕의 매리지 엔카운터는 그리스도교 가정 운동의 지원 속에 더 확장되었다. 갤러거 신부의 지도와 그리스도교 가정 운동의 대표 부부인 가제로(Edward Hariet Garzero) 부부의 활동에 힘입어 매리지 엔카운터는 1960년대 말 미국 교회에서 가장 활기찬 단체 활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

113) 참조: 박상일 외, "매리지 엔카운터", 『한국가톨릭대사전 4』, 한국교회사연구소년, 1997, 2546-2548쪽; "월드와이드 매리지 엔카운터 서울협의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 속인적 신앙 공동체, 2011년 기준 서울대교구 인준 단체들』,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단체사목부, 2011년, 145-148쪽; 월드와이드 매리지 엔카운터 홈페이지(www.wwme.org); 매리지 엔카운터 한국협의회 홈페이지(www.mekorea.or.kr); 매리지 엔카운터 서울협의회 홈페이지(www.me.or.kr).

뉴욕 매리지 엔카운터는 월드와이드 매리지 엔카운터(Worldwide Marriage Encounter, WWME)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1972년 이후 월드와이드 매리지 엔카운터는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 등 전 세계에 확산되어 현재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국제 평신도 사도직 단체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11월 처음으로 부부들을 위한 주말 프로그램을 계획하였고, 1976년 2월 27일 처음 주말 프로그램을 영어로 실시하였다. 이 주말 프로그램은 메리놀회 마진학(Donald MacInnis) 신부 지도로 실시되었는데, 주한 미국인 부부들과 영어가 가능한 세 쌍의 한국인 부부들이 참여하였다. 1976년 11월 팀교육을 위해 심화 주말(Deeper Weekend)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한국인 부부 다섯 쌍이 참가하였다. 1977년 3월 11일 서울대교구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ME 주말을 전국 차원에서 실시하였고 12월 제1회 ME 한국협의회 전국 가족모임을 개최하였다. 현재 매리지 엔카운터는 전국 교구와 본당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주요 평신도 사도직 단체가 되었다.

(2) 창립 목적과 정신

매리지 엔카운터는 혼인한 부부들이 더 깊은 사랑과 신뢰로 성화된 혼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매리지 엔카운터는 생명력 있고 활기찬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서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보람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지속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인도한다. 이를 통해 하느님 안에서 부부 생활을 성화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하고자 한다.

(3) 조직과 운영 체계

전 세계 차원에서는 월드와이드 매리지 엔카운터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월드와이드 매리지 엔카운터 한국협의회, 서울대교구에는 월드와이드 매리지 엔카운터 서울협의회가 있다.

매리지 엔카운터는 지도 신부와 대표 부부 한 쌍을 중심으로 하는 팀으로 운영되며, 하느님 안에서 성화된 부부 생활을 하고 싶은 신자들이 참가하는 단체이다. 그런데 부부 생활을 하는 신자들만이 아니라 주말 프로그램에는 성직자, 수도자도 참여 가능하며 타종교인도 참여 가능하다. 매리지 엔카운터는 사랑의 대화 방법을

기초로 부부가 함께 기쁨을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사랑의 대화 방법은 모든 공동체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주말 프로그램에 참가한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매월 본당별로 모임을 갖고 나눔(Sharing)을 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0년 12월 31일 기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매리지 엔카운터 교육 수료자 수는 한국 천주교회 전체 남자 4,322명, 여자 4,323명, 총 8,645명이고, 서울대교구는 남자 525명, 여자 523명, 총 1,048명이다.[114]

(4) 사도직 활동

매리지 엔카운터 활동은 2박 3일간 주말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ME 주말에서는 더 깊은 사랑의 삶을 위한 대화 방법을 보여 주며, 참가 부부들은 두 부부만이 서로 대화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ME 주말에서는 부부가 모든 일상 생활의 스트레스를 떠나 서로에게만 관심을 집중하도록 배려한다. ME 주말 프로그램은 결혼한 지 5년 이상 된 신자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성직자와 수도자도 참가 가능하고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2011년을 기준으로 서울 ME는 연간 30회 이상의 주말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거의 매주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은 ME 주말 경험 후 6주간 동안 매주 1회 3시간씩 다리 과정 모임을 하면서 서로의 체험을 나눈다. 이후 특수 주말 프로그램으로 ME 주말을 경험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주말의 개념을 다시 되새기고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깊이 소속하기를 결심함으로써 서로 치유하고 일치되게 하는 프로그램인 쇄신 주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또한 1박 2일 동안 성경 묵상을 통해 개인으로서, 부부로서 하느님과의 대화에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함으로써 부부로서 함께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부부로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영성 프로그램인 MR 부부 피정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본당은 본당 신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참부모 1, 2, 참부부 1, 2, 사랑의 언어도 실시한다.

114) 참조: 2010. 12. 31. 현재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1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년, 35쪽.

6) 꾸르실료[115)]

(1) 기원과 역사

꾸르실료(Cursillo)는 '과정'을 뜻하는 '꾸르소'(Curso)와 '짧다'를 뜻하는 접미사 '일로'(-illo)의 합성어로, '단기 과정'을 뜻하는 스페인어이다.

꾸르실료 운동의 발상지는 스페인이다. 19-20세기 유럽은 교회 내외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반그리스도교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 역시 그런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여러 차례 내전을 겪으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에 내전 이전의 신앙심 깊었던 교회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시도들이 생겨났다.

1940년대 스페인 주교 후안 에르바스(Juan Hervas)는 불우 청소년들이 비행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 후안 주교는 그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가톨릭 운동 경험이 많은 신부들과 가톨릭 운동 단체 회장 에두아르도 보닌과 다른 여러 평신도들을 모아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들은 마요르카에서 스페인의 수호성인 성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콤포스텔라까지 성지순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성지순례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순례 봉사자 교육 프로그램으로 단기 과정, 곧 '진보된 순례자의 꾸르실료'를 실시하였다. 이것이 첫 꾸르실료 교육이다.

이후 이 경험을 바탕으로 '순례 지도자의 꾸르실료'를 마련하였다. 성지순례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꾸르실료를 준비해 온 봉사자들은 꾸르실료를 교회 운동으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꾸르실료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꾸르실료가 끝날 때마다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하여 수정, 보완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1949년 1월 7일 제1단계 '그리스도인 생활의 꾸르실료'가 마련되었고, 이어 제2단계 '순례 지도자의 꾸르실료'가 마련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수정 보완을 거쳐 1965년에 꾸르실료 교육 과정이 완성되었다.

초기 꾸르실료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이후에는 장년 남성들을 우선적으로 참여시켰다. 1951년에는 수녀원 수련자들에게 실시하여 좋은 결과를

115) 허종렬, "꾸르실료", 『한국가톨릭대사전 2』, 한국교회사연구소, 2003년, 1249-1251쪽; "천주교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 속인적 신앙 공동체, 2011년 기준 서울대교구 인준 단체들』,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단체사목부, 2011년, 165-168쪽; 꾸르실료 세계협의회 홈페이지(www.orgmcc.org); 꾸르실료 서울협의회 홈페이지(www.cursillo.or.kr).

얻었고, 1961년부터는 일반화되었다. 1988년 베네수엘라 국제 꾸르실료 대회 이후 교황청으로부터 가톨릭 국제 사도직 단체로 승인받았고, '평신도 중심의 교회 운동'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한국 천주교회 꾸르실료는 1967년 케빈 오노넬과 에드몬드 가이몬이 우리나라에 꾸르실료 운동을 창설하면서 시작되었다. 1967년 5월 4-7일 서울 성수동 본당에서 제1차 꾸르실료 교육을 실시하였고, 1967년 8월 17-20일 서울 정동 명도원에서 제2차 꾸르실료 교육을 실시하였다. 1969년 11월 부산 사랑의 집에서 남성 봉사자의 지도로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꾸르실료 교육을 실시하였고, 1971년부터 서울대교구에서 여성 봉사자의 지도로 여성 꾸르실료 교육을 실시하였다.

1970년 6월경 꾸르실료 운동이 서울, 대구, 광주, 부산, 전주, 인천, 마산 등 7개 교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꾸르실료 한국 협의회'가 설립되었으며, 7월 2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승인을 받았다. 1970년 10월 24일 우리나라 최초로 꾸르실리스타들의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전국 울뜨레야가 개최되었고,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꾸르실료는 1980년대 이후 미국, 캐다다 등 해외 한인 교포 신자들에게 보급되었고,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2) 창립 목적과 정신

꾸르실료는 '세상의 복음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먼저 내적인 변화(회심)를 지향하고, 내적인 변화(회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느끼며, 항상 깨어 있을 것을 다짐한다.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속한 환경을 복음화하는 것을 추구한다.

(3) 조직과 운영 체계

꾸르실료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제1단계는 '예비 과정'으로 함께할 사람들과 친교의 시간을 갖는다. 제2단계는 '3박 4일 간 교육 과정'이다. 꾸르실료의 회원(꾸르실리스따)이 되기 위해서는 3박 4일 동안 이루어지는 꾸르실료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제3단계는 '실행 과정'으로 꾸르실료 교육을 마친 꾸르실리스타들이 팀회합을 갖는 것이다. 꾸르실료 교육을 이수한 꾸르실리스타들은 팀을 이루어 팀회합을 가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찰하고 실행한다. 팀회합이 모이는 것을 울뜨레야[116]라고 하는데, 울뜨레야는 팀회합들이

모여 팀원이 아닌 꾸르실리스따와 신앙인의 삶을 나누고 실행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울뜨레야는 꾸르실리스따들이 주님의 사도로서 신앙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꾸르실리스따(꾸르실료 회원을 부르는 명칭) 수는 173,000명 정도이고, 서울대교구 꾸르실리스따 수는 약 33,000명 정도이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0년 12월 31일 기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꾸르실료 교육 수료자 수는 한국 천주교회 전체 남자 3,449명, 여자 4,187명, 총 7,640명이고, 서울대교구는 남자 545명, 여자 591명, 총 1,136명이다.[117]

(4) 사도직 활동

꾸르실료에서는 3박 4일 동안 이루어지는 꾸르실료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이 교육은 강의, 조별 토론과 발표 등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과 매일 미사, 묵상과 성체조배, 참회 예절 등과 같은 신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대교구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1년 동안 남성 10회, 여성 10회, 청년(혼성) 2회의 꾸르실료 교육을 실행하였다.

116) '앞으로 전진'이라는 뜻을 가진 스페인어이다.

117) 참조: 2010. 12. 31. 현재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1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년, 35쪽.

제2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 현황

1. 인준 단체 총람

2011년 5월 20일 기준으로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립) 인준 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총 229개 단체로, 사회사목부 관할 170개, 사목국 단체사목부 관할 59개이다.

1) 사회사목부 관할 단체

사회사목부 관할 단체는 총 170개이다. 사회사목부 직영·수탁기관(97개)으로는 강서히지노공동생활가정, 고양시보육정보센터(일산종합사회복지관 부설), 구로구보육정보센터, 꾸러기동산어린이집, 꿈을씻기우는 손, 꿈자람터장애인주간보호, 나자로의집 보호작업장, 나자로의집공동생활가정, 남산실버복지센터, 너울자리공동생활가정(성지작업활동시설 부설), 사랑공동생활가정, 다향공동생활가정, 도곡어린이집, 동선2동청소년공부방, 동작노인종합복지관, 두레네공동생활가정, 등촌7방과후교실,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디딤자리, 띠앗자리, 마음자리, 마천어린이집, 목동어린이집, 바오로교실작업활동시설, 바오로교실주간보호시설, 방배어린이집, 벗들의집, 벗들의집 부설 마리공동체, 베들레헴어린이집, 보금자리공동생활가정(성지작업활동시설 부설), 부설신망애의집공동생활가정, 비둘기작업활동시설, 비둘기재활센터부설 마로니에공동생활가정, 비둘기주간보호시설, 비둘기집, 사랑손작업활동시설, 사랑손주간보호센터, 사랑의집, 상계데이케어센터,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상일어린이집, 샛별지역아동센터, 서로함께 공동생활가정, 서울송파지역자활센터, 서울시립은평의마을, 서울시립은혜로운집, 서울시립평화로운집, 서울시여성보호센터, 서초여성회관, 서초한우리정보문화센터,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성가정입양원,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성모공동생활가정, 성모어린이집(논현), 성모어린이집(등촌3), 성모어린이집(일산), 성북푸드마켓, 성분도어린이집, 성빈센트환경마을, 성심어린이집, 성지작업활동시설, 소라네공동생활가정, 신당

종합사회복지관, 신망애의집, 쌍문2동어린이집, 약수어린이집, 연희네공동생활가정, 요셉의원, 우리누리어린이집, 원당어린이집,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율곡어린이집, 은도어린이집,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해찬나래, 전곡성요셉어린이집, 중앙노인전문보호기관, 참좋은기초학교, 청담동 서로함께공동생활가정, 평화의샘, 푸른작업활동시설, 프란치스코어린이집, 하늘자리공동생활가정(성지작업활동시설 부설), 한국가톨릭레드리본, 한빛데이케어센터, 한빛방과후교실, 한빛장애인주간보호센터, 한빛어린이집, 한빛종합사회복지관, 해뜨는집, 햇빛자리, 헬렌켈러의집공동생활가정(헬렌켈러의집 부설), 헬렌켈러의집단기보호시설, 헬렌켈러의집주간보호시설(헬렌켈러의집 부설), 화해의집, 희망의집이 있다.

평신도 운영시설・기관(55개)으로는 가난한마음의집, 가톨릭여성의전화, 강남장애인복지관, 꿈나무공부방, 나자렛성가원, 나자렛성가정공동체, 낙성대어린이집, 너른쉼터, 두엄자리, 드림사회복지회, 라파엘클리닉, 마음터공부방, 막달레나의집, 맑음터, 미리암이주여성센터, 밀알공동체, 바오로선교회, 반포1동어린이집, 사랑의 나눔회, 사랑의집, 새솜공부방, 새숲공부방, 서울가톨릭농아선교회, 서울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 서울라파엘의집, 서울성모원, 성모의집(신사), 성모자애어린이집, 성바오로의집, 세실리아의집, 소중한당신의집, 수선화의집, 여성의집, 예닮의집, 예성의집(전 성심대건의집), 요셉의집, 요한의집, 우리집공동체, 은행나무가정폭력상담소, 전진상복지관, 전진상의원(가정호스피스), 젬마의집,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토마스의집, 파랑새공부방, 하늘이네, 하상장애인종합복지관, 한마음공동체나눔의집, 함께크는집, 행복을만드는집, 행복한기쁨어린이집, 행복한사랑어린이집, 행복한우리어린이집, 행복한우리집이 있다.

평신도 사립 단체(15개)로는 가톨릭다도회, 가톨릭수지침봉사회, 가톨릭지적장애인부모회, 가톨릭핸드벨연합회, 나눔의묵상회, 나눔의전화(자살예방센터), 루젠어린이예술단, 사회교리학교총동문회, 사회복지법인 김남호 복지재단, 서울카리타스봉사단, 실버카리타스성가대, 참사랑부모모임, 카리타스합창단, 한국여성생활연구원, 한마음장애인봉사회, 희동청소년센터, 희망의집공부방이 있다.

그 외 전국 사도직 단체 중 서울 지역 관할 단체로 가톨릭 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협의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 어린이 사도직 운동,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 서울대교구연합회 3개 단체가 있다.

2) 사목국 단체사목부 관할 단체

사목국 단체사목부 관할에는 57개의 단체가 있으며 총 288,914명이 속해 있다. 단체명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면, 가정선교회, 가정성화 사도직, 가톨릭 광고인 협의회, 가톨릭 서울 법조회, 가톨릭 세무사회, 가톨릭 세실리아성음악협회, 가톨릭 아마추어 무선사회, 가톨릭 여성연합회, 가톨릭 전례꽃꽂이 연구회, 가톨릭남성합창단 울바우, 가톨릭마라톤동호회, 가톨릭목공예,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그린합창단, 네오까떼꾸메나도 길, 루르드 성모회, 마리아 사업회(포콜라레), 마리아 사제운동(M.S.M) 다락방기도 봉사회, 무지카사크라 합창단,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서울 가톨릭 교수 협의회, 서울 가톨릭 미술가회, 서울 가톨릭 언론인협의회, 서울 가톨릭 의류회, 서울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서울대교구 가톨릭약사회, 서울대교구 가톨릭의사협회,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서울대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서울대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푸른군대), 서울대교구가톨릭경제인회, 서울미바회,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서울대교구이사회, 성김대건안드레아합창단, 성서못자리 나눔터회(봉사자회), 성서백주간, 수아비스(Suavis) 합창단, 아마뚜스합창단, 예수살이공동체, 월드와이드 매리지 엔카운터 서울협의회, 이콘 연구소(초기 교회미술연구소), 전국 천주교 예수 노상 전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두선교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국악성가 합창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천주교 서울대교구 바뇌성모기도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북방선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회 연합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운전기사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트리니타스 챔버 오케스트라, 트리니타스 합창단, 한국 가톨릭 작곡가 협회, 한국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한국 오름회, 한국 CLC가 있다.

2. 사목국 단체사목부 관할 평신도 (사립) 단체[118)]

사목국 단체사목부 관할 단체 57개 중 전국 사도직 단체와 관련 주요 단체로 소개된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서울대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서울대교구이사회, 월드와이드 매리지 엔카운터 서울협의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한국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등 6개 단체를 제외하면, 사목국 단체사목부 관할 평신도 (사립) 단체는 대략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가정 사목 관련 단체

(1) 가정 선교회

가정 선교회는 영적 성숙과 더 나은 성가정 생활을 원하는 신자들과 가정 생활의 위기에 직면한 신자들을 돕고, 그들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 자신의 가족은 물론 이웃 가정까지도 성가정 생활로 인도할 수 있도록 삶을 통한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 지킴이 단체로서, 2005년 3월 3일 설립되었다. 주로 피정과 교육을 통해 단체 활동을 수행하며, 2011년 기준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2) 가정 성화 사도직

가정 성화 사도직은 가정에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이루려는 자원 봉사자 모임으로, 가정 성화와 생명 수호 활동을 위해 1994년 5월 1일 설립되었다.

2) 성모 신심 관련 단체

(1) 루르드 성모회

루르드 성모님을 가정의 주보로 모시고 가정 성화를 위한 미사와 기도를 봉헌하면서 성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임으로, 1960년대에 설립되었다.

118) 참조: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 속인적 신앙 공동체, 2011년 기준 서울대교구 인준 단체들』,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단체사목부, 2011년, 18-212쪽.

(2) 마리아사제운동 다락방기도 봉사회

마리아사제운동(M.S.M) 다락방기도 봉사회는 성모님께서 스테파노 곱비 신부를 통해 사제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알리고 그 메시지가 담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원의(願意), 곧 하느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다락방 기도 모임을 확산시키며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시대 모든 교회 자녀들이 신뢰와 자녀다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께 봉헌하고, 교회와 일치하며, 성모님께 의탁하는 삶으로 이끌려는 목적으로 이탈리아에서 설립되었다. 마리아사제운동 서울대교구 다락방기도 봉사회는 1997년 9월 5일 설립되었다.

(3)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은 가톨릭 청년들의 신앙 성장을 도모하고 영성 생활에 도움을 주려는 단체로, 가톨릭 청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인 성화를 추구하며 특별히 성체와 성모를 공경하여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이끌려는 목적으로 2000년 11월 23일 설립되었다.

(4) 서울대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푸른 군대)[119]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푸른 군대)은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쳐 달라고 요청하신 것을 실천하려는 국제 사도직 단체이다.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푸른 군대)은 성모님의 뜻에 따라서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를 널리 알리며 그 메시지를 실천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푸른 군대)은 가톨릭 교회의 올바른 가르침을 전파하고 복음서의 진리를 완전히 따르고 지키는 것, 파티마의 메시지를 충실히 따름으로써 구성원 개개인이 성화되는 것, 파티마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함으로써 선을 실천하며 하느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푸른 군대)은 1946년 미국에서 파티마 메시지를 실천하

119) 참조: 평화신문, 제746호(2003년 11월 2일).

는 서약서를 받는 캠페인을 전개한 존 해퍼트 기자와 성모님을 상징하는 푸른 리본을 달고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는 운동을 창시한 해롤드 빅터 콜갠 신부에 의해 시작되었다. 본래 이 단체는 '붉은 군대'로 상징되던 무신론적 공산주의에 대항한다는 의미에서 '푸른 군대'로 일컬어졌는데, 1985년 열린 국제회의에서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으로 개명하였다. 2006년 2월 3일 교황청은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푸른 군대)을 교회의 국제 신심 단체로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한국본부는 1964년 부산에서 설립되었으며, 서울대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은 1975년 5월 22일 설립되었다.

(5) 천주교 서울대교구 바뇌성모기도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바뇌성모기도회는 벨기에 바뇌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의 뜻에 따라 세계 평화와 가정 성화 및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성모 신심을 전파하려는 목적으로 2004년 4월 17일 설립되었다.

3) 성서 사목 관련 단체

(1)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빈곤 등의 이유로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접하지 못하는 전 세계 형제자매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고 성경 사도직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고 2007년 5월 20일 승인되었다.

(2) 성서못자리 나눔터회(봉사자회)

성서못자리 나눔터회(봉사자회)는 신자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하느님 말씀을 생활화함으로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도록 돕고자 2005년 8월 설립되었다. 또한 각 본당 성경 봉사자들의 영적 성장과 효율적인 그룹 운영, 성서못자리 정기 강좌 수강생들의 원활한 교육 활동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3) 성서백주간

성서백주간은 신자들이 성경 전체를 100여 주 동안 이어지는 주간 모임을 통해 '통독-복습-묵상-기도-실천'하는 형식으로 읽고 묵상하고 익히면서 이를 생활화하는 참다운 신앙인이 되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1992년 3월 3일 설립되었다. 성서백주간은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일본 선교사 마르셀 르 도르즈(Mercel Le Dorzw) 신부가 창안한 성경 방법론에 기초한다.

4) 선교 활동 관련 단체

(1) 서울미바회

미바회는 여행자들의 수호성인 크리스토포로(Christophorus, Christopher)를 주보로 모시고 선교사들에게 선교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 단체이다. 1927년에서 아프리카 선교하던 오스트리아의 슐츠 신부가 오지에서 제때 적절한 교통 수단을 구하지 못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을 겪었고, 1935년 이 소식을 들은 콤프뮬러가 선교사에게 '차 보내기 운동'을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8월 시작되었다. 미바회의 미바(Missions Verks Arbeitgemeinshaft, MIVA)는 오스트리아의 선교를 위한 교통수단 제공 단체를 의미한다.

(2) 전국 천주교 예수 노상 전교회

전국 천주교 예수 노상 전교회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 15)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언제 어디서나 노상(항상, 늘) 적극적으로 전교하려는 목적으로 2001년 3월 7일 설립되었다.

(3)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두 선교단

예수님의 선교 파견 명령을 현대 정보기술 시대에 적극 실천하기 위해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요약한 천주교 안내 책자를 가지고 비신자들과 대화함으로써 신앙진리를 알리고 천주교회로 인도하려는 목적으로 1990년 부산교구에서 설립

되었다. 2001년 9월 서울대교구에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11년 6월 단체 승인을 받았다.

(4) 천주교 서울대교구 북방선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북방선교회는 예수님의 선교 사명을 실천하는 선교 단체로 해외 선교 특별히 복음 전파가 절실하게 필요한 중국 지역에 선교 활동을 전개하고 북한 지역의 선교 활동을 준비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95년 7월 중국 흑룡강 목단강 성당/공소 방문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2002년 5월 10일 중국선교단을 발족하였으며, 2010년 10월 8일 단체 인준을 받았다.

5) 공동체 운동 관련 단체

(1) 네오까떼꾸메나도 길

네오까떼꾸메나도 길은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들, 충분히 복음화와 교리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자신들의 신앙을 깊고 성숙하게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등을 대상으로 그리스도교 양성 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하는 공동체이다.

1964년 스페인 마드리드(Madrid)의 팔로메라스 알타스(Palomeras Altas) 빈민가에서 시작되었으며, 2011년 기준 세계 5대륙 100여 개 나라, 820여 교구, 4,500여 본당에서 19,000여 개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 네오까떼꾸메나도 길은 1986년 부산교구 울산 복산 본당에서 시작되었고, 마산교구, 인천교구를 거쳐, 1993년 서울대교구 월곡동 본당에서 시작되었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33개의 공동체가 존재하며 약 1,000명의 형제들이 활동하고 있다.

(2) 마리아 사업회(포콜라레)

마리아 사업회(포콜라레)는 무엇보다 일상 생활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는 영성 운동 단체로, 가정・직장・학교 등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복음과 보편적인 형제애를 실천하면서 사회의 복음화와 예수님께서 염원하신 '일치'를 실현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1943년 이탈리아에서 끼아라 루빅(Chiara

Rubich)이 설립하였다. 우리나라에는 1969년 여자 포콜라레가 먼저 서울에서 시작되었고, 1974년에 남자 포콜라레가 시작되었다. 서울에 한국 본부와 서울 본부가 있으며, 주로 가톨릭 신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타종교인, 보편적 형제애를 실천하면서 일치를 건설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

(3) 예수살이 공동체

예수살이 공동체는 갈릴래아 예수님의 인간성을 본받아 소유로부터의 자유, 가난한 이와 함께하는 기쁨,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투신의 정신으로 지상에서 하느님 나라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신앙인들의 공동체로,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성과 창조적 세계관을 파괴하는 소비문화와 지배의 맘몬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려는 목적으로 1998년 3월 1일 설립되었다.

(4) 한국 CLC

CLC(Christian Life Community, 세상 속으로 흩뿌려지는 공동체)는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세우려는 예수님의 목적을 우리의 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위하여 삶의 전 차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데 투신하려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이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에 공동체적으로 협력하고, 이를 위하여 내적 자유를 지켜내는 영성 생활을 충실히 수행하며, 선의의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하여 복음적 가치들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려는 목적으로 1967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설립되었다. 복음의 정신과 이냐시오 영성을 바탕으로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교육, 양성, 사회 사도직 등을 수행하고 있다.

CLC는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평신도 공동체로서 성 이냐시오가 시작한 평신도 공동체에 기원을 둔다. 2011년 기준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 CLC는 1986년 3월 25일 설립되었다.

6) 전례 관련 단체

(1) 성음악 관련 단체

① 가톨릭 세실리아 성음악협회

가톨릭 세실리아 성음악협회는 가톨릭 전례 음악 교육을 통하여 전례 음악 봉사자를 육성하는 단체로, 각 교구 본당의 전례 음악 봉사자들과 신학생, 수도자 등 가톨릭 교회 음악을 통해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조직을 통하여 가톨릭 전례 음악 발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음악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교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2000년 7월 설립되었다.

② 가톨릭 남성 합창단 울바우

가톨릭 남성 합창단 울바우는 하느님의 말씀과 사랑을 남성 합창으로 표현하고 노래하려는(울) 남성(바우)들의 모임으로 잘 다듬어진 화음을 통해 주님을 찬미하고, 가톨릭교회 내의 각종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성음악의 보급 발전에 기여하며, 단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1979년 5월 1일 설립되었다.

③ 그린 합창단

그린 합창단은 합창을 사랑하는 가톨릭 신자들의 모임으로 가톨릭 신앙을 바탕으로 합창단이 추구하는 다양한 장르의 실용 음악을 통해 합창 음악을 발굴·보급하며, 성음악 봉사를 통하여 선교와 단원 상호간의 친교를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1993년 11월 10일 설립되었다.

④ 무지카사크라 합창단

르네상스 시대 무반주 다성 음악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종교 음악을 보급하고 저변을 확대하려는 단체로, 성음악을 통해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성교회의 전통 음악을 보존 육성하여 가톨릭 문화 창달을 증진하며 신자들의 성화를 도와 교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1984년 1월 설립되었다.

⑤ 성 김대건안드레아 합창단

가톨릭교회의 행사 및 연주, 미사에 적극 협력하는 합창단이며, 가톨릭교회 음악을 연구,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1년 1월 산타마리아 여성 합창단

으로 출발하였으며 2011년 기준 한국 가톨릭교회 성음악 전문 혼성 합창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⑥ 수아비스 합창단

수아비스(Suavis) 합창단은 합창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적 재능이 있는 가톨릭 신자 또는 예비 신자들의 모임으로, 합창 음악을 통하여 선교에 기여하고 전례에 봉사하며 복음 정신을 함양하려는 목적으로 2010년 4월 23일 설립되었다.

⑦ 아마뚜스 합창단

아마뚜스(Amatus) 합창단은 가톨릭 신자로 구성된 혼성 합창단으로서, 온갖 은총을 베푸시는 하느님을 정성을 다해 찬미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노래함으로써 하느님과 교회와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음악 공동체를 이루려는 목적으로 1997년 5월 12일 설립되었다.

⑧ 천주교 서울대교구 국악성가 합창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국악성가 합창단은 가톨릭 전례 음악의 토착화를 위하여 우리 고유의 가락으로 된 성가(국악 성가)를 개발, 육성하고 보급하며, 이를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신자들의 성화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2010년 1월 25일에 설립되었다.

⑨ 트리니타스 챔버 오케스트라

트리니타스(Trinitas) 챔버 오케스트라는 가톨릭 신자이면서 기악을 전공한 대학 졸업자로 단원을 구성하여 교회 음악 협연의 수준 향상, 연주를 통한 문화 선교, 미사 전례 반주 봉사, 가톨릭 신자 기악 연주자 발굴과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2008년 5월 20일 설립되었다.

⑩ 트리니타스 합창단

트리니타스(Trinitas) 합창단은 가톨릭 신자이면서 성악을 비롯하여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생과 졸업생을 위주로 단원을 구성하여 교회 음악의 발전과 보급, 교회 음악을 통한 문화 선교, 미사 전례 성가 봉사, 교회 음악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1999년 11월 29일 설립되었다.

⑪ 한국 가톨릭 작곡가 협회

한국 가톨릭 작곡가 협회는 가톨릭 신자 작곡가들이 그리스도교의 정신이 충만한 가운데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하느님의 영광과 신자들의 성화와 교화를 위하여 작곡하고, 성음악의 전통을 계승하는 가운데 전례의 새로운 규칙과 요구에 부응하는 성음악 작곡에 힘쓰며 준 전례 음악 등 기타의 음악에 대해서도 전통과 쇄신을 통하여 예술적 가치를 높이고 토착화와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2008년 11월 23일 설립되었다.

(2) 가톨릭 전례 꽃꽂이 연구회

가톨릭 전례 꽃꽂이 연구회는 각 성당 제대 꽃꽂이 봉사자들의 모임으로, 올바른 전례의 정신과 의미를 꽃으로 전달하며, 교우들의 성화와 미사 참례를 돕고, 전례 꽃꽂이의 연구, 정립,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1995년 10월 28일 설립되었고 1997년 3월 25일 단체 승인을 받았다.

(3)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회 연합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회 연합회는 서울대교구 각 본당 연령회의 체계적인 가톨릭 상장례 문화 정립과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선교와 사도직 활동을 지원한다. 연령회 연합회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세례로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하여 새 생명으로 옮아가기 위하여 성인 통공의 믿음 안에서 고인에 대하여 기도와 애도를 표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상가를 정성껏 돌봄으로써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신비를 드러내고, 이 신비를 체험함으로써 비신자는 입교를, 쉬는 교우는 회개를, 신자들은 신앙의 심화를 이루도록 도우며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교회 발전과 선교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1994년 3월 19일 설립되었다.

7) 직업 활동 관련 단체

(1) 가톨릭 광고인 협의회

가톨릭 광고인 협의회는 광고업계에 종사하는 신자들의 모임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그리스도적 사명을 다하는 사도직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봉사 정신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려는 목적으로 1992년 9월 24일 설립되었다.

(2) 가톨릭 서울 법조회

가톨릭 서울 법조회는 판사, 검사, 변호사, 헌법연구관, 군법무관, 교수, 기타 법률 사무소 등 법조계에서 일하는 신자들의 모임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신앙 생활의 향상을 기하고 가톨릭 교회법 이념에 입각한 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1965년 3월 22일 설립되었다.

(3) 가톨릭 세무사회

가톨릭 세무사회는 세무사 신자 또는 예비 신자들의 모임으로, 신앙과 직업의 동일성 안에서 회원 간 상부상조와 형제적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세무사의 직무 수행을 통하여 가톨릭 직업 윤리를 실천하며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는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5년 10월 8일 한국 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4) 서울 가톨릭 교수 협의회

서울 가톨릭 교수 협의회는 서울 관구에 있는 각 대학 가톨릭 교수 모임의 협의체로서 참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 교수직을 통하여 가톨릭 신앙의 함양, 학문적 교류, 학생 사목, 교회의 발전 및 민족의 복음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11년 기준 1,300여 명의 교수들이 활동하고 있다.

(5) 서울 가톨릭 미술가회

서울 가톨릭 미술가회는 가톨릭 미술인들의 모임으로, 미술 활동을 통하여 교회의 정신을 구현하고 교회 미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작가 상호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국내외 전시 및 작품 교류를 함으로써 복음 정신을 확산하려는 목적으로 1970년 3월 19일 설립되었다. 2011년 기준 246명의 가톨릭 미술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6) 서울 가톨릭 언론인 협의회

서울 가톨릭 언론인 협의회는 교구 언론인 협의체로서 국내외 가톨릭 언론인 단체와 긴밀히 제휴하여 언론을 통해 시대적 사명을 다하려는 목적으로 2008년 1월 26일 설립되었다. 1968년 주교회의 총회에서 인준받은 '한국 가톨릭 저널리스트 클럽'을 전신으로 하며 '서울 가톨릭 신문출판인협회'와 '서울 가톨릭 커뮤니케이션협회'(CIGNIS/Seoul) 회원들의 연합 모임이다.

(7) 서울 가톨릭 의류회

패션과 의류 기술 관련 모임으로,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의 정신에 따라 사도직을 수행하고 회원 간 친목과 자질 향상을 지향하며 국민 생활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1983년 9월 20일 설립되었다.

(8) 서울대교구 가톨릭 의사협회

서울대교구 가톨릭 의사협회는 한국가톨릭의사협회 산하 조직으로, 가톨릭 정신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서울대교구 내 가톨릭 의사들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며 의도 함양, 학술 발전, 의료 봉사를 통하여 지역 사회 복지를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1965년 5월 10일 설립되었다.

(9) 서울대교구 가톨릭 경제인회

가톨릭 경제인회는 가톨릭 경제인이 기업 활동과 신앙 생활을 가톨릭 정신에 따라 성실히 실천하도록 협조·지원하고 정의로운 가톨릭 경제인상을 정립·보급함으로써 교회 및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1979년 7월 20일 설립되었다.

(10) 서울대교구 가톨릭 약사회

서울대교구 가톨릭 약사회는 신자 약사들의 신앙을 활성화함으로써,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생명 존중과 생태계 보전 및 이웃돕기

운동에 참여하는 등 평신도 사도직을 성실히 수행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교회의 사목 목표인 가정 성화와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1983년 6월 8일 설립되었다.

(11) 천주교 서울대교구 운전기사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운전기사회는 선교 및 봉사를 활동 목표로 개인 택시 운전자들이 중심이 되어 모인 단체이다. 하느님 백성으로서 평신도 사도직 의무를 이행하며, 회원 상호간 친교를 도모하고 복음 전파에 앞장서며 봉사 활동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는 목적으로 1984년 1월 23일 설립되었다.

8) 취미/특기 활동 관련 단체

(1) 가톨릭 목공예

가톨릭 목공예는 친환경 소재인 나무를 사용하여 조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신자들의 모임으로, 신앙을 중심으로 회원 간의 친교를 이루고, 신앙 선조의 삶과 신앙을 목공예를 통하여 재현, 창작, 전시, 목공예 교육을 하며, 각 지역별 작업장 기반 구축으로 토속적 영성 생활에 도움을 주는 목공예 활동을 하려는 목적으로 2006년 4월 22일 설립되었다.

(2) 가톨릭 아마추어 무선사회

가톨릭 아마추어 무선사회는 아마추어 무선 통신을 통하여 하느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햄 동호인 모임으로, 아마추어 무선 활동을 통하여 회원의 신심을 앙양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1985년 7월 12일에 설립되었다.

(3) 가톨릭 마라톤 동호회

가톨릭 마라톤 동호회는 마라톤을 통해 선교 활동을 하면서 공동으로 달리기 훈련을 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모임으로, 달리기를 즐기는 가톨릭 신자 및 예비

신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상호간의 친교와 형제적 사랑으로 봉사·협력하며, 마라톤을 통하여 이웃과 사회에 가톨릭 신앙인의 참모습을 증거하면서 세상의 복음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2002년 3월 3일 설립되었다.

(4) 서울대교구 가톨릭 사진가회

서울대교구 가톨릭 사진가회는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사진 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사진 문화를 보급하고 신앙심을 고취시키며 친목을 도모하고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 봉사하려는 목적으로 1981년 5월 30일 설립되었다. 2011년 기준 3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9) 성/연령 관련 단체

(1) 가톨릭 여성 연합회

가톨릭 여성 연합회는 가톨릭 여성들의 모임으로, 가톨릭 여성들이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위한 교구의 사목 지침에 부응하며 평신도의 고유한 사명을 깨닫고 사도직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려는 목적으로 1963년 11월 19일 설립되었다.

(2) 한국 오름회

제3기 인생에 들어선 신자들이 상호간의 친교를 돈독히 하고 각자 자기 능력을 바탕으로 취향과 환경에 따라 귀중한 시간을 슬기롭고 보람되게 사용하며 교회와 사회에 기쁘게 봉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더욱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1952년 프랑스에서 설립되었다. 2011년 기준 전 세계 60여 국가에서 30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2001년 교황청에 의하여 정식으로 공인되었으며,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비정부기구(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가입 단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3월 21일에 발족하여 4월 31일에 설립되었고, 현재 2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0) 연구 관련 단체

(1) 이콘 연구소

이콘 연구소(초기 교회미술연구소)는 초기 가톨릭 교회 미술을 연구하고 그 안에 담긴 교회 가르침의 근본 정신과 영적 보화를 보급하며 이에 준하여 성화 작가를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2003년 4월 22일 설립되었다.

(2)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은 교회와 문화 현장에서 가톨릭 문화를 창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연구, 교육, 출판, 예술 창작 등과 같은 사업을 통해 삶에서 하느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문화의 복음화에 기여하며 문화 사목을 실행하기 위하여 1985년 8월 1일 설립되었다.

11)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는 평신도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적으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사도직 활동을 자극하고 촉진하며 격려하기 위한 교구 차원의 협의체이다. 교회와 한국 순교자의 정신과 교구장의 사목 방침에 따라 복음적 생활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사도직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평신도들에 주어진 고유한 사명인 가정과 사회의 복음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1968년 11월 30일 설립되었다.

3. 천주교 서울대교구 단체 사목[120]

1) 단체사목부

(1) 설립 목적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2007년 12월 18일 교구 내 평신도들이 단체 결성을 통해 자신들의 고유한 방식으로 교회의 생활과 사명에 참여하고, 특별히 세상 사물의 질서에서 자신들의 특별한 소명을 복음 정신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며 후원하는 동시에 새로이 결성될 단체들에 대한 승인 및 감독과 그 변경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단체사목부를 설립하였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사목국 단체사목부를 통해 '교구 가톨릭 사도직 단체의 조직 및 인준 규정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이 단체들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사무 07-126-658). 이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단체사목부는 새로이 신설되는 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하고, 활동이 미약한 단체를 적극적으로 돕고 지원하며, 활동이 잘 이뤄지고 있는 단체를 더욱 발전시키고 활성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2) 주요 업무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단체사목부는「교회법」제299조 3항과 제314조에 근거하여 서울대교구에서 사도직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평신도 (사립) 단체들의 인준 절차를 지원하고,「교회법」제305조에 근거하여 이들 단체에 대한 교구장의 순시 감독에 필요한 업무를 보조한다.

먼저 단체들의 인준 절차 및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준 규정에 대한 홍보, 인준 접수 및 서류 검토, 인준심의위원회 업무 보조, 단체 합병 분할에 관한 업무, 단체의 소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단체에 대한 교구장의 순시 감독을 위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단체의 현황을 파악하며 활동 및 예·결산 관리, 교구차원에서의 예산 지원을 심의 중재한다.

---

120) 참조: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 속인적 신앙 공동체, 2011년 기준 서울대교구 인준 단체들』,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단체사목부, 2011년, 8-13쪽;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단체사목부 홈페이지(http://club.catholic.or.kr/maap).

단체사목부 담당 사제는 단체사목부를 총괄하고 인준심사위원회 총무로서, 단체 인준 신청 및 심의 절차에 필요한 모든 제반 사항을 점검하며 인준 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단체 간 마찰이 일어날 경우 이를 중재하며 교구 내 모든 (사립) 단체에 관한 업무를 파악하고 조사·연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단체사목부 담당 직원은 단체사목부 홍보 및 안내 사항을 공지하고 단체들의 인준 신청 접수를 지원하며 단체 인준 심사 결과 통지 및 인준 관련 안내를 담당하고 단체들의 정기 보고 및 요청 자료를 접수하고 매년 1회 인준 단체 명부를 작성, 보고하며 인준 단체 활동 사항 및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지원을 요청한 단체들에 대한 지원안을 검토하며 단체들의 현황 자료를 수집, 작성한다.

2) 인준 심사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2009년 12월 30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립) 단체 승인 및 변경에 관한 규정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립) 단체 인준 심사위원회 회칙을 반포하였다.

(1) 조직 체계와 주요 업무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립) 단체 인준 심사위원회는 서울대교구 총대리 주교를 위원장으로 하여 평신도 (사립) 단체 인준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교구장의 단체 승인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보조한다.

인준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총대리 주교), 총무(단체사목부 담당 사제),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2) 회의

인준 심사위원회는 의뢰 사안이 발생한 경우 반기별(연 2회)로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단체 승인 관련한 제 업무를 수행한다. 2010년 10월 8일 제1차 인준 심사위원회가 개회하였고, 2011년 5월 20일 제2차 인준 심사위원회가 개회하였다.

(3) 인준 요건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립) 단체 인준은 신자들이 신심, 봉사, 선교, 연구, 교육, 문화 사업, 후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조직하여 교구 내 활동을 원하는 모든 사립 단체를 대상으로 교구 관할권자가 공식적으로 가톨릭 사립 단체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립) 단체로 인준받기 위해서는 교회의 가르침과 정신을 구현하는 비영리단체이고 공익성을 추구하며 담당 사제, 정관, 활동과 재정 감사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4) 인준 승인 절차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립) 단체로 인준받기 위해서는 인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준 승인 절차는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립) 단체 인준 신청서와 요청 서류를 단체사목부에 접수 ⇨ 단체사목부(사목적 차원) 및 사무처(문서 형식적 차원) 검토서 작성 ⇨ 인준 심사위원회 검토 ⇨ 주교평의회 보고 ⇨ 교구장의 단체 승인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인준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립) 단체 인준 신청서와 단체 회칙(정관), 대표자 및 임원 명단, 조직 기구표, 연간 활동 계획서, 단체 조직의 경과, 상기 서류들에 대한 담당 사제의 의견서를 단체사목부에 접수해야 한다. 둘째, 단체사목부(사목적 차원) 및 사무처(문서 형식적 차원)가 검토서를 작성한다. 단체사목부는 서류 확인 후 의견서를 사무처에 제출한다. 그러면 사무처는 고유 의견서를 작성, 평신도 (사립) 단체 인준 심사위원회(위원장 주교)에 제출해 승인을 요청한다. 셋째, 위원장이 인준 심사위원회 소집을 통보한다. 넷째, 인준 심사위원회 검토를 거쳐 인준 심사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 위원 2/3 이상이 동의하면 심의 의결이 이루어지고 주교평의회에 보고한다. 다섯째, 교구장이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그리스도 신자들의 단체에 관한 규정(「교회법」 제298-310, 321-329 참조 · 사목지침서 2장 참조)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립) 단체 승인 및 변경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귀 단체를 심사한 결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립) 단체로 승인합니다”라는 단체 승인을 한다. 여섯째, 인준 심의 후 결과를 배속 기관에 통지하여 해당 단체에 인준 승인과 배속 기관을 통고하도록 한다. 단체의 유형에 따라 해당 단체의 상급기관이나 교구청 내의 각 부서가 관리하며, 어떤 기관의 관리도 받지 않는 평신도 (사립) 단체는

단체사목부가 관리한다. 일곱째, 매년 인준 받은 단체의 명부를 작성하여 유관 부서에 통지한다.

(5) 심의 검토 내용

인준 심사위원회는 승인을 요청한 단체의 목적, 조직 및 경과, 단체의 회칙(정관), 연간 활동 계획 및 예산, 단체의 배속, 그 밖에 인준 심사에 필요하여 위원들이 제안한 사항을 검토한다.

(6) 심의 분류

인준 심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승인, 보완, 보류, 불허를 결정, 통지한다.

① 승인: 모든 승인 조건 충족 시 인준을 승인한다.
② 보완(조건부 승인): 경미한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수정 후 승인한다.
③ 보류: 중대한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추후 재승인 신청을 요한다.
④ 불허: 교회의 목적이나 심의 기준에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로서 승인을 불허하며 재승인 신청을 받지 않는다.

(7) 인준 단체 권리와 의무

인준 심사위원회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은 단체는 '가톨릭' 혹은 '천주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교구 공식 홍보 매체를 통하여 단체 활동을 홍보할 수 있다. 교구청 직할 시설물 사용에 대한 적합한 신청 및 그 적절한 사용을 요청할 수 있고, 교구 주소록 및 홍보물, 한국 천주교회 주소록에 등재할 수 있으며, 단체 간 마찰이 생겼을 때 교회 권위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와 동시에 교구가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교구 활동에 협조하며 단체 활동 및 재정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

국제 조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는 '한국'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국내에서만 활동할 경우는 '전국'이라는 용어로 개칭하며, '사도회'는 '사도직협회(협의회)'로 개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승인을 받지 않은 단체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공식 단체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다.

(8) 인준이 승인된 단체(장)의 의무

인준이 승인된 단체(장)은 교구와 지구 본당과의 협력 관계와 교구에서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할 의무, 제 단체 고유 목적 달성을 해치지 않는 한, 교구의 여러 활동들에 협조할 의무, 정해진 양식에 따라 매월 활동 및 재정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 연간 활동 계획서, 단체 현황, 예·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 정기 총회 회의록을 제출할 의무, 그 밖의 필요시 교구의 합법적 권위가 요구하는 서류 및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 정치 등 공적 활동에서 반드시 중립적 자세를 견지할 의무, 단체 사무실 주소, 단체장 선임 등 단체 주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를 즉각 단체 사목부에 알려야 할 의무를 갖는다.

주요 참고 문헌과 사이트

가톨릭 진행에 관한 주교 교서, 『경향잡지』, 1933년 3월호(제27권 제3호 통권 754호), 121-130쪽.

가톨릭 진행에 관한 기서, 『경향잡지』, 1933년 4월호(제27권 제4호 통권 755호), 158-160쪽.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 속인적 신앙 공동체, 2011년 기준 서울대교구 인준 단체들』,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단체사목부, 2011년.

『한국가톨릭대사전』,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한국교회사연구소. 1985년.

『한국가톨릭대사전 1-12』,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2006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www.cbck.or.kr)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단체사목부(http://club.catholic.or.kr/maap)

콘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www.legionofmary.ie)

광주 세나뚜스(www.k-senatus.kr)

서울 세나뚜스(www.senatus.or.kr)

대구 세나뚜스(www.dgsenatus.or.kr)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 이사회(www.ssvp.or.kr)

천주교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www.crks.or.kr)

월드와이드 매리지 엔카운터(www.wwme.org)

월드와이드 매리지 엔카운터 한국협의회(www.mekorea.or.kr)

월드와이드 매리지 엔카운터 서울협의회(www.me.or.kr)

꾸르실료 세계협의회(www.orgmcc.org)

꾸르실료 한국협의회(www.cursillo.or.kr)

제3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 발전 방향 모색과 전망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는 하느님 백성으로서 가지는 평신도의 신원과 정체성을 확고히 하였고, 평신도의 사도직 활동이 자신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공고히 하였다.

평신도 사도직 활동은 개인적이고 단체적인 모든 활동을 포함하며, 개인의 신심 고양이나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선 함양이나 연대성 증진과 같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세상을 복음화하는 모든 활동을 포괄한다.

신자들의 활발한 단체 사도직 활동은 신자 개인의 신심을 고양하고 영적 성장을 증진하며 교회를 쇄신하고 교회의 영적 보고를 든든히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이들의 복음화를 가져온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역시 평신도 사도직 활동이 복음화를 훌륭한 도구라는 것을 확고히 하면서 평신도 사도직 활동의 활성화를 역설하였고, 한국 천주교회 평신도 사도직 단체 역사 역시 이를 증거하였다. 레지오 마리애,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성령쇄신봉사회,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매리지 엔카운터, 꾸르실료 등 한국 천주교회에서 활동하는 많은 평신도 사도직 단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화의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수행하는 까닭이다.

지금까지 평신도 사도직 단체 활동의 정체성과 사명에 기초하여 한국 천주교회, 특별히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의 현황을 살펴보았고, 이를 기초로 이제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전망을 성찰하고자 한다.

2011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단체사목부는 교구 내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단체 사목 활성화를 위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 단체장들은 문19 "귀 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내용입니까?"라는 질문에 '회원 감소, 회원 확보의 어려움,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 부족, 봉사 활동의 어려움, 젊은이 참여 부족, 담당 사제의 겸임 또는 바쁜 일정으로 인한 지도의 어려움, 행사 장소 임대의 어려움, 단체 사무실 부재, 재정 부족의 어려움, 프로그램의 취약,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홍보의 어려움' 등으로 응답하였다.

문20 "교구 사목국 단체사목부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단체 현황 파악, 교육 프로그램 지원, 각 단체 영성 생활 공동 프로그램 제공,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교육, 단체 교류, 단체 간 협력 증진, 각 단체 연계 역할, 단체 간 상호 협력 도모, 단체 간 유대를 위한 모임 제공, 단체 행사 홍보, 단체 행사 참여, 단체 행사 적극 지원, 단체 활성화 도모, 실제적 도움 제공, 각 단체 특성과 개성 살릴 수 있도록 배려, 비슷한 카리스마(은사)를 갖고 있는 단체

간 협력과 통합 지원, 단체별 영성에 따른 단체 구분, 직능 단체와 신심 단체 구별, 단체 사사화(私事化) 방지, 단체가 이익 단체나 친목 단체가 되는 가능성 최소화, 교구 조직, 본당 조직과의 연계 역할' 등으로 응답하였다.

문22 "교구장님께나 다른 주교님께 건의할 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써주십시오"라는 질문에는 '단체에 대한 관심과 협조, 단체에 대한 관심과 사목적 배려, 전담 사제 임명, 단체 행사 장소 제공, 단체 행사 지원, 단체 재정 지원, 단체 참여 촉진, 신자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역할' 등으로 응답하였다.

이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의 발전 방향과 전망을 '신자의 단체 활동과 각 단체 사도직의 활성화, 단체 사목의 체계 정립과 지원 확대'라는 차원에서 고찰한다.

제1장 신자의 단체 활동과 각 사도직 단체의 활성화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신자들의 단체 활동이 활성화되고 각 사도직 (사립) 단체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1. 신자의 단체 활동 활성화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자의 단체 결성과 활동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 평신도의 참여와 공동 책임성을 증진하는 것이 요청된다.

1) 신자의 단체 결성과 활동 촉진

(1) 단체 결성과 모임의 권리 증진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듯이, 「교회법」 제215조는 모든 신자들이 “애덕이나 신심의 목적 또는 세속에서 그리스도교적 소명을 촉진하기 위한 단체들을 임의로 결성하고 운영하며 그 목적을 공동으로 추구하기 위한 집회를 가질 자유가 있다”라고 명시한다.

신자들이 단체를 결성하고 모임을 가지며 활동을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리는 기본권이면서 동시에 신자로서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역시 “교회 권위와 마땅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평신도들은 단체를 결성하고 운영하며 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평신도 교령」 19항)라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평신도 그리스도인」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의 결사의 자유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평신도 그리스도인」 29항)라고 천명한다.

또한 「교회법」 제327조는 신자들이 “제298조에 언급된 영적 목적을 위하여

성립된 단체들, 특히 현세 사물의 질서를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진작시키는 일을 지향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신앙과 생활 간의 밀접한 일치를 크게 조장하는 단체들을 중요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면서 신자들의 단체 활동을 권고하고 촉진한다.

신자들에게 단체 결성을 인정하고 요구하는 이유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평신도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신학적이고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제시한다. "평신도들의 단체 결성을 인정하고 요구하는 더 깊은 이유는 신학적이고 교회론적인 이유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조직적 사도직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친교와 일치를 드러내는 표지'(「평신도 교령」 18항)라고 언명하는 가운데 이를 명확하게 인정하였습니다. 일치의 표지는 다양한 단체들의 안팎에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더욱 광범위한 맥락 안에서도 '친교'의 관계로 드러나야만 하는 '표지'입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교회론적 측면은 한편으로 평신도 고유의 결사의 '권리'를 밝혀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형태의 단체들이 교회 안에서 가지는 정통성을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의 필요성을 말해 줍니다"(「평신도 그리스도인」 29항)라고 밝히는 것이다.

평신도는 성직자, 수도자와 함께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는 주요 구성원으로서 교회가 세상에서 수행해야 할 사명에 있어 커다란 역할을 담당한다. 평신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사회 생활의 제 영역에서 하느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신의 소명과 교회의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평신도는 사목의 협력자로서 하느님 백성이 다 함께 이루는 친교의 교회, 참여하는 교회, 공동 책임을 지는 교회를 구현해야 한다. 이는 평신도의 권리이며 또한 의무이다. 이런 측면에서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 활동은 참으로 요긴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더 많은 평신도들이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를 결성하고 모임을 하면서 신자 개인의 소명을 완성하고 교회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를 평신도들에게 알려 주고 촉진해야 할 것이다.

(2) 단체 결성과 도입의 신중함 요청

단체를 결성하고 모임을 가지며 활동을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누리는 기본권이면서 동시에 신자로서 누리는 기본권이다. 하지만 단체 결성에는 신중함이 따라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역시 평신도 사도직 단체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충분한 이유도 없이 새로운 단체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 다른 나라에서 시작된 사도직 형태를 분별없이 받아들인다는 것도 언제나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지적한다. 단체 결성과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것이다.

현재 한국 천주교회에서도 단체들이 마치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경향이 자리한다. 교회 사도직 단체인지 일반 사회 단체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단체들도 있고, 단체 고유의 특별한 사도직 활동을 하기보다 단순히 회원 간 친목만을 다지는 듯한 단체들도 있다. 하나의 단체를 결성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이름으로 새로운 단체를 결성하기도 한다. 급기야 '짝퉁천주교단체들', '불법유령단체들'도 등장하였다. 대표적으로 2008년 7월 7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한국천주교회는 더 이상 상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한 '뜻있는 천주교 평신도 전국협의회', '천주교 뉴라이트 전국협의회', '천주교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기도회'와 같은 단체를 들 수 있다.

현재 '가톨릭'이나 '천주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활동하는 단체가 많다. 대부분 단체명에 '가톨릭'이나 '천주교'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교회의 공식으로 인정하는 단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교회가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는데도 '가톨릭'이나 '천주교'라고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많고, '가톨릭'이나 '천주교' 단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도 교회 정신에 어긋나게 활동하거나 상업적인 목적만으로 활동하거나 특정 계층이나 모임, 정당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단체 이름에 '천주교', '가톨릭'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려면 교회의 공식 승인을 거쳐야 하고, 더 나아가 '천주교', '가톨릭'이라는 호칭에 걸맞는 사도직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절차 없이 무차별적으로 '천주교', '가톨릭'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한국 천주교회 차원과 각 교구 차원에서 산하 단체 조직을 관리, 조정, 운영, 지원할 책임과 중요성이 부각된다.

같은 카리스마(은사)를 가진 단체가 이미 결성되어 있는데도 새로이 단체를 결성하는 경우도 있다. 신자 누구나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면서도 단체 결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술하였듯이, 새로운 단체를 결성하려 할 때에는 먼저 우리 단체의 고유한 카리스마(은사)와 정체성은 무엇인지 성찰해야 할 것이다. 만약 단체가 고유한 카리스마(은사)와 정체성을 갖지 못한다면 굳이 새로운 단체를 결성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같은 카리스마(은사)를 가진 기존 단체에 혹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새로 단체를 결성하기보다 다른 모든 회원들과 함께 서로 쇄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도직 단체는 특별한 카리스마(은사)나 능력을 가진 어느 개인에 중심을 두는 단체가 아니라, 참으로 하느님께 그리고 그분의 구원 활동에 협력하는 단체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2) 평신도의 참여와 공동 책임성 증진

(1) 단체는 평신도 참여와 공동 책임성 증진의 터전

성직자와 평신도는 다 같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참여해야 하며 교회의 사명에도 공동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121]

평신도 사도직 단체는 평신도들이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장이며 터전이다. 「평신도 그리스도인」 29항은 "흔히 이러한 평신도 단체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외적인 구조와 수련 과정과 방법 그리고 활동 분야에서 서로 다른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단체들이 지향하는 목적에서는 폭 넓고 깊은 공통성을 발견하고 있으니, 인간과 사회가 쇄신되리라는 희망의 원천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야 할 교회의 사명에 대한 책임있는 참여라는 데에 공통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한다. 평신도 사도직 단체의 존재 이유 내지 목적이 바로 교회의 복음 선포의 사명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것이라고 언명하는 것이다. 평신도들이 교회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커다란 장이 바로 평신도 사도직 단체라는 것이다.

(2) 단체 활성화를 통한 평신도의 참여와 공동 책임성 촉진

평신도는 사도직 단체에 참여하고 그 단체의 활동을 수행하면서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목의 협력자로서 더 많이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이 해야 할 바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다. 이에 평신도 사도직 단체들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각 단체가 제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

『서울대교구 시노드 후속 교구장 교서』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의 활성화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매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도직 운동과 단체들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표징입니다. 이들은 회원들의 지속적인 양성과 성장에 크게 이바지하면서 교회에 커다란 공헌을 해 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구에서 많은 교회 운동 단체들이 저마다 고유한 은사와 소명 의식 속에 교회 성장의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도직 운동과 단체들에 신뢰를 보내며, 현세의 일을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와 평화를 증진

121) 참조: 정일, "평신도", 『한국가톨릭대사전 11』, 한국교회사연구소, 2005년, 8912쪽.

하는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기를 권고합니다. 사도직은 교회 공동체의 협동을 요청합니다. 더욱이 계획과 활동이 날로 조직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사도직 활동의 효과 역시 조직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사도직 단체들은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확고하고도 진정한 친교를 이루며 서로 협력하여야 하고, 교회 전체의 사도직과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신도 단체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교회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느님의 교회를 다스리도록 성령께서 세워 주신(사도 20, 28 참조) 주교와 이루는 일치는 그리스도인 사도직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주교와 이루는 일치는 한 교구 안에서 활동하는 온갖 형태의 사도직 단체의 확고한 일치를 드러내는 표징적 행위입니다"(「평신도」 18항).

평신도 사도직 단체는 단순히 주 단위, 월 단위 회합을 하는 데 그치는 하나의 모임이 아니라, 단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교회 사명 수행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동안 레지오 마리애나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등 주요 사도직 단체가 한국 천주교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열심히 활동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예비 신자 입교와 쉬는 교우 회두 권면, 선교 활동,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도움, 사회 복지 단체 봉사 활동 등에 주력하였고, 이런 열성에 기초하여 많은 회원을 모집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제 단체 활동이 점차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회원들이 점차 활동할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면서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적은 수의 회원들만이 활동에 참여하는 실정이다.

이는 비단 평신도 사도직 단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이고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경제제일주의, 일등제일주의에 시달리면서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학업 활동과 직장 생활에 할애한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며 작은 것 하나라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풍요로움을 맛보지 못하고 하루하루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다.

평신도는 교회의 사람이며 세상의 사람으로서 신앙 생활과 사회 생활, 신앙과 삶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교회의 봉사와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만 몰두하여 일상 생활에서 마땅히 해야 할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며, 신앙과 생활의 괴리를 당연한 것으로"(『서울대교구 시노드 후속 교구장 교서』, 「평신도」 4항) 여겨서도 안 되고, 학교든 직장이든 사회 생활에만 몰두하여 교회의 봉사와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소홀해서도 안 된다. 평신도는 세상에 사는 교회의 사람이며, 동시에 교회에 사는 세상의 사람으로서[122] 두 가지 본분 모두를 잘 수행해야 한다.

『서울대교구 시노드 후속 교구장 교서』는 “교회 생활에 대하여 평신도가 공동 책임을 느끼고, 사목의 협조자로 제 역할을 다하는, 그러한 참여하는 교회상을 실현하는 일은 매우 중요”(「평신도」 6항)하다고 강조하면서 “서품이 필요하지 않은 교회의 직무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회의 여러 분야의 직책을 평신도들이 폭 넓게 맡는 것은 참여하는 교회상 구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가 펼치는 여러 사업, 곧 다양한 형태의 복지 사업, 학교, 병원, 사회 홍보 등의 분야에 적절한 평신도 인재를 찾아 등용하는 일은 매우 긴요한 일입니다”(「평신도」 7항)라고 제안한다.

122) 참조: 「교회 헌장」 제4장, 「평신도 그리스도인」 제1장.

2. 평신도 사도직 단체 활성화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 자체가 활성화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각 단체의 활성화는 각 단체가 단체 고유의 카리스마(은사)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에 맞갖게 활동하며, 단체 모임과 활동을 통하여 교회의 사명을 완성해 나가고, 신자들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증진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1) 카리스마(은사)와 정체성 확립

(1) 카리스마(은사) 식별

성령께서는 신자 개인과 개별 공동체, 교회 공동체 전체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개인과 공동체에 그에 맞갖은 카리스마(은사)를 내려 주신다. 성령께서는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활동하시면서 그에 필요한 카리스마(은사)를 내려 주시는 것이다.

신자 개인과 개별 공동체는 먼저 성령으로부터 고유하게 받은 카리스마(은사)가 무엇인지 개인적 또는 공동체적으로 성찰하고 식별해야 한다. '성령칠은'이라고 일컬어지는 지혜, 이해, 지식, 의견, 효경, 용기, 두려움의 7가지 은사,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로 일컬어지는 성령께서 주시는 9가지 열매, 지혜, 지식, 믿음, 병을 고치는 은사,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예언을 하는 은사,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123] 등 성령께서 내려 주시는 카리스마(은사)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각 사람과 각 공동체에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까닭이다.

여기에서 꼭 하나 유의해야 하는 것은 이 카리스마(은사)를 베푸시는 분이 한 분 성령이시고, 이 은사 모두 한 개인이나 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신자 개인과 개별 공동체는 성령께서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에 베푸시는 카리스마(은사)를 자신이나 자기 공동체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 곧 공동선을 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카리스마(은사)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

123) 참조: 이사 11, 2; 갈라 5, 22; 1코린 12, 4-11.

(2) 카리스마(은사)에 따른 사도직 활동

신자 개인은 자신이 고유하게 받은 카리스마(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단체 활동에 참여해야 하고, “자신의 소명에 따라 교회가 승인한 단체나 조직에 가입한 평신도들은 그 고유한 영성 생활의 특성을 충실히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평신도 교령」 4항). 교회에는 각자 고유한 카리스마(은사)에 따라 개인 성화와 완덕 추구, 신심 고양, 전례, 교리 교육, 선교 활동, 복음화, 사회 봉사와 복지, 애덕 사업 등 다양한 목적과 정신을 추구하는 수많은 단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각 단체 역시 자신의 고유한 카리스마(은사)와 정체성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식별하고 성찰하면서 고유한 카리스마(은사)를 기초로 그에 맞갖은 사도직 활동을 해야 한다. 각 단체의 카리스마(은사)와 그에 맞갖은 사도직 활동을 식별해야 하는 것은 새로 설립을 준비하는 단체나 갓 설립된 단체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를 가진 단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행해야 할 작업이다. 일찍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낡은 방법을 고수”(「평신도 교령」 19항)할 경우 사도직 활동의 힘이 분산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였듯이, 오래된 단체들 역시 단체의 카리스마(은사)와 정체성을 끊임없이 ‘지금 여기에서’ 재식별하고 재성찰해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인간과 오늘의 세상에 더 적합한 단체로 굳건하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끊임없이 자신이 살아가는 터전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수 있는 까닭이다. 각 단체는 단체의 고유한 카리스마(은사)와 정체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시대의 징표를 읽고 변화하는 시대와 상황에 적합한 사도직 활동을 펼쳐나가야 하는 것이다.

한국 천주교회에서 확고히 자리 잡은 단체 역시 자신의 카리스마(은사)와 정체성을 재식별하고 재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적 차원에서 활동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더욱 자신의 카리스마(은사)와 그에 맞갖은 사도직 활동을 재식별하고 재성찰해야 한다. 국제적 차원에서 활동하는 단체는 외국에서 도입된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와 문화, 상황에 적합한 단체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고, 다른 무엇보다도 ‘토착화’의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신자들이 활동하는 레지오 마리애,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성령쇄신 봉사회, 매리지 엔카운터, 꾸르실료 모두 마찬가지이다.

(3) 카리스마(은사)와 정체성 정립에 따른 내외적 쇄신

단체 고유의 카리스마(은사)와 정체성이 정립되면 이에 따른 단체 쇄신이 내외적 차원에서, 곧 총체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단체 쇄신은 단체 자체가 자신의 카리스마(은사)와 정체성에 대한 식별과 성찰을 거쳐 이루어야 하는 과제인 까닭이다. 이를 전제로 본고에서는 한국 천주교회에서 평신도 사도직 핵심 단체로 자리하면서 많은 회원과 더불어 관련 사도직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주요 단체와 다른 모든 단체들이 성찰해 보아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① 친교의 교회상 구현

한국 천주교회 평신도 사도직 단체는 한국 천주교회 성장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그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신심 고양, 예비 신자 입교와 쉬는 교우 회두권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돌보기, 복지 시설 자원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복음 선교 활동에 앞장서 왔다. 그런데 평신도 사도직 단체는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도 안고 있다.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구체화된 교회상을 어떻게 사도직 단체 조직과 단체 활동을 통하여 구현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를 제도, 조직으로서보다는 하느님 백성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하는 친교의 공동체로 제시하고 있다. 교회를 피라미드식 교계가 아니라 나눔과 사귐과 섬김의 공동체,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다 함께 하느님 백성을 이루는 공동체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평신도 사도직 단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상을 어떻게 평신도 사도직 각 단체 조직과 활동에 담아낼 수 있을지 고심해야 한다.

② 올바른 신심 생활과 신심 전파

모든 신자는 올바른 신심을 가져야 하고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그 신심을 전파해야 한다.

성모님 공경은 초대 교회 때부터 시작되었고,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선포한 에페소 공의회(431) 이후에 널리 전파되었으며,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하느님께만 드리는 흠숭지례(欽崇之禮), 마리아께 특별하게 드리는 상경지례(上敬之禮), 성인들께 드리는 공경지례(恭敬之禮)로 공경의 정도를 구분하면서, 하느님께, 성모님께, 성인들께 예를 드린다는 사실을 유념해

야 한다. 교회가 마리아께 드리는 공경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께 드리는 흠숭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구분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124] 교회는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 주신 어머니이고 하느님의 어머니이며 모든 신앙인들의 어머니로 고백하고 공경하면서도, 성모 마리아를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가장 크고 높은 공경의 대상으로서 예우하기 때문이다.

성모님 공경은 '하느님이 아닌 존재나 사물을 하느님인 것처럼 숭배하는' 우상숭배(偶像崇拜)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교회는 하느님의 인류 구원 역사의 지평 안에서 성모 마리아의 역할과 삶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그분께 공경의 예를 드린다.[125] 묵주 기도도 마찬가지다. 묵주 기도는 성모 마리아의 전 생애를 묵상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모 마리아의 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묵상하는 기도인 것이다. '환희의 신비'로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묵상하고, '빛의 신비'로 예수님의 공생활을 묵상하며, '고통의 신비'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묵상하고, '영광의 신비'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묵상한다. 이 신비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신앙인의 모범이신 마리아께 우리를 대신하여 하느님께 기도해 달라고 전구를 청하는 것이다. 묵주의 기도 역시 예수님의 신비를 깨닫게 하는 기도인 것이다. 따라서 마리아를 공경하는 데 있어 혹여 우상 숭배라고 비난할 만한 여지를 갖게 하는 점이 있다면 그건 간과할 수 없는, 꼭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성모님 발현'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성모님 발현이란 성모 마리아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에 나타난 현상을 말한다. 일찍부터 성모님 발현에 대한 기록이나 증언이 있었지만, 교회는 그동안 교도권의 교의에 부합할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는 신중한 자세를 가져왔다. 현재 교회는 1531년 멕시코 과달루페, 1830년 프랑스 파리의 뤼 뒤 박, 1846년 프랑스 라 살레트, 1858년 프랑스 루르드, 1871년 프랑스 퐁멩, 1879년 아일랜드 노크,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 1932년 벨기에 보랭, 1933년 벨기에 바뇌에서 있었던 성모님 발현만을 정식으로 인가하였고, 유고슬라비아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은 아직 인가하지 않았다. 나주 성모님 발현에 대해서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교황청 신앙교리성과 협의하여 1998년 1월 1일 '나주의 성모님 메시지'에 관한 공지문을 발표하여 신자들의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교회는 매우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성모님 발현'을 인가하고 있다.

---

124) 참조: 「교회 헌장」 66항.

125) 참조: 『기도하는 교회의 마리아-대축일, 축일, 기념일 해설』, 코라도 마죠니 저, 박영식 역, 가톨릭출판사, 2006년, 29-30쪽.

메시지의 동기와 내용, 객관적인 발현과 주관적인 착시의 구별, 메시지 수령자의 건강 상태나 신앙 생활 등 여러 가지를 조사한 후에 인가 여부를 결정짓는다. 따라서 우리는 성모님 발현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나 평가에 앞서 먼저 교회의 공적인 입장이나 가르침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교회의 공식적인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성모님 발현 장소에 대한 공적인 공경과 메시지 선포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숙지해야 한다.

간혹 길거리 홍보를 통해 교회가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성모님 발현을 알리고 메시지를 전하며 발현 장소를 성지처럼 소개하는 유인물을 나누어 주는 경우를 더러 만나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성모 신심 관련 단체는 교회가 성모님을 공경하는 이유와 성모님 발현을 공인하는 기준과 원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모 신심을 보급하고 전파해야 한다.

성령의 카리스마(은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성령께서는 세상의 기원에서 시작하여 이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선사해 주신다. 신자 각자는 세례성사를 통해 성령을 선사 받고 그분의 은총 속에 신앙 생활을 이어나간다. 성령쇄신봉사회는 이런 성령의 은사를 더 충만케 한다. 때문에 성령 세미나와 성령 기도회가 열릴 때마다 많은 신자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룬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성령 세미나와 성령 기도회를 통해 더 깊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면서 이에 감사드리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지만, 성령의 은사만을 추구하면서 성령의 은사가 마치 어느 개인만의 은사인양 그 개인을 추종하고 방언, 치유, 구마 등 성령의 은사를 얻기 위해 이 기도회 저 세미나를 전전하는 것은 그리 올바른 신앙 생활은 아니라는 것이다. 성령 쇄신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쇄신하는 데 더 중심을 두기 때문이다.

사도 바오로는 코린토 1서 12장에서 여러 은사들을 언급하면서,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은사를 베푸시는 분은 바로 같은 성령이시고, 은사는 모두 공동선을 위한 것이며,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이어 사도 바오로는 교회를 하나인 몸과 여러 지체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은사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지적한다. 첫째는 자신이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사보다 못하다는 생각이고, 둘째는 자신이 받은 은사만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사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생각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 사도 바오로는 몸에 딸린 지체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듯이 각 개인이 받은 은사는 모두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따라서 사도 바오로가 분명하게 제시하고 권고한 것처럼, 성령께서는 은사를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내려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126]

사도 바오로가 은사의 "다양함과 아울러 일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다양함이 때때로 풍요함의 원천이 아니라, 혼란의 원인이"[127] 되기 때문이다. 이에 다양한 은사의 동일한 원천, 곧 '같은 성령, 같은 주님, 같은 하느님'을 강조하면서 일치를 촉구하고, 은사가 공동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한다.[128]

오늘날에도 성령의 은사를 잘못 이해하는 데 기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는 한국 천주교회 내에서도 성령과 그분의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여 성령과 그분의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신앙교리위원회는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 영적 식별의 경험에 근거하여 은사 식별 기준을 일곱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성령의 은사는 공동선, 곧 공동체의 선익과 성장을 위하여 주어진다. 둘째, 성령의 은사는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 사용된다. 셋째, 성령의 은사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한다. 넷째, 성령의 은사는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일치와 화합을 도모한다. 다섯째, 성령의 은사는 교회 교도권과 그 권위에 순종하도록 이끈다. 여섯째, 성령의 은사는 자기 자랑이나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신보다 낫게 여기게 한다. 일곱째, 성령의 은사는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이성의 도움을 받아 신앙의 진리를 이해하도록 한다.[129] 이에 "만일 누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동체의 선익을 해치거나, 사랑을 거스르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또한 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해치고, 교도권을 무시하거나 반대하면서 교만하고 반(反)이성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그가 주장하는 은사가 참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인지 신중하게 식별해야 한다"[130]라고 가르친다.

특별히 신앙교리위원회는 성령의 은사가 개인은 물론, 공동체의 신앙 쇄신과

126) 참조: 1코린 12, 4-7.12-31.

127) 1코린 12, 4-6; 김영남,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고린토 1서 12장 1-11절", 『생활성서』, 2002년 5월호, 105쪽.

128) 참조: 1코린 12, 4-6; 김영남,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고린토 1서 12장 1-11절", 『생활성서』, 2002년 5월호, 104-107쪽.

129) 참조: 『올바른 성령 이해』,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년, 70-80쪽.

130) 『올바른 성령 이해』,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년, 81쪽.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만족보다는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은사를 청해야 하고, 받은 은사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도록 사용해야 하며,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좋은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한다.[131]

모든 신자와 모든 단체는 자신만의 고유한 카리스마(은사)를 가지고 있고, 특정 카리스마(은사)를 바탕으로 활동한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성령 강림 이후 성령의 은총에 기반하여 복음 선포에 주력했던 초기 교회 공동체를 모범으로 성령의 카리스마(은사) 안에서 신자 개인과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쇄신하고 은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회의 사명 완성

(1) 인간의 기본권 수호, 존엄성 고양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립이든 공립이든 모든 인간 단체는 인간의 존엄과 목적에 봉사하며 온갖 사회적 정치적 예속을 거슬러 줄기차게 투쟁하고 모든 정치 체제 아래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수호하도록 진력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단체들은 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때로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모든 것 가운데에서 가장 드높은 정신적 실재에 점차 부응해 나가야 한다"(「사목 헌장」 29항)라고 촉구한다.

교회 단체도 마찬가지다. 교회 단체 역시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본권이 수호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간의 기본권과 그 존엄성 수호는 다른 모든 가치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창세 1, 26)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하면서 인간이 하느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곧 하느님의 모상(模像, Imago Dei)으로 창조되었다고 언급한다. 이는 모든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서 존엄성(尊嚴性)을 가지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격성(人格性)을 가진다는 사실을 말한다. 따라서 교회 단체와 신자 각자는 이러한 인간의 기본권과 그 존엄성을 수호하고 신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유일무이하고 고유한 하느님의 창조 행위를 거쳐 이 세상에 존재하기에, 다른 어떤 사람으로도 대체할 수

131) 참조: 『올바른 성령 이해』,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년, 56쪽.

없는 소중한 존재이기에, 인종, 성별, 배경, 능력, 경제력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성별, 인종, 피부색, 사회적 신분, 언어, 종교에서 기인하는 차별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132] 우리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똑같은 인간으로 대접받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동반자, 협력자, 봉사자로 자리하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존엄성과 불가침의 인격성을 갖는다고 해서 이 세상 다른 모든 피조물을 억압해도 좋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인간에게 에덴 동산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동물들과 식물들을 돌보는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다른 모든 피조물의 억압자가 아니라 관리자 내지 보호자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연과 공존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는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생명과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죽음의 문화’에 맞서 싸우고 있다. 우리 모두 ‘생명과 생태계의 소중함’을 깨달아 생명을 지키고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교회가 펼치는 많은 사도직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자살, 낙태, 안락사, 생태계 오염과 파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공동선 증진, 연대성 함양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개별 인간과 인간 공동체가 사랑과 정의에 기반하여 공동선을 증진하고 연대성을 함양할 것을 강조한다. 이에 공의회는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능력과 타인의 필요에 따라 공동선에 기여하고 사립이든 공립이든 인간의 생활 조건 개선에 이바지하는 단체들을 밀어 주고 도와줌으로써 정의와 사랑의 의무를 더욱더 잘 이행할 수 있다. […]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사회적 연대 책임을 현대인의 주요 의무로 여기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세계가 하나로 결합될수록 더욱 분명히 인간의 임무도 개별 집단을 뛰어넘어 점차 전 세계로 확대되어 간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각 개인과 개별 단체들이 스스로 도덕적 사회적 덕을 닦고 그 덕행을 사회에 확산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여 필요한 하느님 은총의 도움으로 참으로 새로운 인간, 새로운 인류의 창조자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사목 헌장」 30항)라고 촉구한다.

공동선이란 개인의 개별적 이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에 공통되는 전체의

132) 참조: 「사목 헌장」 29항.

이익을 의미한다. 공동선 원리의 기초에는 사적 이익보다는 공적 이익이 우선한다는 공익의 원리와 인간 존엄성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 물론 공동선은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이 전체적으로 잘 조화되어 성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인간 개인과 개별 공동체는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공익 또한 존중해야 할 중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교회의 평신도 사도직 단체 역시 공동선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참으로 공동선은 개인과 가정과 단체가 더 충만하게 더욱 쉽게 자기 완성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 생활 조건의 총체를 포괄"(「사목 헌장」 73항)하는 것이다.

연대성은 인간의 인격성과 사회성을 바탕으로 그 상호간의 결합을 통해 사회적 질서가 유지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연대성의 원리는 인간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본질적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이 지니고 있는 사회성에 따라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개인과 사회를 조화시켜 함께 발전하도록 하는 원리인 것이다. 연대성은 개인과 사회,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서 추구해야 할 상호 의존과 협력에 대한 도덕적 응답이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공동체, 국제 관계에서 드러나는 상호 의존은 결국 창조된 모든 재화가 만인을 위한 것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연대 의식으로 고양되어야 한다.

교회는 특별히 국제적 차원의 연대성을 강조한다. 선진국과 후진국,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연대성을 중요시한다. 여기서 연대성은 "빈곤과의 투쟁, 모든 사람이 인종·종교·국적의 차별 없이 행복한 인간 생활을 영위하는 세계 건설, 인간을 한데 뭉치기 위한 생산의 증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원조를 할 수 있는 세계 기금 설립 등의 원조 프로그램의 확립, 양자 간 또는 다자간 협상"[133]을 위한 노력으로 구체화된다. 교회는 연대성을 위한 활동이 교회의 사명이자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봉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본분이고 그분께 대한 충성이라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평신도 사도직 단체 역시 연대성을 기반으로 사도직 단체 활동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3) 복음 전파, 선교 사명 구현

모든 신자는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선교 사명을 갖는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

133) 참조: 「민족들의 발전」 43-44, 55항.

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인간 구원을 지향한다. 따라서 교회와 그 모든 지체의 사도직은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분의 은총을 전달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평신도들에게는 복음화와 성화 사도직을 수행할 기회가 무수히 열려 있다. 바로 그리스도교 생활의 증거와 초자연적 정신으로 실천하는 선행은 사람들을 하느님과 신앙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 5, 16). 그러나 이러한 사도직이 생활의 증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참된 사도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든, 신자들을 가르쳐 굳세게 하여 더욱 열정적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것이든,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할 기회를 찾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친다'(2코린 5, 14). 사도의 저 말씀이 모든 이의 마음에 메아리쳐야 한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이다'(1코린 9, 16)"(「평신도 교령」 6항)라고 가르친다.

더 나아가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교화된 지역"의 "평신도들" 역시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 안에서 선교에 대한 인식과 사랑을 깊게 하고, 또 자기 가정과 가톨릭 단체와 학교에서 성소를 일깨우고, 자기들이 거저 받은 신앙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도록 온갖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복음화 활동에 협력"(「선교 교령」 41항)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4) 인간의 복음화와 현세 질서의 그리스도교화

신앙 생활은 믿음과 실천으로 이루어진다. 믿음과 실천이 함께할 때, 복음을 읽고 묵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참다운 신앙 생활이 가능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복음의 생활화에 기반하는 것이고, 그분께서 가장 강조하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에만 완성에 이르는 것이다.

교회는 인간의 모든 차원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선포한다. 교회는 이 사명이 "단순히 지리적으로 더욱 넓은 지역이나 더욱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 계획에 상반되는 인간의 판단 기준, 가치관, 관심 사항, 사고방식, 영감의 원천, 생활 양식 등에 복음의 힘으로 영향을 미쳐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바로잡는 것"(「현대의 복음 선교」 19항), 곧 인간의 모든 것을 복음화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교회는 또한 현세 질서가 그리스도교 정신에 따라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교회의 임무가 바로 “사람들이 현세 질서를 바로 세우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껏 도와주는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성직자들은 “창조 목적과 세계 이용에 관한 원칙을 분명하게 밝혀 주고 현세 질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워지도록 도덕적 영성적 도움을 주어야”하고 “평신도는 현세 질서의 개선을 고유 임무로 받아들이고, 그 질서 안에서 복음의 빛과 교회 정신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확고하게 바로 행동하여야 한다”라고 말한다. “현세 질서는 그 고유 법칙을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더 높은 그리스도교 생활의 원리에 맞게, 그리고 다양한 시대, 장소, 민족의 상황에 알맞게 개선되어야 한다”(「평신도 교령」 7항)라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것을 복음화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현세의 모든 질서를 그리스도교화하는 것이 교회와 그 구성원 모두가 해야 할 사명이요 임무이다. 평신도 역시 “세속 현실에 머물며 신앙과 복음의 정신에 따라 능동적으로 활동하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찾아야” 하고 “세상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는 가운데 신앙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의 신원과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서울대교구 시노드 후속 교구장 교서』, 「평신도」 17항) 한다.

평신도 사도직 단체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그 정신을 인간과 사회 전체에 심는 ‘복음화’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신자들의 이러한 모임은 민족 고유의 부요한 문화를 지니고 그 백성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한다. 가정은 복음 정신에 젖어 번영하여야 하며, 또 훌륭한 학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여러 단체나 회합들이 세워지고 이를 통하여 평신도 사도직이 사회 전체에 복음 정신을 파고들 수 있어야 한다”(「선교 교령」 15항)라고 제시한다.[134]

『서울대교구 시노드 후속 교구장 교서』는 “평신도들은 일상 생활에서 겪는 체험들, 그들이 만난 사람들, 가정들, 사회 집단들이 안고 있는 문제와 이들이 제기하는 도전들을 교회에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복음화 사업은 제 자리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평신도들의 생활 체험, 학문적 능력, 전문적 능력은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발전시키고 복음을 토착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평신도」 15항)라고 말한다. 평신도 사도직 단체는 교회가 신자 개인과 세상 모든 사람들, 교회 자신과 온 세상을 복음화하는 장(場), 그리스도교화하는 터전으로서 인식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

134) 참조: 「선교 교령」 23항.

(5) 하느님 나라 확장과 구현

예수님께서는 갈릴래아에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마르 1, 15)라고 선포하셨다. 예수님이 선포한 하느님 나라는 죄인들을 위한 '하느님 사랑과 자비'의 표징으로 나타난다.[135]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는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 세상에도 현존하는 나라이다.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나라', 그곳이 바로 '하느님 나라'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고, "평신도는 시민으로서 전문 지식과 고유한 책임감을 지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며 어디서나 모든 일에서 하느님 나라의 정의를 찾아야 한다"(「평신도 교령」 7항).

(6) 교회 사명 구현을 위한 평신도 사도직 단체의 역할

『서울대교구 시노드 후속 교구장 교서』는 "평신도들이 가서 일할 '주님의 포도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학술, 교육, 가정, 사회 홍보, 생명, 환경, 국제 활동 등 넓고도 다양한 삶의 현장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평신도들은 공동선을 추구하고 이를 촉진하여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수호하는 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보호하는 일, 정의와 평화와 자유를 증진하는 일, 정의와 사랑에 더욱 굳건히 바탕을 둔 사회를 건설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평신도」 9항)라고 말한다. 이러한 교회 사명 구현을 위해 평신도 사도직 단체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자못 크다.

① 북방 선교와 해외 선교 추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 선포의 사명을 부여받은 교회는 이 세상 어디에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선교 활동을 모든 그리스도인의 근본 사명으로 강조하고 역설한다.

한국 천주교회는 2012년 기준으로 창립 22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 천주교회는 외국 선교사들의 복음 선포가 아니라 한국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서학 연

135) 참조: 신학총서 제13권 『예수 그리스도』, 발터 카스퍼 저, 박상래 역,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편, 분도출판사, 1977년, 106-107쪽.

구, 참다운 진리 추구, 의연한 신앙 수용으로 시작되었던 만큼 세계 그 어떤 지역 교회보다도 굳건한 자생력과 역동성을 갖고 있다. 이제 한국 천주교회는 그 힘찬 선조들의 신앙을 이어 받아 교회의 내적 쇄신을 이루고 영적 활력을 회복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느님을 모르는 다른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을 열성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가깝게는 가족, 친지, 이웃에게, 멀게는 해외 동포나 외국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믿고 고백하는 바를 알리고 선포해야 할 의무를 갖는 것이다.

이제는 선조들에게 전해 받은 그 열성과 활력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때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천주교회에 외방선교회, 북방선교회를 비롯하여 해외 선교와 관련한 여러 단체들이 생겨나고 관련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깊은 일이다. 아직 복음을 온전히 전해 받지 못한 중국이나 북한, 몽골을 비롯한 아시아 다른 지역, 아프리카, 그리고 이미 복음이 뿌리내렸지만 새로운 열성과 활력이 필요한 아메리카, 유럽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그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는 시대의 사명이다.

② 노상 선교와 가두 선교의 활성화 및 신중함

한국 천주교회에도 노상 전교회나 가두 선교단이 발족하고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런 단체들이 활성화 되어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노상 선교와 가두 선교 단체들이 관련 활동을 수행하면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교회가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선교 활동 못지않게 삶으로, 생활로, 선행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행위 역시 중요시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자주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을 만나고 간혹 대중매체를 통해 '땅밟기 선교'라는 독단적인 선교 방법을 접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러한 선교 행위가 일반 사람들에게 주는 위화감이나 불쾌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 개신교회 신자 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통해서도 이런 선교 방법이 그리 효과적인 선교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해 받는 이의 심정이나 가치관, 사회문화적 여건이나 상황, 사상과 종교의 자유, 이런 모든 것을 존중하는 자세 안에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③ 사회 참여, 사회 복지 관련 단체의 우선적 과제

모든 신자는 믿음과 실천의 조화를 이루고 복음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며 이 세상 모든 질서를 복음의 정신으로 채워야 할 사명을 갖는다. 이런 측면에서 이 사회

에 복음의 정신을 심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려 애쓰는 많은 사회 참여, 사회 복지 관련 단체의 의미와 활성화의 과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보이셨다. 가난한 이와 굶주린 이, 세리와 창녀들, 당시 사회 환경에서 죄인들로 취급되었던 병자들,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했던 어린이와 여자들을 가까이하셨다. 교회 역시 가난을 중요시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귀히 여기시고 몸소 가난하게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며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하는 교회의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나서고 도와주기를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며,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기도 하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웃들 중에서 가장 작은 이들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당신께 해 드린 것이라고 말씀하셨다.[136]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며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하는 교회의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적 가난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물질에 대한 지나친 애착과 탐욕을 버리고 가진 것을 나누는 참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 활동이나 사회 복지 관련 단체들이 특별히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가장 탁월한 애덕 행위이면서 그리스도교 사랑의 실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특별하고 고유한 사명이기 때문이다.

이에 교회는 "현대의 경제 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하며 정의와 사랑을 위하여 투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인류의 번영과 세계 평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활동에서 개인이든 단체든 빛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얻어, 현세 활동에서 바른 질서를 지키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충실하여, 개인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그리스도인의 온 삶은 참행복의 정신, 특히 가난의 정신에 젖어들어야 한다. 그리스도께

136) 참조: 마태 25, 40. 45.

순종하며 먼저 하느님 나라를 찾는 사람은 누구나 더욱 강렬하고 더욱 순수한 사랑을 받아, 자신의 모든 형제를 도와주고 사랑에 이끌려 정의의 위업을 성취할 것이다"(「선교 교령」 72항)라고 가르친다.

④ 직업 활동 관련 단체나 취미/특기 관련 단체

직업 활동 관련 단체나 취미/특기 관련 단체들은 특별히 모든 평신도 사도직 단체가 교회의 사명을 구현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직업 활동 관련 단체나 취미/특기 관련 단체들은 단순히 동종의 직업이나 취미/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가 아니라 교회의 사명을 구현하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단체 활동을 수행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려는 목적 의식도 별로 없고 관련 사도직 활동도 수행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친교만을 목적으로 모인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사회 모임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임으로 전락할 것이다. 교회 사명을 구현하려는 확고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활발하게 사도직 활동을 수행하면서 동종의 직업이나 취미를 가진 신자들 간 친교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3) 신자 양성과 재교육 역할 증진

2008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가 펴낸 『한국천주교 신자교육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는 단체 교육 실태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제시한다. 그 가운데서 다음 네 가지 문제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단체의 교육 과정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한계를 언급하면서, 회원들이 한 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는 것을 고려해 단체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둘째, 단체 성격에 알맞은 교육 내용의 부재를 언급하면서 특성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셋째, 각 단체가 상호 연대성이 없이 독립적으로 제각각 운영되는 문제점에 주목하면서, 단체의 직능에 걸맞는 연계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넷째, 단체의 성격이나 정체성에 부합하는 교육이 부재하다고 언급하면서, 전문성을 가진 교육, 정체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137]

평신도 사도직 단체는 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제자, 참그리스도인으로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137) 『한국천주교 신자교육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2008년, 68-70쪽.

세계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권고 「사랑의 성사」가 "세계주교대의원회의 교부들은 각자의 고유한 은사에 따라 그리스도인 교육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봉헌 생활회와 운동과 단체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64항)라고 언급하는 것처럼, 신자 양성과 재교육에 평신도 사도직 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1) 평신도 사도직 단체는 신자 양성과 재교육의 장(場)

평신도 사도직 단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양성과 재교육의 장이다. 새내기 신자나 청년 신자들에게도 신자로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도직이나 다른 초자연적 목적을 지향하는 평신도들의 모임이나 단체들은 그 목적과 규범에 따라, 사도직을 위한 양성을 열심히 또 끊임없이 촉진하여야 한다. 이 단체들이야말로 흔히 적절한 사도직 양성의 일반적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 단체들 안에서, 교리와 영성과 실천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회원들은 동료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통하여, 자신들의 사도적 활동의 방법과 성과를 검토하고, 일상의 생활 방식을 복음과 비교한다. 이러한 양성은 평신도 사도직 전체를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평신도 사도직은 그 단체의 모임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모든 환경에서 특히 직장과 사회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신자가 사도직 수행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하여야 하지만, 특히 성년에 이른 신자들에게는 그 준비가 더욱 긴요하다"(「평신도 교령」 30항)라고 강조한다.

특별히 젊은이들을 위한 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아시아 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권고 「아시아 교회」 47항은 "만일 젊은이들이 선교의 효과적인 주체가 되기를 바란다면 교회는 그들에게 적절한 사목적 배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본당들과 협회들 그리고 운동 단체들은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한 성장의 가능성을 그들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진로 안내, 직업 훈련, 젊은이 상담 등의 형태로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이 사회 압력에 더욱 잘 대처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시아 젊은이들의 그리스도교적 양성을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단지 교회의 사목적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의 사랑과 봉사의 사도직 활동에서 교회 사명의 주체들이며 협력자들'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당과 교구에서 남녀 젊은이들은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활동 단체에 참여하도록 초대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신선함과 열정, 연대 정신과 희망은 그들을 분열된

세상 속에서 평화의 일꾼이 되도록 해 줄 것입니다”라고 역설한다.

“교회와 세상에서 평신도들이 수행해야 할 막중한 사명에 비추어 이들이 종합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절실”(『서울대교구 시노드 후속 교구장 교서』, 「평신도」 12항)하고 그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우리 교구는 사제 양성 못지않게 평신도 양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별히 “사도직 운동이나 단체는 바로 이러한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교구는 예비 신자, 일반 신자, 평신도 지도자, 교회 기관 종사자 등 각계각층의 신자들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기존의 프로그램들도 적절한지 그 여부를 재검토” 해야 하며, 사도직 단체장을 비롯하여 회원들이 사도직 “직무에 적합한 교육을”(『서울대교구 시노드 후속 교구장 교서』, 「평신도」 13항)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2) 단체별로 회원들을 위한 자체 양성 교육 프로그램 마련

각 단체가 임원과 회원들 모두를 위해 자체적인 양성과 재교육 과정, 관련 교재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히 각 단체 담당 사제와 각 단체장들이 유념해야 할 일이다. 각 단체 담당 사제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활성화하고 참여적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교육에 평신도들을 협력자로 활용”하여 “평신도들의 자발적 참여와 효율성을”(『서울대교구 시노드 후속 교구장 교서』, 「평신도」 16항)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평신도 단체들의 회장들은 그 단체의 회원들이 평신도들에게 고유한 사도직을 수행하기 합당하게 양성되도록 힘써야 한다”(「교회법」 제329조).

이는 한국 천주교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도직 단체들, 특별히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주요 사도직 단체들이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이다.

① 기초 교육과 심화 교육 마련

모든 사도직 단체들은 회원들을 양성하고 재교육하기 위해 기초 교육과 심화 교육을 마련해야 한다. 사도직 단체들은 먼저 정기 회합이나 교육 시간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단체의 정체성과 사명을 익힐 수 있는 기초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더욱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양성 교육 과정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심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간부 또는 임원들을 위해서는 이 시대에 교회와 사회가 원하는 참다운 리더로서 양성될 수 있도록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

고, 회원들을 위해서는 사도직 단체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열성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고 신심을 고양하며 단체의 목적과 정신을 확고히 하는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② 단기 교육과 중·장기 교육 마련

모든 사도직 단체들은 회원들을 양성하고 재교육하기 위해 단기 교육과 중·장기 교육을 마련해야 한다. 많은 단체들이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등 짧은 단기 교육을 통해 회원을 양성하고 재교육한다. 이런 단기 교육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이런 단기간 교육과 더불어 긴 기간을 할애하여 단계적으로 회원들을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중·장기 교육 역시 꼭 필요하다. 단기 교육과 중·장기 교육을 병행하면서 사도직 단체의 내실을 기하고 쇄신을 단행하며 회원들이 사도직 단체의 정신을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신자 평생 교육의 측면에서도 단기 교육과 중·장기 교육 마련은 모든 사도직 단체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③ 양성과 재교육 과정에 신자 참여 촉진

기초 교육과 심화 교육, 단기 교육과 중·장기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이 교육에 더욱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자들에게 이를 널리 홍보하고 그 중요성을 알려 주는 것 역시 필요하다. 체계적인 단체 입문 교육과 재교육 과정, 우리나라에 적합한 토착화된 양성과 재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보급하면서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모든 신자들을 참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성하고 교육하기 위해 이미 『서울대교구 시노드 후속 교구장 교서』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우선은 교구에서 가능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평신도 교육"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어 "다양한 평신도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평신도들의 전인적인 교육과 지속적인 양성을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평신도 센터' 설립을" 추진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거쳐"(「평신도」 19항) 시행해야 할 일이다.

제2장 단체 사목의 체계 확립과 지원 확대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단체 사목의 체계를 확립하고 각 단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1. 단체 사목의 체계 확립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사목국 단체사목부를 중심으로 단체 승인의 원칙과 준거를 확립하고 단체 자율성과 교회 관할권의 조화를 촉진하며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상황에 적합한 단체 지침서를 마련하여 시행하면서 단체 사목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1) 단체 승인의 원칙과 준거 확립

사도직 단체를 담당하는 관할권자(교황청,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각 교구장 등)는 관할권 내 제 단체들을 승인하는 원칙과 준거를 우선적으로 확립해야 한다. 교회에서 정한 단체 관련 규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교회성과 공익성 구현

평신도 사도직 단체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의 가르침과 정신, 곧 교회성을 구현해야 한다. 「평신도 그리스도인」 30항은 평신도 단체들을 위한 '교회성의 기준'으로 성화 소명, 성덕, 그리스도교 생활의 완성과 완덕을 향한 성숙, 가톨릭 신앙의 고백, 교도권에 대한 순종, 교회에 관한 진리, 인간에 관한 진리를 수용하고 선포하여야 할 책임, 확고하고도 진정한 친교, 교황과 주교와 더불어 이루는 친교, 교회의 사도직 목적에 대한 순응과 참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며, 그들의 양심을 그리스도교적으로 형성하고, 다양한 공동체와 환경에 복음의 정신을 불어넣는'(「평신도 교령」 20항) 그 사도직 목적을 따르고 그 목적에 참여하는 것, 재복음화에 참여하여 그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선교

열정, 인간 사회에서 교회의 현존을 위한 투신, 교회의 사회 교리에 따라 인간의 전인적 존엄성에 봉사하도록 투신하는 삶을 요청한다.

(2) 정관의 필요성과 정관에 따른 운영

「교회법」은 먼저 단체에 정관이 필요하고 교회 관할권자에게 정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교회법」 제322조 1항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는 제312조에 언급된 교회의 관할권자의 정식 교령으로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2항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어느 사립 단체도 그 정관이 제312조 제1항에 언급된 교회 권위에 의하여 승인되지 아니하는 한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정관의 승인이 그 단체의 사립 성격을 바꾸지는 아니한다"라고 말한다.

또한 「교회법」은 각 단체가 정관에 따라 단체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제321조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사립 단체들을 정관 규정에 따라 지도하고 관장한다"라고 말한다. 이어 제324조는 회장과 임원의 임명, 재산의 소유와 관리, 단체의 소멸과 재산의 처리 역시 정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324조 1항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는 정관의 규범에 따라 그 회장과 임원들을 자유로이 지명한다", 제325조 1항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로이 관리한다. 다만 재산이 단체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감독할 교회의 관할권자의 권리는 보존된다", 2항은 "신심의 이유로 단체에 증여되거나 유증된 재산의 관리와 지출에 관한 것은 제1301조의 규범에 따라 교구 직권자의 권위에 예속된다", 제326조 1항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는 정관의 규법에 따라 소멸된다. 또한 그 활동이 교회의 교리나 규율에 중대한 손상을 끼치거나 신자들에게 추문이 되면 관할권자에 의하여 폐쇄될 수도 있다", 2항은 "소멸된 단체의 재산의 청산은 정관의 규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다만 기득권과 기증자의 의사는 존중된다"라고 말한다.

모든 평신도 사도직 단체는 우선적으로 단체를 운영하는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는 정관을 마련해야 하고 해당 관할권자에게 그 승인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3) 교계와 맺는 관계성

① 영적 고문(담당 사제)의 선임과 관할권자의 추인

평신도 사도직 단체는 단체를 도울 영적 고문(담당 사제)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교구 관할권자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교회법」 제324조 2항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가 영적 고문을 두고 싶으면 그 교구에서 합법적으로 교역을 수행하고 있는 사제들 중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나 교구 직권자의 추인이 요구된다"라고 명시한다.

2011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단체사목부가 교구 내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체 사목 활성화를 위한 현황 조사'에서 여러 단체장들이 문22 "교구장님께나 다른 주교님께 건의할 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써주십시오"라는 질문에 전담 사제 임명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② 관할권자 감독과 조정에 대한 단체의 예속성과 관할권자 조정과 감독의 필요성

단체와 교회 관할권의 관계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각 단체는 관할권자(교황청, 주교회의, 교구)의 감독과 조정을 받아야 하고, 각 단체 관할권자는 담당 단체를 감독하고 조정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는 단체와 그 정관의 승인, 영적 고문(담당 사제) 추인, 재산의 관리, 단체 폐쇄 결정 등 모든 중요한 사안을 포괄한다. 특별히 단체의 관할권자는 "평신도 사도직을 증진하며 그 원칙을 제시하고 영적인 도움을 주며 교회 공동선을 위하여 사도직 실천을 지도하고 교리와 질서가 보전되도록 감독하는"(「평신도 교령」 24항) 임무를 갖는다.

(4) 명칭의 합목적성

「교회법」 제304조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들의 명칭이 해당 단체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1항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모든 단체들은 공립이거나 사립이거나 어떤 명의나 명칭으로 불리든지 간에, 그 단체의 목적 즉 사교적 목표, 본부 소재지, 통할(운영) 및 그 단체에 가입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건들을 정하고 또한 시대와 장소의 필요나 유익을 유의하면서 활동 방침도 규정하는 정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2항은 "시대와 장소의 관행에 맞추고 특히 지향하는 목적에서 가려 낸 명의 즉 명칭을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말한다.

(5) 천주교 서울대교구 자체 단체 승인의 원칙과 준거 마련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2010년에 평신도 (사립) 단체를 인준하기 위하여 교회 가르침과 정신을 구현하는 비영리단체, 공익성 추구, 담당 사제, 정관, 활동과 재정 감사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을 마련하였다.

향후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평신도 (사립) 단체를 인준하기 위하여 더욱 그 승인의 원칙과 준거를 확실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1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단체사목부가 교구 내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체 사목 활성화를 위한 현황 조사'에서 여러 단체장들이 문20 "교구 사목국 단체사목부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각 단체 특성과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배려, 비슷한 카리스마(은사)를 갖고 있는 단체 간 협력과 통합 지원, 단체별 영성에 따른 단체 구분, 직능 단체와 신심 단체 구별, 단체 사사화(私事化) 방지, 단체가 이익 단체나 친목 단체가 되는 가능성 최소화' 등으로 답변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각 단체 카리스마(은사) 확립과 이에 맞갖은 사도직 활동과 관련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새로운 단체를 승인할 때는 그 단체가 고유한 카리스마(은사)를 갖고 있는지, 그에 맞갖은 사도직 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미 같은 카리스마(은사)를 갖고 같은 사도직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 굳이 새로운 단체를 설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경제·사회적 이익이나 단순히 회원 간 친목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다면 승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도 천주교 서울대교구 고유의 단체 승인 원칙과 준거를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2) 단체 자율성과 교회 관할권의 조화 촉진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각 단체가 자율성을 잘 살리면서 이와 동시에 단체를 관리하고 조정하며 지원하는 교회 관할권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교회는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이와 동시에 단체가 교회 관할권에 예속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교회법」 제323조 1항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들은 제321조의 규범에 따라 자율성을 누리지만, 제305조의 규범에 따라 교회 권위의 감독과 또한 그 권위의 통할에도 예속된다"라고 말하고, 제305조 1항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모든 단체들은 그 단체들에게 신앙과 도덕이 온전히 보전되

도록 보살피고 교회의 규율에 남용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따라서 법과 정관의 규범에 따라 단체들을 순시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교회의 관할권자의 감독에 예속된다. 또한 관할권자의 통할에도 아래의 교회법 규정들대로 예속된다" 라고 말하며, 제305조 2항은 "어느 종류의 단체들이든지 성좌의 감독에 예속된다. 교구 단체들뿐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교구 내에서 활동하는 한도만큼 교구 직권자의 감독에 예속된다"라고 말한다.

교회는 교회 관할권자가 단체를 감독하고 조정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밝힌다.「교회법」제323조 2항은 "사립 단체들에게 고유한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힘의 분산을 방지하고 그들의 사도직 수행이 공동선을 지향하도록 감독하고 보살피는 것도 교회 권위의 소임이다"라고 말한다.

특별히 평신도 사도직 단체가 사도직 수행에 있어 개인이나 개별 단체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 공동선을 지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를 감독하고 지원하는 것이 교회 관할권의 역할이라고 말한다.「교회법」제223조 1항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개인으로서나 단체의 회원으로서나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때에는 교회의 공동선뿐 아니라 타인들의 권리 및 타인들에 대한 의무도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2항은 "교회 권위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고유한 권리의 행사를 공동선에 비추어 조정할 소임이 있다"라고 말한다.

이는 평신도와 교계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처럼 교회의 영적 보화에서 특히 하느님 말씀과 성사들의 도움을 거룩한 목자들에게 풍부히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하느님의 자녀들과 그리스도의 형제들에게 맞갖은 자유와 신뢰로, 자기들의 필요와 소원을 목자들에게 표명하여야 한다. 평신도들은 그들이 갖춘 지식과 능력과 덕망에 따라 교회의 선익에 관련되는 일에 대하여 자기 견해를 밝힐 권한이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그럴 의무까지도 지닌다. 그럴 경우에는 교회가 그 목적으로 설립한 기구들을 통하여 언제나 솔직하고 대담하고 지혜롭게 자기 의견을 밝혀야 하며, 거룩한 임무의 수행에서 그리스도로서 행동하는 이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지녀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처럼 평신도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시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의 복된 길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 주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거룩한 목자들이 스승과 지도자로서 교회 안에서 결정하는 것들을 그리스도인의 순종으로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 지도자들은 우리 영혼들에 대한 셈을 치러야 할 사람으로서 우리를 돌보는 것이므로, 그들이 탄식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도록(히브 13, 17 참조), 자기 지도자들을 하느님께 맡겨 드리는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거룩한 목자들은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의 품위와 책임

을 인정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기꺼이 그들의 현명한 의견을 참작하고, 신뢰로써 그들에게 교회에 봉사하는 직무를 맡기며, 행동의 자유와 여유를 남겨 주고, 더 나아가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그들을 격려하여야 한다. 평신도들이 제기하는 계획과 요청과 열망에 어버이다운 사랑으로 관심을 기울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를 깊이 헤아려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지상 국가에서 누리는 정당한 자유를 목자들은 인정하고 존중할 것이다. 평신도들과 목자들 사이의 이러한 친숙한 교류에서 교회의 수많은 선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평신도들의 책임감이 튼튼해지고 열성이 자라나며, 평신도들의 힘이 더욱 쉽게 목자들의 활동에 결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목자들은 평신도들의 경험에서 도움을 받아 영신적인 일에서나 현세적인 일에서 더욱 명백하고 더욱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그렇게 하여 온 교회가 모든 지체의 힘을 합쳐 세상의 생명을 위한 자기 더욱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교회 헌장」 37항)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단체 관할권자는 신자들이 단체 사도직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촉진해야 한다. 교회 관할권자는 "신자들이 각자 자신의 여건과 능력에 따라 사도직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끊임없이 촉구하고, 신자들이 다양한 평신도 사도직 활동, 특히 가톨릭 운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를 후원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초자연적인 목적을 직간접으로 추구하는 단체들을 육성하고 증진시켜, 더욱 더 완전한 생활을 지향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인에게 선포하며, 그리스도교 교리나 공적 예배의 발전을 촉구하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거나 신심운동 또는 자선 활동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주교 교령」 17항).

물론 교회 관할권은 먼저 평신도 사도직 단체를 통제하는 역할이 아니라 평신도 사도직 단체가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것이고, 보조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단체를 지원하는 적정 수위를 지켜야 할 것이다. 각 단체의 자율성과 단체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교회 관할권이 적정 조화를 이루어야 단체 활성화 또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 천주교 서울대교구 상황에 적합한 단체 지침서 마련과 시행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각 나라와 지방의 다양한 환경에 맞추어 특수한 신자 단체의 사목을 위한 특수 지침서도 만들어야 한다”(「주교 교령」 30항)라고 언급하였고, “그 모든 단체는 어떠한 종류의 단체이든 선교 활동에 관련된 모든 일에서 지역 직권자에게 순종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역 직권자와 단체 장상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특별 협약을 맺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것이다. 주교회의와 선교 단체들은 서로 협의하며 지역 직권자들과 선교 단체들 사이의 관계를 지도하는 규범을 제정하여야 한다”(「선교 교령」 32항)라고 언명하였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현재 사목국 내 단체사목부를 신설 운영하면서 단체 설립,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가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한국 천주교회 서울대교구 고유 상황에 맞갖은 단체 설립・운영・폐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나가야 하고, 이를 기초로 단체를 조정, 감독, 지원, 관리해 나가야 한다. 이런 체계를 갖추어 나갈 때 단체의 활성화 또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단체 활동의 공익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활동과 재정 감사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 단체 승인 원칙에서 나타나듯이 각 단체가 자체적으로 사도직 활동이나 재정과 관련한 감사 제도를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천주교 서울대교구 차원에서 사도직 활동이나 재정과 관련한 감사 제도를 도입,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여하튼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통합사목연구소를 중심으로 2011년 12월 6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규정집』을 마련하였듯이, 향후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에 대한 지침서 내지 규정집 역시 필요할 것이다.

2. 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단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체계화하고 확대하며, 단체 간 대화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1) 단체에 대한 사목적 관심과 배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사목국 단체사목부를 통해 더욱더 교구 내 제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며 각 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촉진해야 한다.

2011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단체사목부가 교구 내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체 사목 활성화를 위한 현황 조사'에서 단체장들은 문20 "교구 사목국 단체사목부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과 문22 "교구장님께나 다른 주교님께 건의할 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써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단체 현황 파악, 교육 프로그램 지원, 각 단체 영성 생활 공동 프로그램 제공,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교육, 단체에 대한 관심과 협조, 단체에 대한 관심과 사목적 배려, 전담 사제 임명, 단체 행사 홍보, 단체 행사 장소 제공, 단체 행사 참여와 지원, 단체 재정 지원' 등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근간으로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단체 현황에 대한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파악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단체사목부를 중심으로 단체장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있다. 이를 더 활성화하여 향후에는 단체장뿐만 아니라 회원들과의 정기적인 만남, 미사와 기도 등을 통해 그들의 신심 생활과 영성 생활을 심화하고 그들의 어려움 및 건의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주기적으로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 방향과 전망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본고가 수행한 조사 연구에 이어 추세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2) 담당 사제 선임과 실제적 활동

대개 각 단체에는 담당 사제가 있다. 담당 사제는 단순히 단체를 관리하는 역할, 곧 재정을 관리하고 회원들을 관리·통제하며 중요한 단체 사안들을 인준하고 승인하는 역할만이 아니라 평신도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면서 그들과 함께 일하는 목자이며 동반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실질적 권한이나 활동 없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의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회원들과 함께 단체를 운영해 가는 실제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특별히 단체가 관할권, 관할권자와 갖는 관계에 있어 중간 역할, 대화·소통의 중개자, 통로 역할을 해야 한다. 주교님과 신자들 간 대화와 소통을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각 단체에 담당 사제가 존재하고 교회가 관할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평신도들의 단체 활동을 간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체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고 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단체 관할권자는 단체에서 담당 사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담당 사제를 임명하고, 특정 단체만이 아니라 모든 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단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교회가 "교회의 공동선이 요구할 때에는 영적인 목적을 직접 지향하는 사도직 단체나 활동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교회 권위가 선택하여, 특별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교계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사도직을 지도하며, 어떤 형태의 사도직 활동을 자기 자신의 사도위임을 받아, 이러한 교역에 종사하는 사제들은 그 사목활동에서 교계를 대표한다. 이러한 사제들은 교계와 평신도들의 원활한 관계를 증진하며 언제나 교회 정신과 가르침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가톨릭 단체들의 영성 생활과 사도 정신을 발전시키는 데에 진력하고, 지혜로운 조언으로 평신도들의 사도직 활동을 도와주며, 그 사업을 촉진시켜야 한다. 평신도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며, 더욱더 효과적인 사도직 활동방법을 신중하게 모색하고, 그 단체의 일치는 물론 다른 단체들과도 일치 정신을 증진시켜야 한다"(「평신도 교령」 24항)라고 가르치는 까닭이다.

(3) 단체 행사 및 재정 지원

2011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단체사목부가 교구 내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체 사목 활성화를 위한 현황 조사'에서 많은

단체장들이 '단체 행사 홍보, 단체 행사 장소 제공, 단체 행사 참여와 지원, 단체 재정 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각 단체는 단체별로 단체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한다. 이 행사에는 신자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홍보도 필요하고 행사를 주관할 장소도 필요하며 장소 임대료 및 행사를 주관할 재정도 필요하다. 따라서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만약 이 행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미 각 단체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위해 각 단체 산하에 재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내지 운영위원회를 두거나 교구 조직 체계 안에 각 단체들의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 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술하였듯이, 천주교 서울대교구 차원에서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한 단체가 있다면 이를 지원하는 것 역시 필요할 수 있다.

(4) 교회의 공동체성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

오늘의 인간은 다원화, 세속화, 익명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만큼 더 근본적이고 더 깊이 있는 차원에서 자기 자신, 이웃, 공동체, 더 나아가 하느님과 진정한 소통, 친교, 통교의 관계를 필요로 한다. 이런 시대의 징표를 식별하고 성찰하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를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 친교의 공동체로 가르치면서 공동체적 교회관과 구원관을 천명하였고, 초기 교회 공동체의 이상적인 교회상을 구현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런 교회의 흐름과 전망 안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전후하여 소공동체가 생겨났다. 이는 1956년 브라질을 시작으로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전 세계에 퍼졌다.

한국 천주교회도 1990년대 이래 아시아 교회의 새로운 존재 방식(A new way of being Church in Asia)이면서 공동체들의 친교(Communion of Communities)를 지향하는 소공동체를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교회의 공동체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소공동체 사목에 주력하다 보니 아쉽게도 단체 사목이 위축되는 일면을 갖기도 하였다.

사도직 단체 역시 소공동체와 더불어 교회의 공동체성 확립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만약 현재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구 차원에서 그에 따른 사목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의 장 마련

교구, 지구, 본당 차원에서 단체 활동을 하는 많은 신자들을 위해 관련 교재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양성과 재교육을 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1) 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각 단체별로 각 단체의 카리스마(은사)와 사도직 활동과 관련한 자체 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직 단체 회원들이 모두 알아야 할 내용을 근간으로 통합된 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이는 2011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단체사목부가 교구 내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체 사목 활성화를 위한 현황 조사'에서 단체장들이 문20 "교구 사목국 단체사목부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과 문22 "교구장님께나 다른 주교님께 건의할 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써주십시오"라는 질문에 '교육 프로그램 지원, 각 단체 영성 생활 공동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답변하였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다른 무엇보다도 단체 회원 모두가 알아야 할 평신도 사도직이란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 단체란 무엇인지, 그 정체성과 사명에 대하여 소개하고 가르치는 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교구, 지구, 본당 차원에서 단체 활동을 하는 모든 신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양성과 재교육 과정 마련

무엇보다도 먼저 단체 회원 모두에게 평신도 사도직이란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 단체란 무엇인지, 그 정체성과 사명에 대하여 교육해야 한다. 평신도 사도직 단체 활동을 하면서도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활동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비록 그 단체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할지라도 그 의미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단체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한다면 수행하는 활동에 더 큰 활력과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까닭이다. 이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교황 문헌, 사회 교리, 교구 연간 사목교서 등 신자로서 또 단체 회원으로서 꼭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교육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1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단체사목부는 단체 사목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사목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단체 사목 활성화를 위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현황 조사 문15는 "귀하께서는 교황 문헌, 공의회 문헌, 사회 교리에 대하여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셨습니까?"라는 질문이었다. 이에 적지 않은 단체장들이 아예 답변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 놓았으며, 많은 단체장들이 신부님 강론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들어 보았다고 답변하였다. 극소수의 단체장들만이 관련 공부를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단체장 대부분이 별로 공부해 본 적이 없다고, 깊이 있게 공부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도 단체장이나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공의회 문헌, 교황 문헌, 사회 교리, 교구 연간 사목교서 등 신자로서 또 단체 회원으로서 꼭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교회 가르침을 반드시 교육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제 교육을 위해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가 매년 개설하고 있는 '평신도 학교 공의회 과정'이나 정의평화위원회에서 개설하고 있는 '사회 교리 학교' 등 이미 실시되고 있는 교육을 더욱 권장하고 활성화해야 하고[138] 동시에 새로운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해야 한다.[139]

3) 단체 간 대화와 협력 증진

2011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단체사목부가 교구 내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체 사목 활성화를 위한 현황 조사'에서 많은 단체장들이 문20 "교구 사목국 단체사목부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과 문22 "교구장님께나 다른 주교님께 건의할 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써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단체 교류, 단체 간 협력 증진, 각 단체 연계 역할, 단체 간 상호 협력 도모, 단체 간 유대를 위한 모임 제공, 교구 조직·본당 조직과의 연계 역할'을 언급하였다.

각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도 단체 간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각 단체 스스로, 단체 협의체를 통하여, 교회 관할권의 지원으로 가능한 일이다. 「교회법」 제328조는 "평신도 단체들을 영도하는 이들은, 사도좌의 특전으로

138) 2012년 2월 기준으로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와 정의평화위원회 모두 1년에 2회(반기별) 회원을 모집하여 관련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139) 참조: 『서울대교구 시노드 후속 교구장 교서』, 「평신도」 14항.

설립된 단체들까지도, 자기들의 단체들이 다른 신자들의 단체들과 협력할 만한 곳에서는 협력하고 또한 여러 가지 그리스도교 사업들 특히 같은 지역에 존재하는 사업들에 기꺼이 협조하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1) 단체 간 친교 도모

각 단체는 단체 회원들 간 친교뿐 아니라 단체 간 친교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본당이나 교구 단위로 단체 간 친교를 도모할 수 있는 공동 행사를 개최할 수도 있고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2) 단체의 단일성과 다양성의 조화

교회의 모든 단체는 교회의 사명을 구현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면서도 사실 "사도직 단체들은 매우 다양하다. 어떤 단체는 교회 사도직의 일반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어떤 단체는 특별히 복음화와 성화를 그 목적으로 삼고, 어떤 단체는 현세 질서의 그리스도화를 그 목적으로 추구하며, 어떤 단체는 특히 자선 활동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언한다"(「평신도 교령」 19항). 따라서 모든 단체가 추구하는 근본 목적의 단일성과 각 단체 고유의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서로 다른 목적을 가졌으므로 공동의 조화와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3)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의 필요성과 활성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단체 상호 협력을 위한 조직으로 "각 교구에는 되도록, 복음화와 성화 활동, 자선 사업이나 사회 사업, 그 밖의 다른 분야에서,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평신도들과 적절히 협력함으로써 교회의 사도직 활동을 돕는 협의체를 두어야 한다. 이 협의체는 평신도 단체들의 고유한 특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그 다양한 단체들과 활동들의 상호 조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협의체는 가능하다면 본당 사목구는 물론 본당 간, 교구 간 또는 국가나 국제 차원에서도 설치되어야 한다"(「평신도 교령」 26항)라고 권고한다.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213조에서도 단체 협의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1항은 "성화사업, 자선사업, 사회사업 등 교회의 여러 가지 사도직 활동을 수행하는 평신도 단체들은 각기 고유한 성격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협력하기 위하

여 협의회를 구성한다"(「평신도 교령」 26항 참조)라고, 2항은 "협의회 조직은 교구 및 전국 차원에서뿐 아니라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면 본당 사목구 내에도 둘 수 있다"(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 53-61항 참조)라고 권고한다.

한국 천주교회 차원에서 이미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가 조직되어 있고, 그 산하에 각 교구 협의회가 있으며, 서울대교구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는 교회·국가·사회 각 부문, 곧 교회 쇄신과 선교 활동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사회복지, 생명과 생태계, 언론과 출판, 국제 관계, 민족 화해 차원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평신도들이 교회 사목 활동에 참여하고 공동책임을 지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해 왔다. 따라서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의 활동을 좀 더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의회를 중심으로 단체 간 친교 도모, 정보 교환, 단체 쇄신, 단체 간 조화와 협력 등을 해결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본당, 교구 조직과의 소통과 연계성 구축

2011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단체사목부가 교구 내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체 사목 활성화를 위한 현황 조사'에서 여러 단체장들이 문20 "교구 사목국 단체사목부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과 문22 "교구장님께나 다른 주교님께 건의할 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써주십시오"라는 질문에 '각 단체 연계 역할, 교구 조직·본당 조직과의 연계 역할, 소통의 역할'을 언급하였다.

(1) 본당과 교구 소통의 역할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단체사목부를 중심으로 산하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가 본당 주임 사제, 교구 단체사목부 담당 사제, 사목국장, 교구장 주교와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교구 차원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먼저 산하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장들이 교구장 주교, 사목국장, 사목국 단체사목부 담당 사제와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각 단체장들이 교구청에서 정기적으로 회합을 가지는 형식과 관할권자가 각 단체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정기적인 회합, 간담회, 현장 사목 방문 일정을 통해 교구는 먼저 교구 사목의 주요 방향과 활동을 소개하고 그들의 참여를 요청하며, 각 단체는 단체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사항을 건의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나누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② 본당 차원

천주교 서울대교구 각 본당 주임 사제는 본당 산하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들이 더 원활하게 모임을 개최하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모임에 참관하며 그들의 활동을 지원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단체 단원들이나 회원들이 교회의 지지와 후원을 직접적으로 체감하면서 향후 활동에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신자들의 단체 모임과 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2) 본당과 교구 조직의 연계 역할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단체사목부를 중심으로 산하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가 본당이나 교구와 조직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통합적인 회원 관리 시스템 구축

단체별로 회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만 교구 차원에서 모든 단체 회원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회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역시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만한 일이다.

② 단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단체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직까지 한국 천주교회에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 관련한 문헌이나 자료가 별로 없

다. 향후 평신도 사도직 단체에 관한 조사 연구 작업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고 각 단체별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보관하고 보완하며 연구해 가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③ 평신도 인재 양성과 인적 인프라 구축

각 단체 회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평신도 인재들을 양성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의 우수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교회 전반적으로 성소자 감소, 성직자 부족, 젊은이 감소, 노령화 현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미래 사목의 전망에 있어서도 평신도 지도자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오늘의 교회가 평신도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인적 인프라를 잘 구축해 나갈 때 미래의 교회 역시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내일을 전망하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 이는 아주 긴요한 사목 사안이다.

이렇듯 교구, 본당과의 조직적인 연계를 통해 각 단체 간, 본당, 교구 간 상호보완적인 지원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참고 문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교회 헌장」, 1964년.
_____, 「사목 헌장」, 1965년.
_____, 「주교 교령」, 1965년.
_____, 「평신도 교령」, 1965년.
_____, 「선교 교령」, 1965년.
『교회법전』, 1983년.
교황 바오로 6세, 「민족들의 발전」, 1967년.
_____, 「현대의 복음 선교」, 1975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평신도 그리스도인」, 1988년.
_____, 「교회의 선교 사명」, 1990년.
_____, 「아시아 교회」, 1999년.
_____, 「오세아니아 교회」, 2001년.
교황 베네딕토 16세,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2005년.
『한국천주교 신자교육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2008년.
『서울대교구 시노드 후속 교구장 교서 희망을 안고 하느님께(히브 7, 19)』, 천주교 서울대교구, 2003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2012년 사목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2011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 속인적 신앙 공동체, 2011년 기준 서울대교구 인준 단체들』,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단체사목부, 2011년.
「'새로운 복음화' 개념 연구 및 사목적 모색」,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2011년.
Giuseppe Scabini, "L'azione cattolica e varie forme di apostolato nell'insegnamento teologico", in *Seminarium* (1976).

결어

가톨릭 평신도 사도직 단체는 평신도들이 교회 생활과 교회 (선교) 사명에 있어 더 책임 있게 참여하는 주체로 성장하게 하면서 교회의 영성을 풍요롭게 하였고 혼인과 가정의 성사적 가치들을 재발견하는 데 공헌하였다. 넓게는 소명 운동을 불러일으켰고 좁게는 전례적이고 교리교육적인 쇄신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가톨릭 평신도 사도직 단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강조했던 교회 건설과 선교(사명)에 있어 평신도들의 공동 책임성을 각인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140] 평신도 사도직 단체는 교회 역사에서 교회의 특별한 봉사직과 복음화 활동을 견고케 하는 데 적합한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본래적이고 신학적인 형태를 촉진하고 실현하였다.[141] 이렇듯 가톨릭 평신도 사도직 단체는 그동안 교회를 쇄신하고 교회 사명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국 천주교회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다. 1960년대 이후에는 인권 수호와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 1990년대 이후에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2000년대에는 생명을 존중하고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이 모든 사목 활동을 통해 교회는 성장일로의 길을 걸어왔고, 그 역사 안에서 평신도 사도직 단체가 수행한 역할 역시 자못 크다.

제삼천년기를 살아가는 한국 천주교회는 성장의 추이 속에서도 내외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외적으로는 능력 위주의 경쟁 사회, 일등제일주의, 황금만능주의에 물들어가는 사회 풍토에서 야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다. 또한 내적으로는, 아직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긴 하지만, 냉담 교우의 증가와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의 감소, 고령화, 공동체성 약화, 모임과 활동의 어려움 등과 같은 많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교회가 직면한 이 모든 어려움은 교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공동 책임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평신도 사도직 (사립) 단체들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평신도 사도직 단체 사목 역시 체계화되어야 한다. 평신도 사도직 단체의 활성화와 평신도 사도직 단체 사목의 체계화가 교회 구성원과 교회 자체의 내적 쇄신을 이루고, 우리 자신이 복음화되어 지역을 복음화하고 세상을 복음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140) Cf. Giuseppe Scabini, “L’azione cattolica e varie forme di apostolato nell’insegnamento teologico”, in *Seminarium* (1976), p. 114.

141) Cf. Giuseppe Scabini, “L’azione cattolica e varie forme di apostolato nell’insegnamento teologico”, in *Seminarium* (1976), p. 109.